금주의 법구–〈법구경〉
욕망의 숲을 자르고
욕망서 벗어난 자가 되어라.
영원한 자유를 찾아라.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334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5년 음력 2월 19일) 2021년 3월 31일 수요일



조계사 장엄한 봉축 '이웃사랑燈' 불기 2565년 서울 조계사 봉축도량등 표어는 '늘 이웃과 함께'다. 표어에는 동체대비의 마음으로 이웃과 함께 하자는 의미가 담겼다. 코로나19로 모든 사회 구성원이 힘든 만큼 함께 극복해나가자는 발원이기도 하다. '늘 이웃과 함께'라는 이타행의 정신이 범종의 종소리처럼 널리 퍼지길 바란다. 사진제공=조계사

쌍계총림 방장 고산 대종사 圓寂

23일 법납 74년 · 세수 88세… 종단장 진행

고산 대종사 임종게

春來萬像生躍動(춘래만상생약동)
秋來收藏待次期(추래수장대차기)
我於一生幻人事(아어일생환인사)
今朝收攝歸故里(금조수섭귀고리)

봄이 오니 만상이 약동하고
가을이 오니 거두어 다음을 기약하네
내 평생 인사(人事)가 꿈만 같은데
오늘 아침 거두어 고향으로 돌아가네



조계종 제29대 총무원장을 역임한 쌍계총림 쌍계사 방장 고산당 혜원 대종사〈사진〉가 3월 23일 오전 8시 46분 쌍계사에서 법납 74년, 세수 88세로 원적했다.

1933년 경남 울주에서 태어난 고산 대종사는 13세에 동산 스님을 은사로 득도해 1948년에 사미계를, 1956년 구족계를 각각 수지했다.

고산 대종사는 기도와 정진을 쉬지 않고 오로지 경과 율을 연구해 경 · 율 · 논 삼장을 습득했다. 1961년 당대 제일 강백인 고봉 스님에게 전강을 받고 청암사 · 범어사 등의 강원에서 후학을 제접했다. 1972년에는 당시 대율사인 석암 스님으로부터 전계를 받아 쌍계사의 전계사가 됐다.

이후 고산 대종사는 교(敎)를 버리고 선(禪)에 들어 선지(禪旨)의 깨달은 바가 있어 몸과 마음을 연마하고 모든 반연을 놓아 버렸다. 그러나 두 해를 지나 놓아버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님을 알고 순회 포교와 전법 교화에 매진했다.

29대 총무원장 등 역임
폐사 직전 쌍계사 중창
27일 쌍계사서 다비식

동래포교당과 조계사 · 은해사 등에서 주지를 역임하던 중 고산 대종사는 쌍계사가 폐사 직전에 이르렀다는 이야기를 듣고 홀로 중창 불사에 들어갔다. 돈을 구해 재목을 사들이고, 1000여 집으로부터 시주를 받아 쌍계사와 국사암을 중창했다. 30여 년 중창불사를 통해 쌍계사는 완전히 새 가람을 이루게 됐다.

고산 대종사는 쌍계사 전계사와 조실을 겸하며 30여 년을 주석했으며, 조계종 총무원장 · 전계대화상 등을 역임했다.

대종사는 포교를 위해 사찰 창건에도 힘을 기울여 부천 석왕사, 부산 혜원정사, 연화도 연화사와 보덕암 등의 사찰을 설립했다. 후학 양성을 위해 고산장학회를 창설해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 중 · 고등학생, 대학생을 선발해 장학금을 지급해왔다.

한편, 고산 대종사의 장례는 종단장으로 치러졌으며, 분향소는 쌍계사 팔영루에 마련됐다. 영결식은 3월 27일 오전 10시 쌍계사 도원암 앞에서 봉행됐으며, 다비식은 쌍계사 연화대에서 엄수됐다.

〈영결 · 다비식 차주 상보〉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선암사 본사 지정…조계종 '정체성 찾기' 강화

[뉴스분석] **조계종 본사 지위 회복한 선암사 향방은**

조계종 중앙종회 임시회서
교구 재지정 · 특별법 제정
법원 판결 영향 여부 관심

태고종, 공식입장 표명 없어
사태 추이 관심…'대화' 강조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순천 선암사가 10년만에 조계종 제20교구 본사의 지위를 회복했다. 조계종 중앙종회가 제220차 임시회에서 선암사의 교구본사 재지정을 의결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조계종의 이번 결정이 현재 선암사를 두고 이어져 온 조계종과 태고종 간 소유권 논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정문)는 3월 23일 제220차 임시회를 열고 5번째 안건으로 선암사 제20교구 본사 재지정의 건을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선암사 차 체험관 철거소송의 상고심에서 조계종 선암사의 실체에 의문을 제기한데 따른 후속조치다. 종회 결의에 따라 선암사는 10년만에 조계종 교구본사 지위를 회복한 것을 시작으로, 조계종 본사로서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전방위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그 일환으로 중앙종회는 이날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제출한 '조계종 선암사 정상화 특별법' 제정의 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특별법은 "'조계종 선암사' 정상화를 통해 정화정신을 회복하고 한국불교 전통이 후대에 계승될 수 있도록 교구본사 지위회복과 교구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을 둔다.

특히 조계종은 선암사의 지위를 제20교구 본사로 하되 주지 겸직금지 제외, 중복 취적 가능 등 다른 교구본사와는 다른 예외조항을 명시했다. 교구본사로서의 지위는 회복했지만, 정상화 특별법인 만큼 일반적인 교구본사 행정과도 차이를 둔 셈이다.

조계종 선암사 주지는 산중총회 없이 총무원장이 임명하며 종무원법 제7조 겸직금지 원칙의 예외로 둔다. 교구 재적승 역시 다른 재적교구와 중복으로 취적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원로의원과 중앙종회의원, 총무원장 선출을 위한 선거인도 두지 않도록 명시했다.

또 선암사 정상화를 위한 최고 심의의결기구로 상임위원회를 두며, 관리 정상화를 위해 정화결사단과 산하 재가호법단을 둘 수 있도록 했다. 정화결사단은 선암사 주지가 교구 재적승을 중심으로 구성 · 조직되며 정화결사단장은 주지의 제청으로 총무원장이 임명토록 했다.

특별법에 따르면 선암사는 제20교구본사의 지위로 교구의 종무를 총괄하며 △선암사 정상화를 위한 사업 △선암사의 포교와 교육 · 문화 · 복지 · 홍보사업 △선암사 신도조직 및 관리 △선암사 재산관리 △기타 선암사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 등을 수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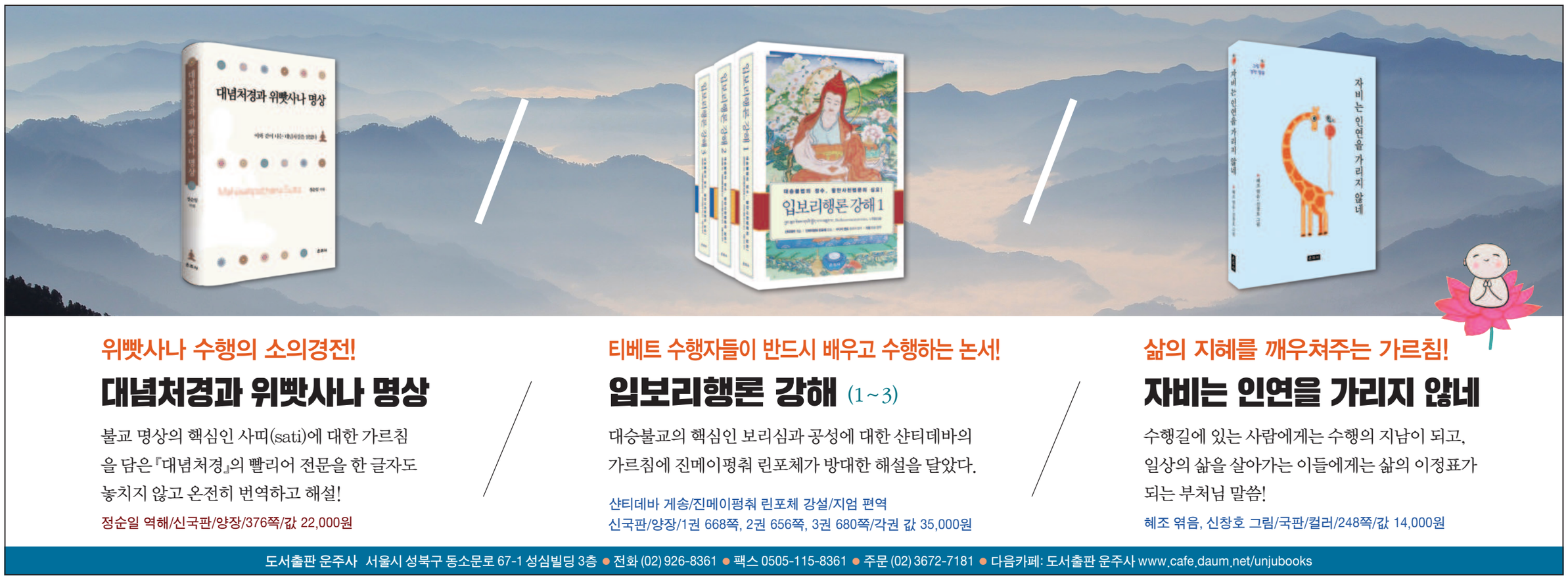
조계종이 종단 교구본사로서의 선암사의 정체성과 실체적 지위 강화를 위한 행정조치를 본격화함에 따라, 이 같은 노력이 선암사 소유권 논란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대법원이 1, 2심 판결의 파기환송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조계종 선암사의 실체와 실질적 지배 여부에 의문을 제기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태고종측은 선암사 문제와 관련해 별다른 공식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사태 추이를 지켜보는 상황이다. 태고종 총무원장 호명 스님은 "법적 분쟁은 어떤 결과가 나오든 양 종단 모두에게 상처이기에 대화로 풀길 바란다"며 대화와 화합을 통한 해결을 언급하는 등 다소 소극적인 태도를 견지해 오고 있다.

한편 선암사 소유권 논란은 지난해 대법원이 선암사 '차 체험관 철거 소송'에서 등기소유권자인 조계종 선암사의 실체에 문제를 제기하며 조계종 소유를 인정한 1, 2심 판결을 파기환송하면서 촉발됐다. 조계종은 즉각 대법원 판결에 문제를 제기하며 "이번 판결은 조계종 선암사의 적법한 권한 행사를 부정하고 오히려 1970년 창종한 태고종이 아무런 법적 권한 없이 선암사를 장기간 점유하고 있는 것을 합법화하는 길을 열어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결국 이번 사안은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재점화됐지만, 선암사의 등기상 소유권을 가진 조계종과 실질적인 점유를 행사해 온 태고종 간 해결해야 할 묵은 과제인만큼 이번 기회에 판가름이 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관련기사 2면〉



위빳사나 수행의 소의경전!
대념처경과 위빳사나 명상
불교 명상의 핵심인 사띠(sati)에 대한 가르침을 담은『대념처경』의 빨리어 전문을 한 글자도 놓치지 않고 온전히 번역하고 해설!
정순일 역해/신국판/양장/376쪽/값 22,000원

티베트 수행자들이 반드시 배우고 수행하는 논서!
입보리행론 강해 (1~3)
대승불교의 핵심인 보리심과 공성에 대한 샨티데바의 가르침에 진메이펑춰 린포체가 방대한 해설을 달았다.
샨티데바 게송/진메이펑춰 린포체 강설/지엄 편역
신국판/양장/1권 668쪽, 2권 656쪽, 3권 680쪽/각권 값 35,000원

삶의 지혜를 깨우쳐주는 가르침!
자비는 인연을 가리지 않네
수행길에 있는 사람에게는 수행의 지남이 되고,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삶의 이정표가 되는 부처님 말씀!
혜조 엮음, 신창호 그림/국판/컬러/248쪽/값 14,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 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인사안 만장일치 통과…승려복지 · 선거법 개정도

220차 중앙종회, 어떤 안건 처리됐나


조계종 중앙종회는 3월 23일 제220차 임시회를 열고 2020년 세입세출결산안과 인사안, 법개정안을 비롯한 18개 안건을 처리했다. 사진=박재완 기자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조계종 중앙종회는 3월 23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 전통예술공연장에서 제적의원 78명 중 70명이 참석한 가운데 220차 임시종회를 개원했다. 이날 종회는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지침을 준수한 가운데 이례적으로 국제회의장이 아닌 전통예술공연장에서 진행됐으며, 의원 전원은 발열체크를 거쳐 마스크를 착용한 채 본회의에 입장했다. 특히 처음으로 안건 상정에 앞서 입정의 시간을 가져 눈길을 끌었다. 수행납자의 마음으로 돌아가 의정활동에 충실히 임하고 종무를 살펴보고자 하는 취지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인사말에서 "올해는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이 종식되는 해가 되길 기대하며 의원 스님들께서도 수행정진의 원력으로 국가적 종단적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중앙종회의장 정문 스님도 개회사에서 "중앙종회의원 스님들이 머리를 맞대고 종단이 나아갈 길, 불교가 나아갈 길을 모색한다면 코로나19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임에도 반드시 활로가 열릴 것"이라며 "위법망구의 마음으로 중앙종회 본회의에 참여해 주신 위원스님들께 감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220차 임시회는 인사안과 종법 제개정의 건, 2020년 세입세출 결산의 건을 비롯한 18개 안건과 긴급상정된 1개 안건을 일괄 처리한 후 폐회했다.

◇호계원장 · 포교원장 등 인사안 처리

이날 종회에서는 4월 14일 임기만료되는 정관 · 암도 · 근일 스님의 후임으로, 만당 스님 외 5인 의원이 추천한 백양사 성오 스님을 만장일치 추천했다. 또 신임 호계원장에는 보광 스님이, 포교원장에는 범해 스님을 선출했다.

중앙종회는 3월 26일 임기만료된 호계원장 무상 스님의 후임에, 현민 스님 외 10인 의원 추천을 받은 보광 스님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보광 스님은 "호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감사드린다"며 "공명정대한 호계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많은 관심과 지원 요청드린다"고 인사를 전했다.

3월 14일 임기만료된 前 포교원장 지홍 스님의 후임에는 범해 스님이 선출됐다. 범해 스님은 총무원장 추천으로 포교원장 후보에 올랐으며 만장일치 동의를 받아 차기 포교원장에 확정됐다. 범해 스님은 "포교를 더욱 활성화하라는 종도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포교가 살아나야 종단의 생명력도 살아날 수 있다. 부처님법의 수승함을 믿고 자비를 실천하며 많은 이들을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적극적인 전법활동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또 중앙종회는 조계종 재심호계위원에 추천된 대원, 원명, 도신, 대오 스님과 초심호계의원에 추천된 양관, 법진 스님을 만장일치로 선출했으며, 종립학교관리위원에는 화평, 우하 스님이 선출됐다.

대종사 법계 특별전형 22인과 명사 법계 특별전형 7인 스님에 대한 동의의 건도 만장일치 통과됐다. 중앙종회는 이날 성조, 각수, 월성, 법정, 옹산, 법등, 혜창, 법성, 도진, 철형, 효경, 경선, 정여, 지안, 도법, 성오, 진공, 명공, 현고, 무착, 정원, 의정 스님 등 대종사 특별전형자 전원에 대해 만장일치 동의했다. 재희, 운달, 대웅, 일법, 도문, 영운, 보각 스님 등 명사 법계 특별전형자 7인에 대한 동의의 건도 만장일치 통과됐다. 대종사 · 명사는 법계법 제12조에 따라 원로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승려복지 · 선거법 등 제개정안 통과

이번 종회에서는 선암사 특별법 제정안 뿐 아니라 승려복지 재원 확보 방안을 확대하는 취지의 승려복지법 개정안과 선거법 개정안도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특히 승려복지법 개정을 통해 앞으로 기본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사미 · 사미니도 승려복지 혜택을 받게 됐을 뿐 아니라, 승려복지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승려복지기금으로 토지 · 건물 등을 매입 · 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목된다.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승려복지회는 승려복지기금을 기존 용도 외에도 △승려복지시설의 설립 및 운영 △승려복지 재원 확충을 위한 토지 및 건물 매입에 지출할 수 있다. 다만 이를 위해 승려복지회 의결과 총무원 종무회의 심의 · 의결 절차를 거치도록 명시했다. 이는 승려복지 재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종단에 대한 인식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적립된 승려복지기금을 단순히 예치 · 운영하는 것을 넘어 복지시설 건립 및 부동산 매입을 통한 수익 확대 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승려복지기금이 목적사업 외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일부 종회의원 스님들은 "승려복지기금은 본연의 목적사업을 위한 기금으로서 역할을 해야지 건물이나 토지 매입은 목적사업을 벗어난 일종의 투자라는 점에서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다수 종회의원 스님은 "승려복지를 위한 목적임을 특정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적다"며 "오히려 그동안 우리 종단이 시대변화에 대응하지 못해 사찰 재정이 소실되거나 재정 운영에 뒤처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금 지출의 목적을 승려복지 목적으로 특정하고 절차를 명확히 한다면 재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개정안은 승려복지기금의 수혜대상도 대폭 확대했다. 기본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사미 · 사미니 스님도 입원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승려복지 기본부담금 납부대상에서는 제외된다.

우봉 스님 외 4인이 발의한 선거법 개정안도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후보자 등록 기간은 22일에서 21일로, 이의신청 기간은 3일에서 5일로 변경된다.

한편 중앙종회의원 법일 스님 외 4인이 발의한 사찰부동산관리법 개정안은 교구본사와의 충분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 철회됐다.

◇눈길 끈 종책질의

220차 중앙종회 임시회에서는 출가자 감소추세에 따른 확대 방안을 비롯해 역량강화, 해외포교 활성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17건의 종책질의가 이어졌다. 이 중에서 해외포교 활성화를 위한 해외특별교구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정범 스님은 "2017년 해외특별교구 국내 설치 법안이 통과됐지만 아직 업무 일원화를 꾀할 해외특별교구 사무국 등 전담부서가 부재해 해외유학 및 수행승, 소임자로 파견된 수백명의 스님과 100여개 사찰에 대한 종단 지원이 어렵다"고 지적한 데 이어, 해외특별교구 사무처 설치를 위한 상황을 질의했다.

이에 총무부장 금곡 스님은 "해외특별교구 사무처 설치와 사무국 인력 확보를 신속히 완료하고 해외사찰 지원에 대한 종무행정 체계 개선과 해외포교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교구 사무국 운영과 종무행정이 안정화될 때까지 사무국 운영 지원과 종무인력 지원 및 협조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답했다.

◇후반기 특위 구성 결의

종헌개정 · 종법제개정특별위원회, 대한불교진흥원 관계개선 특위도 구성된다. 종법제개정특위는 총무분과위원회 제출 안건으로 종헌종법의 입법 미비사항에 대한 연구검토를 통해 종헌종법 체계를 바로잡기 위한 취지다. 특히 종도들의 권익향상을 위한 종헌종법 제개정안을 성안해 본회의에 제안할 방침이다. 종법제개정특위는 호산 스님을 위원장으로 13인 위원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위원 구성은 종책모임 대표 및 의장단에 위임키로 했다.

대한불교진흥원 관계개선 특위는 현재 종단과 관계가 소원해진 진흥원과의 상호 교류 및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동할 방침이다. 효림 스님을 위원장으로 진흥원과 인연이 있는 스님과 재가자 11인으로 구성된다. 활동 기간은 2022년 10월까지, 위원 구성은 의장단에 위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종회는 호법부에 해종행위자 징계절차의 집행을 촉구하기로 결의했다. 이는 213회 중앙종회 정기회에서 해종행위조사특위를 구성해 종단 및 종단 소임자에 대한 명예와 위상을 심각하게 훼손시킨 해종행위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결과, 216회 중앙종회 임시회에서 해당자에 대해 호법부에 징계절차를 요구키로 결의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중앙종회는 216회 임시회에서 결의한 해종행위자에 대한 호법부 징계를 조속한 시일 내 집행할 것을 촉구했다.

◇미얀마 민주화 지지성명 채택

조계종 중앙종회는 이날 미얀마 민주화 운동지 및 군부의 폭력진압 반대 촉구 성명을 채택했다. 중앙종회는 "미얀마 군부 쿠데타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시민들의 저항이 눈물겹다"며 "미얀마에 평화의 봄이 깃들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특히 "미얀마 국민이 군부의 탄압 속에서도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고 정진하기를 부처님 전에 간절히 기원한다"며 △미얀마 국민들을 향한 군부의 폭력 즉각 중단 △미얀마 국민들의 민주화 운동 적극지지 △미얀마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노력 요청 △미얀마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불교도들의 기도와 동참을 촉구했다.

◇정운 스님 징계안 철회

첫 안건으로 상정된 중앙종회의원 정운 스님 징계동의안은 당사자인 정운 스님이 신상발언을 통해 참회의사를 밝힌 데 따라, 최종 철회키로 했다. 정운 스님은 현직 중앙종회의원 신분으로 본인의 의정활동과 관련한 내용을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칼럼을 작성해 총무원장 제출로 징계안이 상정됐다.

정운 스님은 신상발언을 통해 "크나큰 구업을 지었다"고 참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스님은 "지난해 논란 이후 자숙과 참회의 기간을 가졌다"며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선처를 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불교닷컴, 해종언론 조치 해제 가결

조계종 중앙종회에 의해 해종언론으로 지정된 불교닷컴이 임시회 당일 의장단을 예방하고 참회의 뜻을 밝히며 해종언론 해제를 요청했다. 이에 중앙종회는 불교닷컴의 종단 출입금지 및 광고금지 조치에 대한 해제결의안을 긴급안건으로 상정했으며, 논의 결과 종단 비판 기사 및 동영상 삭제와 명예훼손 당사자에 대한 사과, 참회문 게재, 명예회복을 위한 노력 등 약속 이행을 전제로 해종언론 조치 해제를 가결했다. 또 해종행위를 지속할 경우 다시 해종언론으로 영구지정키로 했다.

그러나 갑작스레 상정된 안건인 만큼, 종회에서는 이에 대한 반대 여론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의원 스님들은 애초 중앙종회가 불교닷컴을 해종언론으로 지정하게 된 원인을 지적하며 "그동안 종단에 대한 무차별적인 비판기사로 종단 위상과 대사회적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논란을 야기한 불교닷컴 참회문 하나로 해제를 요청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성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갑작스레 논의가 시작돼 당황스럽다" "종단 차원의 조치였던 만큼 종도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청취해야 한다"는 등 지적도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종회가 충분한 논의없이 약속 이행을 전제로 해종언론 지정 해제를 가결함에 따라, 이에 대한 논란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귀추가 주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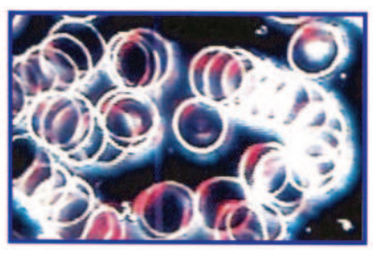
국민건강 · 인류건강을 위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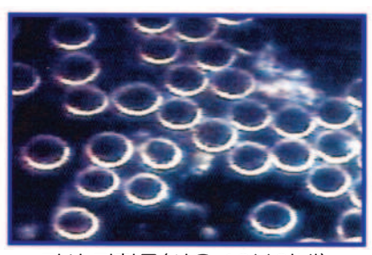
"비누로 손·얼굴 한번 씻었는데 피가 맑아지고 뇌파가 안정된다."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가가 나서서 국민건강, 인류건강을 위하여 적극 보호 지원 육성해야 되는것 아닌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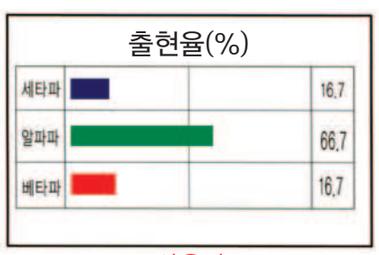
보약을 먹은 것도, 주사를 맞은 것도 아니고 BLOOD MATE 단 한번 쓰고, 20분도 채 안되어 "엉켜있던 적혈구가 정상 적혈구로, 불안정한 뇌파가 안정된다."

생혈액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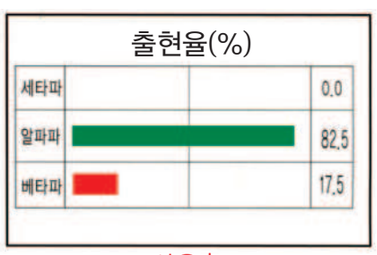

연전현상(사용전)


정상 적혈구(사용 10분이내)

뇌파 측정촬영



사용전



사용후

검버섯 제거 현상


사용전


사용 6개월 후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해 생기는 다리 쥐나는 것, 목, 어깨, 허리통증, 무릎관절 등은 피가 맑아져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면 자연치유되고 뇌파가 안정되어 정신이 맑아집니다.

항균 폐렴균 · 대장균 · 포도상구균 99.9% 정균감소는 폐렴균 99.9% 정균감소는 폐렴균에 의한 모든 폐렴질환을 예방할 것이며 대장균 99.9% 정균감소는 식중독, 배탈, 설사를 예방하고 포도상구균 99.9% 정균감소는 아토피, 검버섯, 무좀, 비듬, 사타구니 가려움증, 발뒤꿈치 각질 등 각종 피부질환 개선은 물론

때를 일부러 밀지 않고 비누거품으로 마사지만 해주면 깨끗이 세정되는 특징과 피부가 투명하고 매끄러우며 윤이 나므로 스킨, 로션을 바르지 않아도 피부보습효과가 뛰어납니다.

탈취 75%는 발냄새, 겨드랑이, 체취, 홀아비냄새, 노인냄새 제거.

피가 맑아지고 뇌파가 안정되는 게르마늄 허브비누

BLOOD MATE®

항균 99.9% 탈취 75% 음이온 126cc 원적외선 방사 90.2%

BLOOD MATE® 강비누:120g 2개 100,000원
BLOOD MATE® 순비누:120g 4개 100,000원
ORAL MATE® 치 약:120g 3개 63,000원

~~263,000원~~ ➡ SET 구매시 100,000원

◈ 혈액건강 ◈
◈ 두뇌건강 ◈
◈ 세포건강 ◈

세상에 이런 세정제를 보셨습니까?

㈜에이스 삼강 02)353-9692 , 010-2791-3696
농협 301-0238-2776-51 예금주 : ㈜에이스 삼강

재한 미얀마유학생들, 쿠데타 여파에 이중고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마얀마 외화송금 제한 조치에
학비 · 생계비 지원 중단 상황
장학생외에는 학업 지속 난항
"유학생 위한 긴급 지원 필요"

미얀마 쿠데타 여파로 한국에 거주하는 미얀마 유학생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인터넷 등 통신 차단으로 가족이나 친지와의 연락이 두절돼 불안과 두려움에 고통 받는 상황에서, 본국의 금융 마비 및 은행의 외화 송금 제한 조치로 학비 · 생활비 지원까지 끊기면서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에 쿠데타 상황으로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직면한 유학생들을 위해 한시적이라도 긴급지원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주한미얀마대사관에 따르면 현재 한국에서 공부 중인 미얀마 유학생은 4000명 가량으로 추산된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코로나 사태로 올해에는 본국에 돌아가지 않고 한국에 머물렀던 유학생이 상당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쿠데타 발생 후 군부가 현지 은행 등 금융권의 해외 외화송금을 제한하면서, 한국에 있는 미얀마유학생들의 학비 · 생활비 조달에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미얀마유학생들과 폭넓은 교류를 이어온 최재희 양곤대 박사과정 학생은 "장학금 지원을 받는 학생들의 상황은 조금 낫지만, 가족들의 지원을 받아 공부를 하던 학생들은 사실상 학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일부 친구들은 학비나 생활비 마련을 위해 학업 중단까지 염두에 두고 아르바이트나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실제로 현재 미얀마 금융은 쿠데타 이후 은행들의 영업 중단이 이어지면서 사실상 마비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쿠데타로 인한 혼란이 극단으로 치달으면서 '시민불복종운동' 등 군부에 반대하는 파업이 은행권에도 급격히 확산되고 있으며, 현금 인출기나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운영을 이어가던 일부 은행들도 군부의 인터넷 사용금지 조치로 정상 가동이 불가능한 상태다.



매주 토요일 하남 상불사에서 진행되는 미얀마 평화 발원 기도회에 참석한 미얀마 양곤외대 에에띤 교수와 유학생들.

새 학기가 시작됐지만 학비와 생활비를 송금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적지 않은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미얀마유학생 중에서는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통 · 번역 아르바이트를 병행해 생계비를 마련해 온 경우가 적지 않은데, 쿠데타 이후 통번역 업무 자체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생계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기에 군부가 인터넷 등 통신을 끊으면서 본국에 있는 가족, 친지들과의 연락이 두절돼 마음을 졸이고, 동시에 생활비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그나마 계명대의 경우 이 같은 상황을 인지하고 6개월간 미얀마 유학생을 위한 생활비를 지원할 예정이지만, 전체 유학생에 비하면 극히 일부다.

에에띤 양곤외대 한국어과 교수에 따르면 서울 지역에서 유학중인 미얀마 유학생들은 약 200여명. 상당수가 에에띤 교수의 제자들이다. 현재 서울대 한국어교육 박사과정 중인 그는 "쿠데타 이후 전반적으로 학생들의 불안감과 슬픔, 무력감이 상당히 큰 상황이지만 한국과 국제사회에 미얀마 상황을 알리기 위해 행동에 나서는 학생들도 많다"며 "그러나 현실적으로 가족과 연락이 끊긴 데 대한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크고 더 이상 학비 및 생활비 지원이 불가능해 지면서 현실적으로 직면한 문제들이 어려움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에에띤 교수는 "생활비라도 마련하기 위해 일을 찾으려는 학생들도 있지만 한국 상황 역시 코로나로 인해 좋지 않아 쉽지 않다"며 "쿠데타가 장기화되면 학생들의 상황이 더 심각해질 것으로 보여 이들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일부 개신교계 단체나 교회에서 어려움에 처한 미얀마유학생들에게 개종을 전제로 장학금 지원을 제안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에 위치한 미얀마전법선원의 한신도는 "쿠데타 이후 유학생들의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대학교 인근에 위치한 교회가 장학금 지원을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교회에 나올 것을 권유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며 "미얀마가 불교국가인만큼 유학생들 또한 독실한 불자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생계 때문에 개종하게 된다면 너무 안타까운 일"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미얀마 현지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한 한국불교계는 잇따라 미얀마 민주화 운동 지지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이를 지원하기 위한 기금 모연에도 나서 주목된다. 조계종 공익법인 아름다운동행이 대표적이다. 아름다운동행은 6월 30일까지 '미얀마에 자비와 평화가 오기를' 이라는 슬로건으로 모금을 진행한다. 모연된 기금은 미얀마 민주주의 회복과 군부 쿠데타의 대량학살로 희생된 미얀마 시민들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며, 전달방법에 대해서는 논의가 진행 중이다.

최근 국내 한 미얀마민주화 관련 단체가 태국을 통해 본국으로 지원금을 송금하려다 군부측의 감시망에 포착돼 무산된 사례가 발생하는 등 우려도 적지 않다. 이에 따라 실질적인 미얀마 본국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위기에 처한 국내 미얀마유학생들에 대한 지원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안정적 운영기반 · 체계적 관리에 만전"

탄자니아 보리가람농업기술대
초대 운영위원장에 덕문 스님


초대 운영위원장 덕문 스님

아프리카 최초의 불교종립학교인 탄자니아 보리가람농업기술대학의 체계적운영으로 발전을 이끌 운영위원회가 출범했다. 초대 운영위원장으로 추대된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은 "한국불교 위상을 높이기 위해 후원과 운영시스템 발전을 일구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덕문 스님은 3월 24일 아름다운동행이 화엄사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보리가람농업기술대학의 새로운 운영위원회 출범을 선언했다.

특히 덕문 스님은 "지구촌 모든 사람들은 공업중생인만큼, 자비심을 같이 일으켜 더불어 다함께 잘살아야 한다"며 "그런 의미에서 부처님의 자비사상을 지구촌 반대편 나라에 전하는 것은 한국불교의 위상을 높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운영위원회가 단순 후원을 넘어, 후원과 운영시스템의 체계화를 꾀하고 꾸준한 관리를 이어갈 것을 약속했다.

운영위원회는 덕문 스님을 위원장으로, 고문과 부위원장, 간사를 비롯한 운영위원 120여 명으로 구성됐다. 특히 종단 주요 소임자 스님들과 교구본사 주지, 종회의원 스님, 재가 불자들이 대거 참여해 눈길을 끈다.

덕문 스님은 "운영위원회는 향후 대학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운영과 예결산 검토, 발전기금 조성, CMS 정기후원자 모집 등 안정적인 운영기반을 마련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스님은 "현재까지 배출한 120명의 졸업생을 대상으로 지속적 모니터링, 한국 견학과 유학 등을 주선하는 등 사회적 농업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통해 탄자니아 국민들이 좋은 농업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운영위원회가 수행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운영위원회는 매년 후원자의 밤, 현장순례, 유학 · 장학생 후원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보리가람농업기술대학은 조계종 공익기부법인 아름다운동행이 선진 농업기술을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전수하고 그들의 가난 극복을 돕기 위해 설립한 농업전문대학으로, 지난 2016년 개교해 2019년 1회, 2020년 2회 졸업생 등 120여 명을 배출했다. 특히 학비와 기숙사비를 무료로 운영하는 3년제 대학으로, 대학 진학률이 낮은 현지 여건을 감안하면 지역 명문대학 가운데 하나로 자리잡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군불교 총본산 홍제사 불사 본격화

공사업체 선정…4월 중순 시작

군불교 총본산 육해공군본부 계룡대 호국 홍제사 불사가 본격화된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교구장 선묵혜자)는 3월 24일 서울 용산에 위치한 군종특별교구 회의실에서 건축시공사 지오건설과 감리사 어스 건축사사무소와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체결식에는 선묵혜자 스님, 부교구장 성진 스님, 종책실장 보운 법사, 지오건설 김준형 상무, 어스 건축사사무소 신정훈 대표 등이 참석했다.

지오건설은 건축, 토목,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 분야 건설을, 어스 건축사사무소는 불사의 감리를 총괄하게 된다.

홍제사 불사는 착공 준비 과정을 거친 뒤 4월 중순 경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혜자 스님은 "군불교 총본산을 세우는 부처님 불사인 만큼 종단의 지원과 교구차원의 모연을 통해 원만하게 불사가 마무리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장 혜자 스님(사진 왼쪽서 세 번째)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홍제사 조감도를 들고 있다.

(02)797-7266 노덕현 기자

민추본, '평화통일발원문' 공모전 개최

4월 18일까지 출품 접수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월우, 이하 민추본)가 '평화통일발원문'을 공모한다. 이를 통해 부처님의 자비정신을 바탕으로 한 남북의 평화와 통일, 민족화해의 서원을 모아낸다는 취지다.

공모전은 3월 22일부터 4월 18일까지 진행된다. 기도문 또는 발원문은 자유형식이며, 남북 간 평화와 통일, 화합과 협력을 서원하고 공존 · 상생의 메시지, 혹은 평화와 화합을 위한 남북불교도의 노력과 실천의지를 담은 내용이면 된다. 출품작은 이메일(민추본 홈페이지 참조)로 접수 가능하다.

내부 선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입상작을 선정하며, 4.27판문점선언 3주년을 하루 앞 둔 4월 26일 민추본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발표된다.

시상은 총무원장상 1명 상금 100만원 및 상패, 민족공동체추진본부장상 1명 상금 50만원 및 상장, 가작은 총 3명이며 상금 각 20만원 및 상장이 수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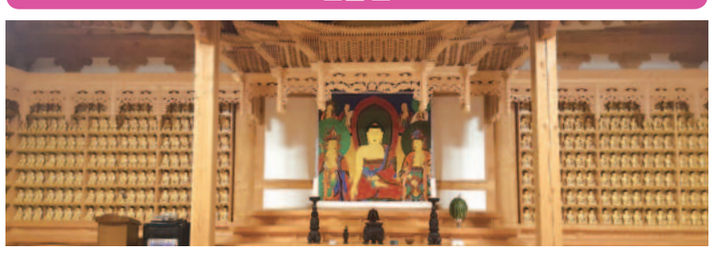
민추본은 이번 공모에서 평화통일발원문이 선정될 경우 이를 인쇄물이나 스마트폰용 모바일 페이지로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다. 02)720-0531 송지희 기자

보련기획 BORYEON
장엄불사 보련기획이 하면 가치가 다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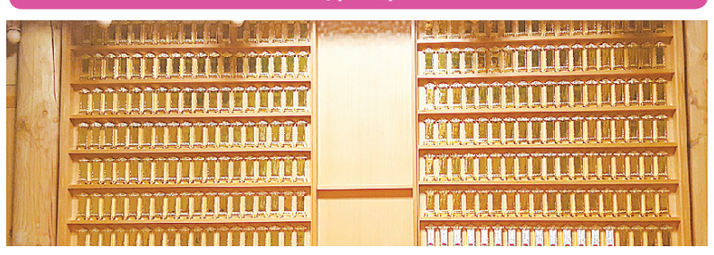
부처님오신날 도량장엄등 설치 • 유지관리


연등 자동승강장치


고정식 연등설치


천불전


인 등


위 패


법당용 연등

공단연등


아크릴한지등

부처님오신날 장엄등


전선, 전구등 공사자재


www.boryeon.com 010-5381-9355 / 031)526-2201~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일산리 549-1

꽃피는 봄 되니 상월결사도 '기지개'

상월결사 계승하는 사찰 정진 모임 확산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찾아오는 불자들을 기다리는 불교에서 저잣거리에서 수행하며 찾아가는 불교로의 변화를 선언한 상월결사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다. 서울 봉은사에서 4월부터 '상월 템플스테이'가 진행되고 수국사에서는 청년활동조직인 '상월청년회'가 구성되는 등 본격적인 정진 확산을 기대케 한다.

서울 봉은사는 4월 16일부터 매주 금요일 저녁부터 일요일 아침까지 2박 3일간 상월선원 템플스테이를 진행한다. 상월선원 템플스테이는 지난 2019년 11월 11일 위례신도시에서 진행된 상월선원 천막결사 정신을 잇고 이를 대중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당시 상월결사 회주 자승 스님(조계종 前총무원장)을 비롯한 9명 스님은 한겨울 온기 없는 천막 안에서 매일 16시간 이상을 정진했다. 엄격한 청규대로 90일 내내 하루 한 끼 식사에 묵언정진 했고, 삭발과 목욕조차 않겠다는 결연한 다짐으로 촌음을 아껴가며 수행에 매진했었다.

상월결사 정신을 이어받아 진행되는 상월선원 템플스테이는 매일 6시간씩 정진하면서 일체 말하지 않고 하루 한 끼 식사와 참선 명상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으로 이뤄진다. 정진 기간 내내 사찰을 벗어나지 않고 경내에 마련된 각자의 텐트에서 생활하며, 핸드폰 등 전자기기를 일체 사용할 수 없다. 상월선원 템플스테이 희망자는 누구나 동참가능하며 4월 1일부터 봉은사 템플스테이 홈페이지(temple.bongeunsa.org)로 선착순 접수를 진행한다.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은 "상월선원이 건립되고 시민선방이 운영될 때 활용될



지난해 11월 고창 선운사서 진행된 본말사 걷기순례서 상월결사 회주 자승 스님을 필두로 스님들이 순례를 하고 있는 모습.

수국사 20일 상월청년회 창립
봉은사 '상월템플스테이' 계획
4월 7일 해인사 상월걷기순례
청년 · 시민 참여 확대 계획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보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02)3218~4826

서울 수국사는 3월 20일 수국사에서 수미산 상월청년회를 창립했다. 상월결사 회주 자승 스님을 주축으로 최근 구성된 불자배가운동조직 수미산원정대의 연장선으로 30여 청년들이 상월선원 천막결사 정신을 계승하고 불자 배가운동에 나서고자 구성한 조직이다.

상월선원 천막결사 당시 현장에 상주하며 정진 스님들을 뒷바라지한 수국사 묵언템플 지도법사 효연 스님이 상월청년회 지도법사로 나서 구성을 유도했고, 30여 명의 대학생들이 청년회 구성에 호응했다. 상월청년회 준비 소식에 동국대 학인스님들의 결사체인 칠불회 스님 13명도 대학생들의 지도법사로 나서기로 하며 힘을 보탰다.

상월청년회는 이날 창립법회를 시작으로 첫째, 셋째 토요일마다 정기모임을 갖는다. 묵언 · 걷기 명상, 1박2일 새벽기도를 비롯해 자원봉사 등 수행과 실천을 함께 하기로 했다. (02)356-2001

지난해 11월 28일 본말사 상월걷기순례로 상월결사 정진의 전국사찰 전개도 동안거 기간을 지난 4월부터 재개된다.

합천 해인사(주지 현응)는 4월 7일 대장경테마파크에서 출발해 소리길을 따라 해인사와 가야산 산내암자, 그리고 해인사 장경각까지 종주하는 본말사 상월걷기순례를 진행한다. 고창 선운사에 이은 두 번째 행사로, 상월결사에 참여하는 스님들과 해인사 대중이 대거 참여할 계획이다. 선운사 상월걷기순례 때처럼 스님들은 대가사를 착용하고, 108염주를 지참, 코로나 극복을 염원하는 묵언 걷기에 나선다.

의정부 정혜사에서는 이미 3월 14일 백석천에서 중랑천으로 이어지는 10km 구간에서 상월걷기 순례를 진행했으며,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일요일에 걷기순례를 진행할 계획이다. 본사 차원에서는 남양주 봉선사와 동안거 이후 참여의사를 밝힌 해남 대흥사 등도 순례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월결사 총도감 호산 스님은 "불교중흥을 위해서는 건물불사보다 인간불사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불교 사상을 담은 현 시대에 맞는 수행법을 현대인들에게 전해야 한다"며 "청년, 시민들이 참여하는 상월결사로, 결사가 보다 대중화되는데 이바지 하겠다"고 말했다.

"대행선, 도량탑에 담은 시도 높게 평가"

대행선연구원 계절발표회서
도윤수 교수 '도량탑' 재조명

3월 20일 안양본원서 진행
한마음선원 유튜브 생중계

탑은 사찰을 상징하는 독특한 조형물 가운데 하나로 때에 따라서는 불교 자체를 상징하는 아이콘으로 인식된다. 또한 부처님 사리를 봉안한데 이어 부처님 자체를 대신하는 위상을 갖게 된 탑은 사찰을 상징하는 조형물이자 신앙의 대상이기도 이다. 이런 전통탑과 대행선으로 규정되는 한마음선원 도량탑의 의미를 재조명하는 학술발표회가 열렸다.

한마음선원 부설 대행선연구원(원장 권탄준)은 3월 20일 오후 1시 30분 한마음선원 안양본원에서 제 8회 대행선연구원 계절발표회를 개최했다.

제 1발표 '밀교적 시각에서 바라본 대행 선사의 법어'와 제 2발표 '한국불교의 사상적 전통과 한마음선원 석탑의 조형의미'를 주제로 진행된 이날 발표회에서는 처음으로 한마음선원의 도량탑과 우주탑의 의미가 조명돼 눈길을 끌었다.



한마음선원에 조성된 도량탑 전경.

도윤수 인하대 건축학과 교수는 '한국불교의 사상적 전통과 한마음선원 석탑의 조형의미'를 주제로 한 제 2발표에서 한마음선원 석탑이 현대불교미술의 새로운 양식을 정립하는 상징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한마음선원 도량탑은 이미 제작자인 김기상 아리건설 대표의 논문을 통해 '고구려 다각다층탑과 고려 팔각원당형 승탑을 모티브로 오방신앙과 이를 통한 만다라 구현을 상징함이 정의된 바 있다.

도 교수는 "현대의 언어로 대행선을 펼쳐 포교에서 큰 발자취를 남긴 대행스님처럼, 과거의 형식과 양식이 아닌 현대적 형식과 양식을 창출하고자 한 부분은 그 배경사상과 일통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도 교수는 "오랜 역사를 통해 사상적 완성도가 극히 높아진 현대불교에서 새로운 사상을 담은 탑을 건립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고 어려운 작업이다. 그런 측면에서 한마음선원의 사상을 도량탑이라는 상징물에 담아내려 한 시도는 높이 평가할 수 있다"며 "앞으로 불탑, 승탑 형식의 결합과 새 탑신구성법에 대한 논리 보강 등의 점진것 개선을 거쳐 한마음선원의 전형탑으로 결실을 맺기를 바란다"고 기대를 표했다.

이날 재단이사장 혜수 스님은 환영사를 통해 "선원 도량의 법당과 도량탑, 큰 스님 동상이 하나로 어우러져 일체 생명, 일체 제불이 한마음이며, 바로 자신 마음 속의 탑"이라며 "정성을 다해 도량탑 불사를 하던 분들이 생각난다. 여러분들의 노력이 있어 현재의 선원이 있기에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발표회는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마스크 착용과 투명가림막 설치, 3m이상 거리두기를 유지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한마음선원 유튜브 채널에서도 생중계 됐다. 이날 생중계에는 약 200여 불자들이 참여해 온라인 상에서 질의 응답을 하는 시간도 가졌다.

노덕현 기자

갑사 대웅전 · 대곡사 범종루 보물 지정

문화재청 23일 지정 공고
거조암 영산전, 거조사로

충남도 유형문화재 공주 갑사 대웅전과 경북도 유형문화재 의성 대곡사 범종루가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승격 · 지정됐다.

문화재청(청장 김현모)은 "공주 갑사 대웅전과 의성 대곡사 범종루, 순천 팔마비 등 3건의 문화재를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했다"고 3월 23일 밝혔다. 또한, 국보 '영천 은해사 거조암 영산전'의 명칭을 원래 명칭인 '영천 거조사 영산전'으로 변경했다.

공주 갑사 대웅전은 정유재란 이후 갑사에서 가장 먼저 재건된 건축물 중 하



보물로 지정된 갑사 대웅전 전경.

나로 건립연대는 17세기 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문화재청은 "갑사 대웅전은 17세기에 조성된 다포계 맞배집의 전형적인 형식을 공유하면서 조선 후기의 건축적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의성 대곡사 범종루는 〈대곡사 창건 전후 사적기〉의 기록을 통해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의 병화로 전소돼 17세기 중 · 후반인 1644년에서 1683년 사이에 중창됐다고 전해진다.

문화재청은 "대곡사 범종루는 의성지역의 불교사찰이 부흥하기 시작한 17세기의 양식적 변화를 잘 간직하고 있는 문화유산으로서 누각 건축의 변천과정을 살필 수 있는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영천 은해사 거조암 영산전'은 '영천 거조사 영산전'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거조암은 1912년 은해사의 말사가 되면서 바뀐 이름으로 원래 명칭은 거조사였다. 문화재청은 명칭 변경된 국보 '영천 거조사 영산전'의 안내문 개선과 홍보를 사찰과 지방자체단체와 협의해 개선할 계획이다.

신성민 기자

사회적 경제 스님 연수교육 시작

불교사회적경제지원센터 4월 21~23일 실시

사람과사회적경제 불교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4월 21일부터 23일까지 '사회적경제, 불교와 만나다'를 주제로 조계종 스님들을 대상으로 한 연수교육을 진행한다. 2014년부터 교육원 지원으로 이뤄지고 있는 이번 교육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스님들의 인식전환을 통해 창업 확산과 사찰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실시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지난해보다 더욱 풍부하고 깊이 있는 내용으로 편성됐다. 스님들이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며 지역 내 사찰의 기여도를 높이고 포교에 대한 대안도 고민해보는 자리로 마련된다.

연수교육은 4월 21일부터 4월 23일까지 매일 5시간씩 서울 종로구 창신동 종로여가 등에서 온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전개된다. 관심 있는 스님들은 사람과사회적경제로 문의해 이메일(human.org@gmail.com)로 4월 20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노덕현 기자

사찰 맞춤형 이동식 전통하우스

전통성 경제성 佛事는 내구성 효율성

시대에 맞는 신소재, 신기술, 신공법으로 무장한 광명이 佛心으로 채워 드립니다.

요사채, 창고, 삼성각, 기도실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해 보세요.(컨테이너처럼 간편히 설치)
공간이 바뀌면 사찰내 환경이 바뀝니다.

특허제10-1957831호
특허제10-1957826호
디자인등록 제30-0599196호

광명 문의 전화 H·P 010-3401-5633 TEL 041)852-5163



역삼 Wedding

불자님의 소중한 인연
아름답게 이루어 드립니다

법조계·의사·약사·재력가·사업가·공무원·교수·회사원 등



김계숙 원장

27년 전통 · 늦은 초혼 전문
책임 있는 컨설팅 해드립니다.

◈1:1 집중관리 ◈성사위주
◈신뢰·정확한 정보 ◈성실상담

대표 02-555-5528 H·P 010-5207-9045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51 (역삼동 642-19) 역삼하이츠빌딩 15층 11호 (2호선 역삼역 5번 출구 첫 번째 건물)

온·오프 병행, 5060 랜선기부 잠재력 크다

[기 획]
포스트코로나 '랜선 기부'

① 코로나로 반토막 불교기부
② 랜선기부 '플랫폼' 어디에?
③ 랜선 '디지털 에이징' 뜬다
④ 불교 랜선기부 롤모델은?
⑤ 포스트코로나 기부문화 미래는?

코로나 시기 불교계 기부, 후원이 50% 이하로 감소했다. 코로나 시기 기부, 후원 감소는 대부분이 대면접촉 방식의 기부 모연에서 일어난 것으로 이는 온라인과 모바일 기부의 확대, 즉 랜선 기부의 필요성을 알리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에게 불교 기부문화의 미래와 모바일, 인터넷 랜선 기부 활성화 방안을 들어보았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포스트코로나 랜선기부의 진단을 위해 비대면 화상회의 프로그램인 줌을 활용하여, 불교계 대표공익법인 아름다운 동행의 상임이사 일화 스님(사진 왼쪽 첫 번째)과 중앙승가대 포교사회학과 김응철 교수(사진 왼쪽 두 번째), 김재춘 가치혼합경영연구소 소장을 각기 인터뷰 하였다.

Q1 백신 접종 이후 코로나 종식에 대한 사회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언택트 방식의 다양한 삶의 변화는 시대변화에 따라 같이 자리 잡을 것이라는 진단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랜선 기부 또한 코로나 이후에도 하나의 조류로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는가.

김응철 : 기존에도 ARS나 자동이체 방식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랜선 기부는 그런 방식에서 조금 더 나아간 것이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통해서 기부를 하는 방식은 기존 기부 방식을 대체할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새 기부문화의 확산 시발점이 되고 있고 이런 물결이 더 커질 것으로 본다. 랜선 기부는 5060은 아직 익숙지 않지만 2030은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경향이 있다. 사이버머니, SNS 활동 증가 등에서 기부문화는 계속 확산 될 것으로 보인다.


"ARS나 CMS 정착처럼 모바일 기부도 확대될 것"
스님 교육 담당하는 중앙승가대 포교사회학과 김응철 교수

일화 스님 : 2020년의 모금액을 보면 의외로 기부모연이 잘 된 부분도 있다. 이는 많은 단체들이 전통적인 대면 방식 모금과 달리 비대면으로 모금활동의 역량을 키웠고, 여기에 시민들의 위기의식이 더해지며 기부 참여가 늘어났던 것으로 보인다. 모금 활동을 진행하는 비영리 단체들은 버추얼 방식, 디지털 방식, 랜선 방식 등 명칭이 조금씩 다를 뿐 비대면 방식을 계속 도입하고 있고 그 영향은 가속화 될 것이다.

김재춘 : 코로나 때문에 랜선 기부가 확산된 것은 아니다. 이 전부터 그 흐름은 확연했다. 다만 종교계의 반응은 더뎠다. 기도, 법회 등과 기부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명상 요가 등도 최근에는 온라인 수강이 늘고 있고 기도, 법회 등의 온라인화가 계속 된다면 종교계 기부문화도 비대면 방식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토회의 경우 온라인 법회를 병행한지 10년이 넘었고, 전 세계에서 함께 온라인으로 법회에 참여한다. 대면과 비대면이 함께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랜선 기부는 계속 유효하다.

Q2 정보통신부 등에서 펴낸 자료를 보면, 고령층의 모바일, 인터넷 접근성이 매우 떨어진다. 고령층이 주요 신도층을 이루고 있는 불교계는 랜선 기부 활성화가 요원한 상황이다. 불교 랜선 기부문화 정착을 위한 과제는?

김응철 : 본인도 카카오톡으로 선물을 받았는데, 어떻게 써야 할지를 몰랐다. 궁금해서 상대방한테 전화를 해서 사용법을 물어봤다. 익숙해지니 이만큼 편한 선물주고 받기가 없더라. 사실 비대면 방식의 다양한 기술은 무관심하다 보니 사용 안 하는 경향이 있다. 사용법 인지를 시킨다면 중장년층에서도 스마트폰을 활용한 기부가 이뤄지지 않을까.

일화 스님 : 아름다운동행도 주요후원자들이 고령층이고 이분들은 모바일, 인터넷 접근성이 많이 떨어진다. 그래서 오프라인 모연 기회 때 모바일도 함께 교육하고, 홍보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 최근에는 팔만사천결사 온오프라인 부처님 카드를 만들었는데, 오프라인으로 부처님카드를 발송하고, 그 뒤에 QR코드를 넣어 모바일 후원가입이 되도록 유도하고 있다. 스마트폰에는 모바일 기부 배경을 넣어드리고 있다.

김재춘 : 고령인 분들이 IT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시는 건 맞지만, 오히려 그것을 체험하고 숙달된 분들은 충성도가 높다. 예를 들어 유튜브의 경우 10대 시청률이 높지만, 60대 시청율도 2위를 기록할 정도다.

모바일을 중심으로 한 IT기술은 점점 고령층도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발달되고 있다. 여기에 동년배들 사이의 소통, 전파성을 보면 젊은 층에 비해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 불교계에서 적극적으로 스마트폰 콘텐츠나 기부, 법문 등 교육을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흐름 속에서 불교계에서 불교온라인콘텐츠진흥원과 같은 사찰과 단체를 지원하는 온라인 콘텐츠 교육 및 개발기관이 없는 점이 안타깝다.


"온라인 콘텐츠 진흥원 전문 조직에 자원을"
아름다운가게 기획 공익활동 '가치혼합경영연구소' 김재춘 소장

Q3 디지털문해, 디지털에이징 등 고령층에 대한 모바일, 인터넷 접근성 향상 교육이 불교계에서 조금씩 이뤄지고 있다. 랜선 기부 문화에 대한 홍보, 교육은 어떻게 이뤄질 것이라 보는가.

일화 스님 : 고령층은 다양한 채널이 있더라도 익숙한 채널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우편과 소식지, 연차보고서 등의 전통적인 방법을 먼저 활용해 차츰 온라인으로 유입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김재춘 : 정토회의 경우가 좋은 사례다. 정토회도 처음에 온라인 법회 등을 한다고 했을 때 직접 스님을 못 만나는 것에 대한 성토가 많았다. 10년 가량이 흐르니 지금은 노보살님도 영상으로 보고 즉문즉설을 본다. 물론 이 부분이 사람이 느끼는 감성적인 부분을 모두 충족시키진 못한다. 하지만 멀리 본다면 기술개발 부분도 주목해야 한다. 현재 홀로그램과 냄새를 전송하는 기술 등도 개발되고 있다. ARS만 하더라도 먼저 도입한 곳들이 이른바 흥했다. QR기부도 그렇고, 모바일 기부도 그렇다.

김응철 : 한번은 버스를 타고 가는데 60세가 넘은 어르신이 교회 신도들 명단을 보면서 클릭해 바로 통화하고 결과를 메모하는 것을 보았다.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데서 놀란 것 보다, 저걸 어디에서 가르쳐 줬을까, 저렇게 하는 이른바 '미션'을 어디서 줬을까 생각해보고 놀랐다.

사찰을 비롯한 불교계서 랜선 기부를 비롯해 디지털 교육만 하고 끝내서는 안 된다. 신도들의 온라인 소통 참여와 소통, 소임별 동참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알려준다면 누구나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디지털 접근성이 늘게 된다.

Q4 불교계에서도 공익법인 아름다운동행처럼 큰 기부처의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모바일, 인터넷 기부를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영세한 곳들은 아직도 랜선 기부는 엄두도 못내는 상황이다.

김응철 : 아름다운동행이 플랫폼 기능을 확대하거나 본사와 말사를 아우르는 지역단위 기부플랫폼을 구축하는 방안이 있다. 요즘에는 직접 기부를 받을 수 있게 바뀌었고, 공동모금의 지정기부를 활용하면 활성화 되리라 본다.

김재춘 : 계속 이야기하게 되지만, 모금, 기부활성화를 위해서는 전문가 집단이 필요하다. 전문가 집단이 다른 게 아니다. 그것으로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이다. 이들이 있기 위해서는 기부생태계가 형성되어야 한다. 기독교의 경우 '미션펀드'라는 곳이 있다. 모금을 대행해주고 수수료를 받는다. 캐치프레이즈도 재밌다. '생활비 사역비 걱정없이 사역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다.

종교계에서 저래도 되나? 싶기도 하겠지만, 저런 조직이 이른바 전문조직이다. 가령 자선바자회를 예로 들어보자. 코로나로 인해 바자회가 힘들어졌다. 저런 조직들은 발빠르게 온라인 플랫폼을 개발했다. 신도들이 온라인으로 구매하고 택배로 바자회 물품을 받는다. 스타트업이라도 좋으니 젊은 사람들이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풍토부터 불교계에서 조성해줬으면 한다.

Q5 랜선 기부는 영상을 비롯한 미디어를 활용한 기부 동기부여와 기부내역 등의 점검, 챌린지, 릴레이 방식 등 다양한 장점이 있다. 이런 랜선 기부가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포교에도 활용가능하지 않을까.

일화 스님 : 하루에도 수천 개씩 올라오는 온라인 모금 상황에서 이른바 모금창구가 살아남는 방법, 기부가 꾸준히 이어지게 하는 방법은 결국 동참하는 이들이 가치를 공유하는 일일 것이다. 불교로 본다면 불교가 지닌 자비 나눔의 가치를 먼저 불자들을 기반으로 차근차근 확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일회성으로 한 번에 열정적으로 타오르는 기부보다, 꾸준하면서 정말 어려운 이웃을 계속 도울 수 있는 그런 기부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젊은 층에 대한 포교와 전법도 마찬가지다. 시대변화를 잘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되, 이들이 혹한 마음에 기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을 돌아보고 나눔에 동참하도록 동기부여를 하는 것을 유도하도록 고민하겠다.


"일회성 기부보다 공감확대 온·오프 기부로"
불교대표 공익법인 아름다운동행 상임이사 일화 스님

김응철 : 위에 고령층이 디지털 교육 이후에 활동 미션의 중요성을 설명했지만 젊은이들도 기부와 같이 호감을 갖고 동참할 수 있는 연계 프로그램이 많이 나와야 한다. 가령 북한산 지킴이 활동을 본다면 직접 활동도 하고, 영상으로 소개도 하며, 지킴이 기부도 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사찰과 불교계가 랜선 기부 활성화를 고민한다면 단순히 온라인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그걸 계기로 오프라인에서도 함께 활동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야 할듯하다.

김재춘 : 랜선기부는 장점이 많다. 실제 기부 모연에서 대면으로 요청을 해도, 많은 분들이 홈페이지에서 정보를 취득하고, 심지어 비교까지 하고 기부를 하신다. 바꿔 말하면 그만큼 대면보다 이성적인 정보전달량이 많다는 점이다. 관건은 이러한 장점을 잘 살리는 이른바 설계자가 있어야 한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불교계에서 비대면 방식을 활용하는 것을 보고 가능성을 발견했다. 시대 흐름인 랜선 문화에서 스님들이 관심을 갖고 교육을 계속 받으셨으면 한다. 이와 함께 위에 말한 이른바 전문조직 지원에도 불교계가 꾸준히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

우주의 신비가 호흡에 있다 - 호흡의 비밀을 풀다
만트라 염불선치료 명상 과학 센타
제6차크라 젠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오전 11시

4차 산업혁명과 AI 인공지능 시대에 미래의 대체의학인 젠에너지체(붓다의 의성신 · 금강신)를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수 행 : 고타마 싯다르타(석가모니)부처님의 호흡법을 발견, 전수함. (아나빠나사띠숫타)
■ 부처님말씀 (아나빠나사띠숫타) : 1.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을 통한 삼매을 닦고 많이 공부지으면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2. 들숨날숨을 통한 알아차림에 대한 삼매을 닦으면 – 몸도 피로하지 않았고 눈도 피로하지 않았고 나의 마음도 번뇌로부터 해탈하였다.
3. 호흡의 전과정(길고, 짧고, 거칠고, 미세한)을 온몸으로 경험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리라.
4. 맛지마니까야 : 평정한 마음과 분명한 알아차림과 육신의 행복을 느끼며 머무른다.
■ 특 징 : 제 6차크라(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 (젠에너지체 – 행주좌와어묵동정)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호흡 선정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구전심수) / 면접 상담 후 결정 ■ 등록번호 : 138-50-00260
■ 문 의 : ☎ 010-5282-7292 (젠에너지 치료 예약 접수)

제6차크라 젠에너지 치료 명상가 처명선광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수료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재학중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전)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후원계좌 : 국민은행 (371101-04-120586 박성호)

과학적인 증거
(ㄱ) 호흡의 물리가 터지다 = 제6차크라 젠에너지체
(ㄴ) 제6차크라 열리기 전,후 비교사진은 페이스북에서 'Sung Ho Park' 처명선광 검색
(ㄷ) 구글에서 신희섭(기초과학연구원단장, (전)IBS 1호 연구단장, (전)KIST 뇌과학 연구소장) 구글이미지로 제6차크라가 열려있는 것을 확인 가능
*붓다의 호흡법 : 방법을 알고 최소 1일 10시간씩 3년이상 수련 필요

붓다의 호흡법 연구소(소장:처명)
유튜브에서 '처명선광' 검색
듣기만해도 치료가 되는 실전 명상

부처님의 마음을 빗는 불상 불단 조성 전문업체
한국불상조성원
상담문의 010-3665-6696
정성과 신뢰로 짓습니다.
한국불상조성원에서는 예로부터 전해오는 전통불상제작 방법을 전수받아 한국 불상의 전통과 맥을 이어가고 색바램없이 영구적으로 모실 수 있는 기술적 자질을 보유하여 다양한 불상을 조성하며 전통적인 표현양식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상판매 뿐만 아니라 사찰에 관한 모든 필요한 것을 일체 컨설팅과 자문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한국불상조성원 대표 이 인 규 합장
불단, 수미단 | 닫집, 운각 | 특수불, 동불, 목불 | 단청개금, 순금개금 | 도금, FRP, 수지
소불, 대불, 모든 탱화 | 위패제작 | 건 축 | 맞춤 조성 가능 | 사찰 관련 컨설팅 및 자문
TEL 031-536-6696 | FAX 0504-398-6696

“달리는 법당서 봉사와 전법을”

부산 ‘법륜회’ 22주년 기념법회 봉행

독거어르신위한 보양죽 후원
700만원 후원금 복지관 전달
22년 동안 나눔과 포교 앞장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법륜회가 3월 18일 부산 금곡동 진흥사 법당에서 창립 22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달리는 법당이라 불리며 포교 활동에 앞장서고 있는 부산개인택시 법륜회(이하 법륜회)가 창립 22주년을 맞았다.

부산 법륜회(회장 황기훈)는 3월 18일 부산 금곡동 진흥사 법당에서 창립 22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기념법회에는 진흥사 주지 정법 스님을 비롯해 황기훈 회장, 변성완 前 부산시장 권한대행, 김호덕 부산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정분남 조계종 포교사단 부산지역단장, 정달성 금곡동 동장 등 200여 대중이 동참했다.

이날 법회서는 불자 택시기사들이 회색 법복을 입고 단정히 앉아 부처님의 가피를 기도했다. 이들은 코로나19로 경제적 타격과 감염 위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하루 빨리 코로나가 사라지길 기원했다.

코로나 극복을 위해 법륜회 불자들은 택시 안에 있는 복전함과 개인 동참금을 모아 독거어르신들의 건강을 기원하는 영양죽 지원비 700만원을 금곡종합사회복지관에 전달했다. 지원금을 전달받은 금곡종합사회복지관은 이번 달부터 11월까지 지역 내 어르신들께 영양죽을 만들어 매달 전달할 예정이다.

법회는 삼귀의례 및 반야심경 등 예불을 시작으로 연혁보고, 내빈 소개로 이어졌다. 법륜회는 사랑의 영양죽 전달식에 이어 감사패 및 공로패 수여로 활동에 모범이 된 불자기사들을 격려했다.

공로패 및 감사장 수여에서는 부산불교연합회장상에 손병조, 임정택, 부산불교총연합신도회장상에 송용우, 조호길, 사단법인 부산불교 지도자포럼상에 김동억, 김상백, 불교여성개발원 부산지원장상에 김명룡 불자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감사장은 조계종 포교사단 부산지역단장상 양기석, 양동일 불자가 받았으며 부산개인택시조합 이사장상은 우태구, 최병식 불자, 부산개인택시조합 새마을금고 이사장상은 이건석 불자가 받았다. 이어진 격려사 및 축사에서는 포교에 앞장서며 꾸준한 봉사 활동을 이어 온 법륜회의 노력을 치하하는 각계 발언이 이어졌다.

진흥사 주지 정법 스님은 “창립 22주년을 맞은 법륜회는 이제 왕성한 청년의 시기가 되었다”며 “신심을 증장시키고 각 개인의 차량으로 이곳저곳을 누비며 많은 이들에게 웃음과 행복을 전하는 전법도량, 봉사와 선행을 실천하는 포교사가 되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황기훈 법륜회 회장은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우리 모두가 연결되어 있음을 느낀다”며 “오늘의 나눔은 우리 모두를 위한 또 다른 회향으로 공덕이 될 것이다. 동참해주신 모든 회원들에게 감사인사 올린다”고 말했다.

김호덕 부산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은 “그간 코로나로 인해 여러분을 뵙지 못했는데 꿋꿋하게 버텨주고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하다”며 “22주년을 맞은 여러분들의 봉사활동을 보았다. 진심으로 축하하며 저도 난국을 타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분남 포교사단 부산지역단 단장은 “여러분이 진심으로 거리의 포교사이며 달리는 법당이다. 지역단장으로서 여러분 모두가 포교사가 되었으면 하고 바랄 정도로 든든하고 욕심마저 생길 정도”라고 축하했다.

한편, 법륜회는 1999년 2월 11일 부산 연산동에 위치한 정수사에서 창립됐다. 법륜회는 창립 당시 20명을 바탕으로 현재 130여 회원들과 부녀회 봉사신행단체가 함께하고 있다. 매일 아침이면 관세음보살에게 자신과 손님들의 안전을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한다. 또 복전함을 택시 안에 두고 십시일반 손님들이 후원한 금액을 모아 자비행에 앞장서고 있다. 법륜회는 이밖에 불교봉사 단체로 장학사업과 불우이웃돕기 등 봉사활동을 20년 동안 이어왔다. 소년, 소녀 가장 250여 명에게 장학금 1억 6000만원을 지원했으며 독거노인 가정 생필품 및 가전제품 등 나눔을 위해 1억 2000여 만원을 지원했다. 그 외 정기적인 신행활동과 부처님오신날 제등행렬 교통봉사, 마산 결핵 요양병원 봉사, 양로원 및 장애아동 후원 등 다양한 나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제3회 부산불교대상’ 후보자 공모

4월 1일부터 23일까지

부산불교계가 제3회 부산불교대상 후보자를 공모한다. 부산불교대상은 부산 불교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한 불자 및 신행단체를 격려하기 위해 제정됐다.

부산불교연합회(회장 경선)와 부산불교총연합신도회(회장 박수관)는 불자 및 불교 단체를 대상으로 4월 1일부터 23일까지 ‘제3회 부산불교대상’ 후보자를 공모한다.

2019년부터 시상하고 있는 이 상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모범적으로 실천함으로 지역과 사회에 희망과 모범이 되는 불자를 발굴해 불교계의 귀감으로 삼고 있다. 아울러 불교중흥에 기여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추천 대상은 부처님 교리 실천, 불교발전, 사회봉사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한 부산의 불자 또는 불교 관련 단체이며, 후보자는 2인 또는 2개 기관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추천권은 부산지역 각 사찰 대표와 부산지역 불교 관련 기관 및 단체장에 있으며, 접수는 부산불교총연합신도회 홈페이지(www.bbf.or.kr)에서 제출 서류 양식을 받아 작성한 후 우편 또는 방문접수 하면 된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천태종 광명사, 법화산림대법회 입재

3월21일부터 10월 17일까지
매월 첫째주 셋째주 일요일
〈묘법연화경〉주제로 진행돼


광명사는 3월 21일 지관전에서 ‘법화산림법회’ 입재법회를 봉행했다.

부산 천태종 광명사가 천태종 소의경전인 〈묘법연화경〉을 주제로 대중에게 해설하는 ‘법화산림법회’를 진행한다. 광명사(주지 춘광)는 3월 21일 지관전에서 ‘법화산림법회’ 입재 법회를 봉행했다.

법화산림법회는 천태종 소의경전인 〈묘법연화경〉을 깊이 있게 해석하고 알아보는 시간으로 대중들의 신심을 고취하고 경전을 통한 바른 견해를 이끌기 위해 마련됐다.

법화산림법회는 입재일인 3월 21일부터 10월 17일까지 매월 첫째주, 셋째주 일요일 오후 9시에 진행되며, 누구나 참석 가능하다.

교재는 〈법화경문의 묘해〉이며 유튜브 ‘천태종부산광명사’에서 볼 수 있다. 강사는 금강대 불교학과 교수 광도 스님이 담당한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돌봄공백 해소 ‘용호쑥쑥자람터’ 개소

3월 24일 용호복지관서 개소식


사회복지법인 문수복지재단 용호종합사회복지관은 3월 24일 복지관 내에서 용호쑥쑥자람터 개소식을 진행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 단축수업 등으로 아동의 돌봄이 절실한 문제가 되었다.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용호종합사회복지관이 앞장섰다.

사회복지법인 문수복지재단 용호종합사회복지관(관장 서은해)은 3월 24일 복지관 내에서 용호쑥쑥자람터 개소식을 진행했다.

용호쑥쑥자람터는 지역 내 초등학생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부산광역시교육청으로부터 지정받아 운영하는 초등학교 돌봄교실이다.

개소식에는 사회복지법인 문수복지재단 대표이사 지원 스님, 서은해 관장, 부산시교육청 김석준 교육감 등이 참석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진불선원은 3월 20일 진불선원 5층 대적광전에서 ‘선불교대학 제12기 입학식’을 봉행했다.

진불선원 선불교대학 12기 입학식

창원 진불선원 선불교대학이 입학식을 봉행하고 수행과 교학을 통한 성장과 정진을 당부했다.

진불선원(주지 무아)은 3월 20일 진불선원 5층 대적광전에서 ‘선불교대학 제12기 입학식’을 봉행했다.

입학식에는 주지 무아 스님, 이철헌, 박성철 동국대 교수, 주선영 신도회장, 박종배 동문회장 등이 동참했다.

입학식은 △개식사△삼귀의례△한글반야심경△헌다공양△학장스님 축사 △격려사 △신도회 및 동문회소개 △환영사 △발원문 낭독 △니르바나 합창단 축가 △공지사항 △사홍서원 순으로 진행됐다.

주지 무아 스님은 “코로나19로 인해 여전히 힘든 시기이지만 인원을 제한하고 철저한 방역으로 모두가 안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좋은 인연으로 힘껏 정진해 이번 입학생 가운데 한 분의 낙오자 없이 행복한 정진을 이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선영 신도회장은 “입학하신 모든 분들에게 축하인사를 드리며 대학에서 배운 공부를 사회에 접목시켜 바른 정견으로 보시와 자비를 행하는 전정한 불자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발원했다.

박종배 동문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으로 힘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입학하신 12기생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앞으로 전법도량 진불선원과 동문회를 위해서 큰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흑산도 무심사지 면모 확인된다

불교문화재硏, 흑산도 무심사지 재발굴 추진

조사되지 못한 사역의 동쪽 4월부터 시·발굴조사 시작 사지 보존·정비 계획 수립 "해상 교류 살필 중요 유적"


2015년 조사 당시 흑산도 무심사지 발굴 현장 모습.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다산 정약용의 형인 손암 정약전은 가톨릭 박해로 흑산도 유배를 갔고, 이곳에서 한국 최초 어류도감인 〈자산어보〉를 저술한다. 이처럼 흑산도는 조선시대에는 유배의 섬이었지만, 고대에는 해상교역의 중심지였다. 일본 고승 자각대사 엔닌(圓仁)은 〈입당구법순례행기〉에서 귀국길 여정 중에 들었던 흑산도를 기록으로 남겼고, 1123년 고려를 방문한 송나라 사신 서긍이 쓴 〈고려도경〉에는 흑산도에 사신선이 머물렀던 관사가 있었다고 기록했다.

기록에 따라 삼국~고려시대에는 중국을 가기 위해 반드시 흑산도를 거쳤고, 이를 통해 흑산도가 중국과 한반도 해상교역의 중심지였음을 알 수 있다. 고려시대까지 번성했던 흑산도에는 사찰도 존재했다. 바로 무심사(无心寺)다.

무심사의 존재는 1999년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소에서 상라산성을 조사하던 중 '무심사선원(无心寺禪院)' 명 기와를 수습하면서 알려졌다. 이후 신안군에서 2009년 목포대 박물관에 시굴조사를 의뢰해 진행했고, 이를 통해 무심사지 건물지가 확인됐다. 2015, 2016년에는 건물지의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학술조사가 전남문화재연구소에서 진행됐다. 발굴조사를 통해 통일신라부터 고려시대까지 다양한 유물이 출토됐고, 건물지·수혈 등도 확인됐다. 이를 통해 무심사의 창건시기가 통일신라 말기인 9세기 후반이며, 11세기 중반부터 12세기 중·후반까지 전성기를 누리다가 14세기 폐사됐음을 추정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무심사가 어떤 이유로 흑산도에 세워졌고, 어떤 활동을 하다가 폐사하게 됐는지는 정확하지 않다. 그러다 보니 무심사지 보존·활용에 대한 정확한 계획 수립이 어려웠다.

이런 상황에서 (재)불교문화재연구소(소장 제정)가 흑산도 무심사지 재발굴에 들어간다. 4월 중순부터 진행되는 무심사지 발굴조사는 무심사지 사역의 명확한 범위를 확인하기 위한 시굴조사 형식으로 이뤄진다. 조사 지역은 신안군 흑산면 진리 724-1 일대 1400㎡다.

불교문화재연구소는 "무심사지는 주변 상라산성, 관아지, 제사유적 등과 함께 통일신라시대부터 고려시대 말까지 흑산도의 위상을 가늠할 수 있는 유구이며, 한국과 중국 사이의 활발한 국제 교류상을 살펴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유적"이라고 평가하며 "이번 연구소의 조사는 종합적인 발굴조사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 학술조사로 기존 조사되지 않은 사역 동쪽 지역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엄사 주지에 덕문 스님 만장일치 추대

3월 19일 산중총회서…미얀마 민주화지지 결의도

조계종 제19교구 본사 주지 후보에 덕문 스님이 만장일치로 선출됐다. 구례 화엄사(주지 덕문)는 3월 19일 화엄원에서 산중총회를 열고 총 189명의 구성원 가운데 100명이 참석해, 단일 후보로 등록한 덕문 스님을 차기 주지 후보로 만장일치 추대했다.

덕문 스님은 2017년에 이어 선출됐다. 덕문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화엄사의 위상을 한국불교에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4년 전에 다 이루지 못한 약속을 실천할 것이다. 승가복지, 광주포교당, 지역사회에서 불교를 일으키는 데 소임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덕문 스님은 종열 스님을 은사로 화엄사에 출가해 1985년 수계했다. 1989년 통도사 선원에서 안거를 시작한 이후 7안거를 성만했다. 총무원 호법부장, 조계종 직영사찰 보문사·선본사 재산관리인, 조계종 중앙박물관장, 동화사 주지, 동국대 감사, 13·14·15대 중앙종회의원 등을 역임했다. 현재 사단법인 굿월드자선은행 대표, 정광학원 이사장, 동국대 이사, BBS광주불교방송 운영위원장, 화엄사 주지를 맡고 있다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사진 왼쪽두번째)이 후보당선증을 들어보이고 있다.

이날 산중총회는 회의 후 교구본사 최초로 '미얀마 민주화운동을 지지한다' 라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와 함께 미얀마 민주주의와 평화를 위해 화엄사 대중이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화엄사는 결의문을 통해 "미얀마 군부의 시민들에 대한 유혈 무력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미얀마 국민의 민주화운동을 지지한다"며 "불살생을 계율의 첫 번째로 삼고 있는 불교국가 미얀마의 군부는 부처님 가르침을 받들어 미얀마 국민들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폭력과 살생을 당장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화엄사 대중들은 "미얀마 민주주의와 평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노력을 요청한다. 미얀마 민주주의와 평화를 위해 불자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전주서원시니어클럽 전주시설공단과 MOU

금산사복지재단(이사장 일원)이 위탁운영하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전주서원시니어클럽과 전주시설공단이 노인일자리사업 '꽃길활성화 (꽃가꾸기시니어)' 업무협약을 맺었다.

꽃길 활성화 사업은 2019년부터 시작된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낙후된 거리에서 수거한 폐 화분과 꽃을 활용, 꽃밭을 가꾸는 사업이다. 2021년에는 총 80명의 어르신이 참여했다.

이번 전주시설관리공단과의 협약을 통해 전주서원시니어클럽은 활동구역을 넓혀 덕진공원 등에서도 해당 사업을 진행한다.

전주서원시니어클럽 김경옥 사무국장은 "지속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서원시니어클럽 관장 우림 스님은 "어르신들이 활기찬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를 만들어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어려운 이웃 위한 9년간 자비쌀 전달

진안 마이산 탑사, 쌍봉사 90가구에 자비의 쌀 후원



진안 마이산 탑사(주지 진성)와 쌍봉사(주지 보경)가 지역의 나눔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자비의 쌀을 전달해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

3월 23일 마이산 탑사는 자비의 쌀 50포대(1000kg), 쌍봉사는 40포대(800kg)를 진안군 자원봉사센터(센터장 최주연)에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쌀은 지역 자원봉사단장들을 통해 직접 전달됐다.

마이산 탑사와 쌍봉사는 9년간 불단에 불자들이 공양한 공양미를 모아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백미나눔 전달식에는 진성 스님과 보경 스님, 전춘성 진안군수, 김광수 진안군의장을 비롯해 최주연 자원봉사센터장 등 지역 자원봉사센터장들이 참석했다.

진안군 자원봉사센터 이사장 소임을 맡고 있는 진성 스님은 "불자들이 마이산 탑사 불전에 올린 소원공양미를 나눔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함께 나눌 수 있어 행복하다"며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잘 전달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쌍봉사 주지 보경 스님도 "올해로 9년째 자비의 쌀 나눔을 후원하고 있다"며 "모두 힘든 시기에 쌀 한 톨 한 톨이 작은 희망이 되고 건강 지킴이가 되어 우리 지역사회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큰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 9년째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진성 스님과 보경 스님께 감사드린다"며 "후원받은 사랑의 백미는 지역 내 소외계층에 잘 전달돼 두 분 스님과 불자들의 마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선운사 신축년 방생법회 봉행


방생법회를 통해 생명존중 사상을 고취하고 어려운 이웃을 살피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고창 선운사(주지 경우) 신축년 방생법회가 선운사 경내 도솔제에서 봉행됐다. 3월 20일 선운사 경내 도솔제에서 열린 이날 방생법회는 천수경 봉독, 용왕청, 방생의식, 108참회의 순으로 이어졌다.

선운사 대중 스님들과 신도회 등 50여 명이 동참한 이날 방생법회서 동참한 불자들은 조속한 코로나 극복과 평화를 발원했다. 방생 후 선운사 대웅보전으로 자리를 옮긴 스님들과 불자들은 108배 참회법회를 통해 최근 내장사 화재로 국민들과 불자들에게 충격을 준 것에 대해 참회했다.

선운사 수찬 스님은 "물질문명의 발달로 인해 자연환경 파괴가 심각한 지금

대한국불교조계종승가회 성금 전달

대한국불교조계종승가회가 선천성심장병 환자를 위한 성금을 전달했다. 대한국불교조계종승가회(총무원장 성보)는 3월 24일 창원 불광사 대법당에서 선천성심장병 성금전달식을 봉행했다.

전달식에는 불광사 성보 스님, 약불사 보해 스님, 묘엄정사 덕운 스님 및 김인호 사랑실은 교통봉사단 지대장 등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총무원장 성보 스님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에도 십시일반 도움을 주신 분들에게 감사함을 전한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큰 희망과 소망이 전달되어 쾌유와 건강 회복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대한국불교조계종승가회는 3월24일 창원 불광사 대법당에서 선천성심장병 성금전달식을 봉행했다.

대한불교응공조계종 자비 나눔

사단법인 대한불교응공조계종(종정 법운, 총본산 동명사)은 3월 22일 경북 칠곡군 약목면 사무소(면장 이종구)에 라면 50박스와 휴지 30롤 등을 전달했다. 전달된 물품은 지역 불우이웃들에게 전해졌다.

이날 전달식에는 응공조계종 종정 법운 스님과 원로회의 의원 홍인 스님, 수덕 스님, 동화 스님, 강기철 신도회장 등이 참석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대한불교응공조계종 스님들이 라면과 휴지 등을 전달하고 있다.

사찰 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등간격 : 규격참조

설치가 편리한 고리형 후크

법당 전선시공 전문
승하강 장치시공(신형)



공단연등(고리용)


노랑(오렌지) 진분홍 백색 연분홍 금색

제등행렬용품


일자A형 S형 T분리형 LED바A형 LED홀더B형 건전지 초

전선간격
22㎝, 25㎝, 28㎝, 30㎝, 40㎝, 50㎝,
1m, 2m, 3m, 5m, 8m, 10m, 기타주문



LED전구 국산인증 (서울반도체 정품)


법당용 12E 외곽용 26E ISO9001 ISO1400 연등승하강 장치기술(신형)

도량(만월등)조립식 프레임(간편한 설치 및 높낮이 조절)



안전인증 ISO9001 ISO1400 특허청

정직과 신뢰의 불자기업
불제 대원안전산업
BULJE DAEWON CO.LTD

구입문의 031)986-0277~8, 02)2266-2634
032)582-6235~6, 02)2263-2638
문의핸드폰 010-3630-7092
본사·공장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모산로 17-1

코로나로 고립된 자취학생들에게 공양

日불교 마마케와 클럽, 사찰 공양물 지역나눔

박영빈 객원기자



식료품을 보시하는 마마케와 클럽 회원들. 사진출처=마이니치신문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인한 취직률 감소와 수익감소 등으로 고립된 자취생들과 독거 학생들을 돕기 위해 스님들이 나섰다. 사찰의 불공과 제사에서 사용된 식품과 부식거리를 무상으로 전달하며 부처님의 자비를 함께 전하고 있다. 3월 19일 일본의 '마이니치 신문'은 이웃과 함께하려는 불교계의 노력을 특별 보도했다.

지난 2월부터 시작된 '마마케와 클럽'은 일본 도호쿠 지방에 소재한 야마가타(山形)현의 스님들이 발의하여 시작된 식료품 보시 모임이다. '마마케와'는 해당 지역 사투리로 "밥이 왔다"라는 뜻이다.

마마케와 클럽의 발기인 중 한 명인 하리사키 마사히로 스님은 "주지소임을 보고 있는 사찰이 야마가타 현립 대학 근처에 있다 보니 지역 학생들과 주민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된다. 이 가운데 코로나 19 확산으로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가게들의 영업시간과 영업일 등이 단축되면서, 특히 자취하는 독거 학생들의 가계사정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식료품 보시를 결심한 계기를 전했다.

마마케와 클럽을 후원하는 정토진종 아마카타 교구 측은 "원래 야마가타현에서는 장례식이나 제사를 지낸 후 바구니에 음식을 담고 꽃 등으로 장식하여 이웃들에게 주는 풍습이 있다. 지금까진 이러한 식료품들을 바자회 등을 통해 판매하고 그 수익을 불우이웃을 위해 기부해왔다"고 전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이어져온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바자회 등을 열 수 없는 상황에서 지역 학생들의 고충을 들은 스님들의 발의로 마마케와 클럽이 시작됐다. 매달 한 번씩 현내, 각 지역별 사찰들을 지정, 인근 지역 사찰에서 모은 식료품을 법당에서 배포하는 식으로 진행중인 마마케와 클럽은 이미 지역 학생과 어려운 이웃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다.

지난달 배포를 맡은 신엔지(心縁寺)는 각 사찰에서 보내온 식품들을 분류, 재포장하여 보시를 준비했다. 모인 식품들은 대부분 전통 풍습에 따른 음식바구니에서 준비됐으며, 일부 불전에 올리고 퇴공한 공양물들도 포함됐다.

신엔지 측은 장기간의 보관과 조리의 용의성을 위해 국수, 수프, 라면 등의 간이 조리 식품은 1인분씩 봉투에 담았다. 또한 포장, 쌀과 과일 등의 신선식품은 원하는 만큼 가져 갈 수 있도록 준비했다. 마마케와 클럽의 활동이 알려지면서 농가 신도가 많은 지역적 특성상 신선식품에 대한 신도들의 찬조도 이어지고 있다. 타 종단과 타 지역 간의 연대도 시작됐다.

신엔지에서 식품을 받아간 야마가타 대학의 한 학생은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아르바이트 수입이 절반 이하로 줄었다. 절약을 위해 씨리얼만 먹고 살았는데 사찰에서 식료품을 나눠주어 큰 도움이 되고 있다. 특히 통조림이나 인스턴트 식품은 저장성도 좋아 비상식량으로 용이하다"며 감사를 표했다.

하리사키 스님은 "코로나 19가 계속해서 유행하는 가운데 학생들의 고립이 문제화 되고 있다. 앞으로 사회를 담당할 젊은이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학업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도, 지금은 지역이 받쳐주어야 한다"며 강조했다. 마마케와 클럽 측은 "식품을 나누고 재활용하는 이 활동은 불교의 자비와 보시행의 실천일 뿐만 아니라 음식낭비의 방지로도 이어질 것"이라고 활동을 설명했다. 다음 배포는 4월 말로, 다음 배포부터는 일정을 달리하여 다른 지역에서도 활동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일본 대지진 그 이후 10년의 추도

日불교계, 10년 회고 전해



동일본 대지진 10주기 추도식을 봉행하는 쇼간지. 사진출처=야후뉴스

올해로 10주기를 맞은 동일본 대지진. 강산이 한번 변한다는 10년의 세월 속에 끊임없이 희생자들을 추도해온 일본 불교계가 그간의 기억을 되짚어 보았다. 3월 16일 일본의 '야후 뉴스'는 동일본 대지진 10주기를 맞이해 불교계의 반응을 특별 보도했다.

3월 11일 오후 2시 46분. 10년 전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난 그 시간에 맞춰 일본 전국의 각 사찰에선 10번의 타종이 진행됐다. 일본불교의 성지인 고야산과 도다이지(東大寺)에서도 특별 천도재가 봉행됐다. 모두 동일본 대지진의 희생자들을 위한 것이다.

10년 전 지진의 진원지와 가까운 곳에 있었던 게센누마(気仙沼)시 쇼간지(松岩寺)의 부주지 코구로자와 스님은 "10년 전 그 시간, 신도들과 마침 본당의 대진공사에 대한 회의 중이었다"며 당시를 회상했다. 스님은 "큰 진동이 있은 후 '6m급의 해일이 몰려온다'는 경고방송이 울려 퍼졌다. 신도들과 함께 대피장소로 지정된 초등학교로 대피했다. 대피소와 2채 떨어진 집까지 파도가 몰려오는 것을 보고 모골이 송연했다"며 당시의 상황을 묘사했다. 스님은 "바닷가에 줄지어 서있던 선박 연료탱크가 파손돼 흘러나온 기름이 수면 위에서 불타올라 하늘이 붉게 물들었다"며 당시의 처참함을 전했다.

다행히 쇼간지는 해안가에서 가까웠음에도 고지대였던 덕에 큰 피해가 없었다. 그러나 사찰이라는 특성상 피해 다음날부터 희생자들의 시신과 온갖 협조 요청이 들어왔다. 경내는 빈소와 임시 피난소로 사용됐고 스님은 쉴 새 없이 장례식과 천도재를 봉행했다. 스님은 주지스님과 함께 임시 시신안치소들을 돌며 기도를 봉행했다. 당시 토호쿠의 스님들 가운데는 코쿠로자와 스님처럼 특정할 수 없는 다수의 시신들 앞에서 염불을 하거나 합동 장례식을 진행했다는 스님들이 많다. 또 피해지역에서 봉사활동을 이끌 거나 구호활동에 매진한 스님들의 활동도 다수 보고됐다.

타 지역에서도 피해자와 희생자들을 돕는 불교계의 손길이 이어졌다. 가두 탁발을 통한 구호금 모금, 피해자 임시 수용 등의 활동이 각 지역 불교계와 사찰을 통해 이뤄졌다. 도쿄의 관광명소인 와코 시계탑 앞에선 10년간 오직 동일본 대지진 희생자들을 위해 염불하며 구호금을 모금해온 스님도 있었다. 그러나 이 스님은 안타깝게도 지난 1월 코로나 19에 확진돼 입적했다.

일본 불교계는 희생자들을 위해 각 종단의 본산과 지역 사찰들을 중심으로 10년이 넘는 세월동안 매일, 또는 지진이 일어난 일시에 맞춰 천도재와 위령기도를 이어오고 있다. 코구로자와 스님은 "이곳 쇼간지는 17세기경 일어난 광산 낙반사고의 희생자들을 위로하기 위해 건립된 것으로 전한다. 이래로 그 희생자들을 기려왔다. 마침 동일한 지역에서 지진과 해일로 수많은 희생자가 나왔다. 명복을 비는 추모의 마음을 차세대에 전하는 것도 중요한 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스리랑카, 쿠라갈라 수호 이사회 출범

이슬람 극단주의와 충돌 우려 증가



쿠라갈라 유적 꼭대기에 있는 법당. 사진출처=데일리뉴스

3월 22일 스리랑카의 '데일리 뉴스'는 이슬람 극단주의자들로부터 고대 불교유적 '쿠라갈라(Kuragala)'를 보호하기 위한 이사회 출범 소식을 전했다.

쿠라갈라는 기원전 3세기 아누라다푸라 시대 초기 이전부터 전해오는 스리랑카의 불교유적으로 사찰과 불탑 유적이 다수 산재해 있다.

최근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은 이 고대 불교유적을 파괴하고 무허가 건축물을 세워 불법 점거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다양한 불교 단체와 협회들이 쿠라갈라 불교유적지 보호를 위해 목소리를 높인 상황이었다.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은 쿠리갈라를 '천국으로 가는 길'이라고 거짓 민간 설화를 퍼드리며 불교문화 유산 위에 이슬람 예배시설을 무허가로 설치했다. 여기에 이슬람 유적지라는 가짜 안내판까지 설치했다.

1990년 스리랑카 법원이 무허가 건축물 철거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배시설이 남아 있었다. 2013년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고타바야 라자팍사 대통령이 고고학 조례 권한을 이행해 고고학 보호구역 내 모든 건물을 철거하라고 지시했으나 역시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이에 현지에서 존경받는 와투라쿰부레 담마라타나 스님이 쿠라갈라 유적의 보호 및 불교문화 유적지로의 개발을 위해 쿠리갈라 보호협회를 창설, 이사회를 발족했다.

스님은 "쿠라갈라의 보존과 발굴 작업은 모두 이 보호협회의 이름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불교유적지로서의 면모를 세우기 위해 현재 높이 30미터의 임시법당을 건설하겠다"라고 밝혔다. 스님은 오는 3월 28일 임시법당에서 포살법회 봉행하고 초석 안치식을 통해 본격적인 유적 보존과 개발에 나설 예정이다.

김민재 객원기자

캄보디아, 승려모욕죄로 언론사 고소

불교명예와 존엄성 훼손 근거, 언론허가 취소



'펑 반나크(Pheng Vannak)뉴스'의 대표 펑 반나크(52)가 핀 셈 스님께 참회하고 있다. 사진출처=펑 반나크 페이스북

캄보디아의 '크메르 타임즈'는 3월 23일 승려 모욕죄로 한 언론사 대표가 기소됐다고 보도했다. 치트 소콘(Chhit Sokhon) 문화종교부 장관은 3월 22일 칸달주 지방검찰청에 서한을 보내 승려를 모욕하고 차별을 선동하며 살해 위협을 가한 혐의로 '펑 반나크(Pheng Vannak)뉴스'의 대표 펑 반나크(52)에 대한 법적 절차에 착수했다.

소콘 장관은 "3월 14일, 반나크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언론사 '펑 반나크 뉴스'의 SNS 페이지에 리치 보어 파고다(Reach Bou Pagoda)의 주지 핀 셈(Pin Sem) 스님과 불교를 비하하고 스님에게 총을 쏘겠다는 위협영상을 게재했다. 이에 법률에 따라 기소한다"고 밝혔다. 반나크 대표의 죄목은 승려모욕죄, 차별선동죄, 살해협박죄 등이다. 반나크의 유죄가 확정되면 최고 3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3월 18일에는 캄보디아 정보부가 펑 반나크 뉴스의 언론허가를 취소했다.

한편 반나크는 앞서 해당사찰에서 있었던 스님의 불자 폭행사건을 언급하며 부당함을 토로했다. 그는 "한 스님이 사찰 규칙을 어겼다는 이유로 불자를 나뭇가지로 때리는 영상을 제보받았다. 잔혹한 폭력을 본 언론인으로서 소셜미디어 페이지에 이를 보도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신고를 받은 기관은 다음날 사원을 방문, 체벌용으로 사용되던 나뭇가지 묶음을 다량 압수했으며 주지스님께 알려 해당 사건을 종결하도록 중재했다.

반나크 대표는 "나는 사찰, 탑, 학교 건축 등의 불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불자지만, 폭력을 일삼는 승려는 용납할 수 없었다. 모든 승려를 모욕하거나 불교의 명예를 훼손할 생각이 없었다"고 말했다.

김민재 객원기자

청동불상 조성업체
대원불교미술원



그 동안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을 성원해 주신 여러 스님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 드립니다.

그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하여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청동불, 개금, 탁자, 단청, 천불전, 특수불 등 일체를 혼을 담아 조성(제작)하여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법당 철거 및 정리 일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수거해 온 물건 및 퇴불은 파불없이 좋은 인연으로 어려운 스님들께 무료로 조성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장 임영달 올림.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565-5 전화 031)532-3722, 533-3722 | H·P 010-7171-2636 | 정성을 다하는 대원불교미술원이 되겠습니다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3/24~3/30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자비는 인연을 가리지 않네 : 그림 경전 말씀	혜조스님	운주사
2	우리는 늘 바라는 대로 이루고 있다 : 선지식의 코신 사행	김원수	바른법연구원
3	요가디피카 (아헹가요가) 육체의 한계를 넘어	아헹가/현천스님	선요가
4	제로 : 현실을 창조하는 마음 상태	천시아	젠북
5	불교성전	조계종포교원	조계종출판사
6	불교를 사랑한 조선 유학자의 선어록	김대현	운주사
7	낡은 옷을 벗어라 : 법정스님 미출간 원고 08편 수록	법정스님	불교신문사
8	적명을 말하다(선사들이 들려주는 수좌 적명의 삶)	유철주	사유수
9	화엄경을 머금은 법성게의 보배 구슬	김성철	오타쿠
10	티베트 사람들의 보리심 기도문	청전스님	불광출판사

책세상

“마음 법당 ‘거울집’서 회광반조 공부해야”



불법의 대들보
마음챙김
말한이 활성/엮은이 김용호
고요한소리 펴냄/1만3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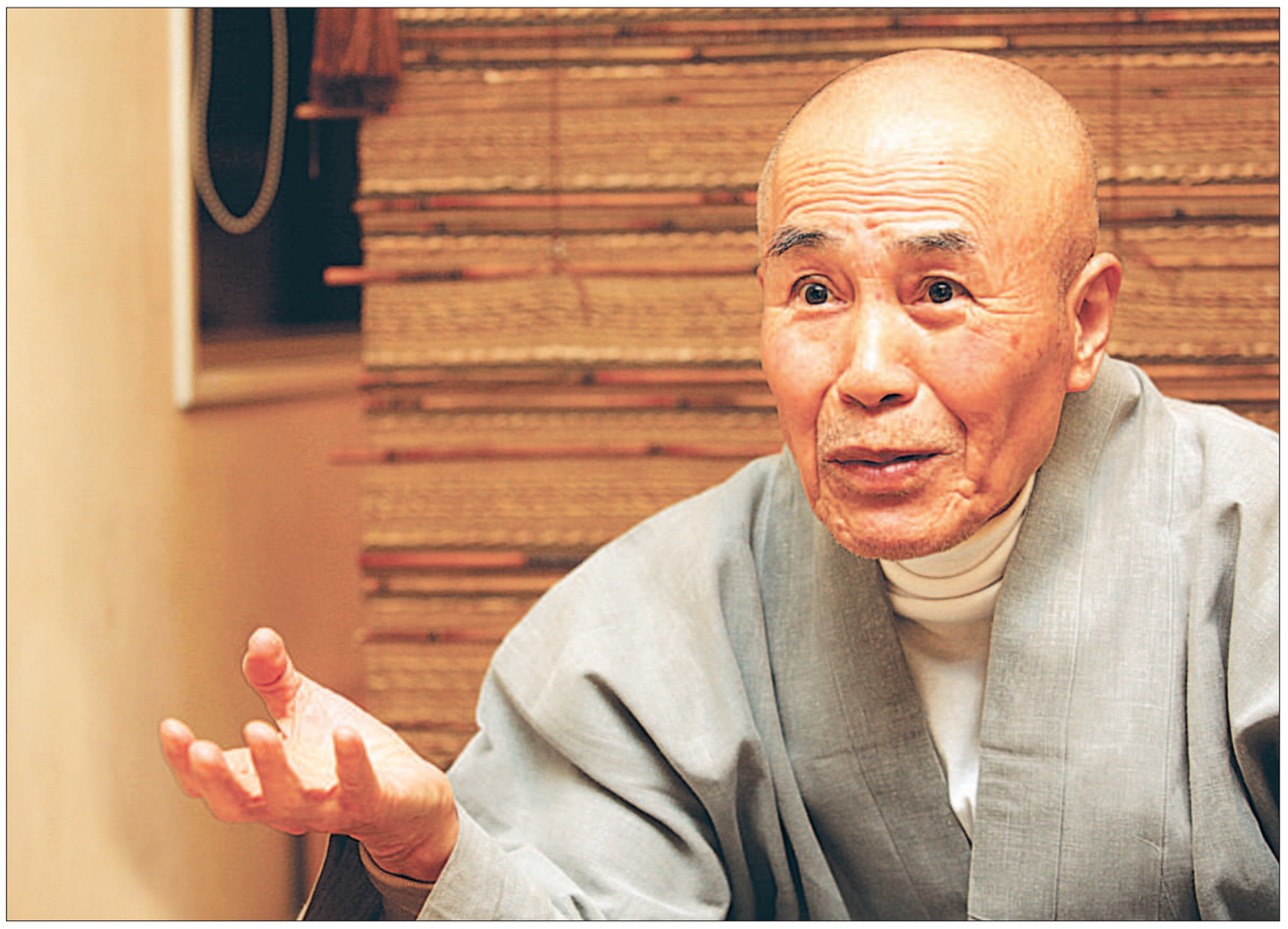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30여 년간 손바닥만 한 크기의 소책자를 발간하며 ‘붓다의 가르침’을 알려온 활성 스님. 스님은 ‘지금 여기서 마음챙김 하는 데 그 길이 있다’고 설파한다. 늘 고요하게 대중을 일깨우는 스님 말씀은 한사람 가슴마다 큰 울림을 준다. 32년 전 활성 스님은 ‘고요한 소리’라는 단체를 만들었다. ‘고요한 소리’는 그 안에 부처님 말씀이 담겨 있다는 의미이다. 이 단체가 1980년대 후반부터 손바닥 만한 소책자에 부처님 말씀을 담아내기 시작했다. 회원들이 자원봉사 형태로 참여해 스님과 함께 소책자를 정성껏 만들었다. 지난 30여 년간 발간한 소책자는 아흔 권이 넘는다. 책자는 〈보리수잎〉〈법륜〉〈소리〉 세 종류의 연간물 형태로 발간된다.

‘보리수잎’이 부처님 말씀을 소개하는 대중서라면 ‘법륜’ 시리즈는 깊이 있게 부처님 말씀을 설명한다. 또한 ‘소리’는 활성 스님 법문을 담았다. 스님은 최근 10여 년간 지리산서 수행하며, 세상에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았다. 하지만 꾸준히 소책자를 통해 조용히 부처님 가르침을 전파했다. 대중 앞에서 저자가 법문을 설하기는 최근 3년간 고요한 소리가 개최하는 ‘중도 포럼’을 통해서다.

그날그날 모인 대중들에 따라 법을 설하는 활성 스님은 어느 자리에서나 한결같이 부처님께서 고귀한 길이라고 말씀하신 팔정도의 중요성을 역설한다. 부처님 가르침인 팔정도야 말로 사람다운 사람의 길이고, 누구나 언젠가는 결국 팔정도를 걸어야만 인간 완성에 이른다는 생각에서다. 그래서 스님은 팔정도 실천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바른 마음챙김인 ‘삼마아사띠’를 처음부터 끝까지 놓치지 말고 챙겨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에 대해 책 속에서 저자 활성 스님은 이렇게 말한다. “어떤 분이 저더러 그럽디다. 스님은 맨날 팔정도만 얘기하십니다. 똑같은 말만 되풀이한다는 의미이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소견으로는 부처님 말씀이 전부 팔정도 얘기 같습니다. 여러분도 공부하면 할수록 팔정도의 필요성을 분명 느끼실 겁니다. 법을 잘 알고 실천해야 되는데, 그 법을 실천하는 방법에서 가장 잘 정리된 게 팔정도지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팔정도를 고귀한 길이라고 하신 겁니다.”라고 팔정도 공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30여 년간 손바닥만 한 크기의 소책자를 발간하며 ‘붓다의 가르침’을 알려온 활성 스님. 스님은 ‘지금 여기서 마음챙김 하는 데 그 길이 있다’고 설파한다.

누구나 결국 팔정도 길 걸어야만 인격완성 될수 있어
팔정도 수행서 가장 중요한 마음 챙김은 ‘삼마아사띠’
‘사띠’ 공부 기본 〈자비경〉〈염신경〉〈염수경〉도 실어
저자, ‘고요한소리’ 통해 30여년간 마음공부 책자 발간

바로 이 책은 마음챙김인 ‘사띠’를 중심으로 누구나 팔정도를 바르게 걸을 수 있는 이정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부처님 원음을 담은 경전 가운데, ‘사띠’ 공부에 기본이 되는 〈자비경〉〈염신경〉〈염수경〉을 부록으로 함께 실었다. 또한 마음챙김을 위해 바른 자세를 알려주는 ‘어떻게 앉는가’를 붙임으로 넣은 것도 특징이다.

책의 구성은 그동안 ‘고요한 소리’서 펴낸 활성 스님의 법문집 ‘소리’ 문고에서 ‘지금 · 여기 챙기기’ ‘소리 빗질, 마음 빗질’ ‘참선과 중도’ ‘참선과 팔정도’ 등 네 편을 골라 실었다. 그래서 책은 총 4장이다.

이 가운데 활성 스님의 핵심 가르침인 ‘지금 · 여기 챙기기’ 편에서는 “우리는 지금 · 여기에 증오가 일어날 때 ‘증오가 일어난다’고 보아야 할 텐데 지금 · 여기가 아닌 바깥에 있는 남을 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다’는 사실만 챙기고 있는 것이지요. ‘그가 옳다, 그르다, 억울하다’ 등 바깥에 마음을 다 팔고 있으니, 자기 내부에서는 갈등과 고뇌가 끝없이 실타래처럼 이어가건만, 거기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입니다. 여기서 바깥은 필연적으로 과거입니다.

지금 · 여기를 보는 것은 그런 태도가 아닙니다. 자기의식을 객관화시켜 그것에 마음을 딱 앉혀서 내가 ‘말을 듣고 있다’는 사실을 관한다면 그것은 마음을 잘 챙기고 있는 것입니다”고 조언한다.

그렇다면 활성 스님이 생각하는 바른 마음챙김이란 어떤 것일까? 스님은 이 책 제 4장 ‘참선과 팔정도’ 편에서 이렇게 설명한다.

“내가 남은 잘보는데 자신은 볼 줄 몰라요. 남의 허물, 남의 욕심은 너무 빨리 보지요. 그래서 매사를 남 탓으로 돌리고 자기 합리화에 급급한 게 우리의 초라한 모습입니다. 그것을 이 법당에 들어올 때 만이라도 멈춥시다. 이 법당은 바로 거울집입니다. 내 마음을 비추는 이 거울집에 들어와 그 거울을 닦아 나를 제대로 보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돌아보는 회광반조의 공부가 바로 바른 마음챙김, 정념의 출발이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계를 닦은 사람이 청정한 마음을 갖출 수 있고, 그 마음을 가져야 마음 챙김 단계에서 자기를 보는 노력에 진정성이 있습니다.”라고.

활성 스님은 그동안 자신이 인생을 살면서 가장 잘한 일은 단연코 ‘출가(出家)’라고 꼽는다. 1960년대 ‘독서신문’이라는 주간지 기자로 일하다 양산 통도사 극락암서 경봉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직장 다니면서 친견한 경봉 스님이 ‘한 생 안 난 셈 치고 살아라’라고 경책 했을때까지만 해도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다고 한다. 이후 함께 바둑 둔 검사 친구와 그 가족이 사고로 죽자 세상살이가 무심히 느껴졌고, ‘안 난 셈 치라’는 큰스님 말씀이 그제야 마음에 꽂혀 화두를 삼고 출가를 결심했다.

저자인 활성 스님은 마지막으로 이 책에서 불자들에게 당부한다. “진정한 나 자신으로 돌아가 사람값 제대로 할 것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자기 여건을 사람값에 맞추려 한다면, 그것은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결정적 모멘트를 포착하는 것이 됩니다. 그때부터 사람살이를 하는 겁니다. 사회살이로부터 사람살이로 바뀌는 것이지요. 사람살이 하려고 마음먹는 순간부터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삼마아사띠, 즉 바른 마음챙김입니다. 욕심내지 말고 꾸준히 바른 마음챙김, 정념 공부에 힘쓰십시오. 이것이 사람살이를 위한 길입니다.”

▲저자 활성 스님은?

1938년 태어났다. 1975년 통도사 경봉 스님 문하에서 출가했다. 통도사 극락암 아란야, 해인사, 봉암사, 태백산 동암, 축서사 등지에서 수행 정진했다. 현재는 지리산 토굴서 정진 중이며, 〈고요한 소리〉 회주로 있다.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창고,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공장, 일반가정집

A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Q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 서울·경기 02-456-8831 · 충 청 도 010-6545-3350 · 전 라 도 011-248-6298
· 강 원 도 019-396-1110 · 경 상 도 010-4187-0062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대칼라산업지붕공사

설악 신흥사부터
남해의 토굴까지
2천여 사찰시설, 고장없음
디지털앰프 다루기 1초!

대상 : 전국사찰 법당서 소리 체험 후 선택 (제주도 포함)

▣ USB겸용 앰프1, 스피커 2개, LG오디오 1개, 헤드셋 핀 핸드무선마이크, 무선마이크 종류별 4개, 유선마이크 1개 (스탠드 포함)완벽시설, 190만원부터~, 스피커 계속 연결시 비용추가 장기할부가능

▣ 주소 :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백팔 NK사운드 대표 박 공 희 ☎ 055-343-1191, 010-9471-2026

충전식 / 출력 300kw / 헤드셋 무선 2개
유선 2개 마이크 4개 동시사용, USB 동시녹음
실내 100평 가능 / 야외사용 겸용 (스탠드 포함)



정가(스탠드 포함) 89만원

넥타이핀마이크 2개, 헤드셋마이크 2개, 마이크 숫자 4개

▣ 한국사찰 각종 제 필수품 주문 방문설치, 사용설명

시중에 없음

가격 ₩ 48만원



각종 제 전문 무선마이크

시중에 없음



특징 : 마이크와 2m거리에서 작은 소리에도 청아하고 신명나는 소리 만듬!

가격 ₩ 58만원



팔만대장경 타는 소리

팔만대장경이 탄다
한 자도 남김없이 태워
풀 한 포기였던 그때와
내가 너였던 한때를
아득하고 막연한 시절 모두를
지나간다

한나절 불길 속에
그렇게 길 하나가 열린다
한나절이면 되는 것을
재가 되어야 드러나는 것을
소식은 그렇게 오는 것을

팔만대장경이 탄다
찾아온 봄을 태우고
언덕 위의 바람을 태워
잊히기를
그 어디에도 없기를

한나절 불길 속에서
그렇게 길 하나가 사라진다
염불 한 줄이면 되는 것을
꽃 한 송이면 되는 것을
소식은 그렇게 한때인 것을

기다리고 기다린 것은
볼 것도 들을 것도 없는 시절
바람은 불어 봄이 또 오고
매일매일 팔만대장경이 탄다

글 ·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불자 증가 돌파구…현대화·사회참여"

김은영 연구교수, 동아시아 4개 대학 학술대회서

30년간 韓인구 조사 추이 분석
불교 인구 감소세 가장 뚜렷해
세속화·신도충성도 결여 원인
높은신뢰도 강점…현대화 필요
동아시아 불교연구방법 논의도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지난 30년 동안 이뤄진 한국 종교 인구조사에 대한 추이를 분석하고 한국불교의 사회적 역할을 제시한 연구 논문이 발표됐다.

김은영 동국대 불교학술원 HK연구단 연구교수는 3월 14일 언택트로 진행된 '제4회 동아시아 4개대학 불교학 국제학술대회' 에서 '종교인구통계를 통해 본 최근 30년: 한국 종교의 흐름과 불교' 를 통해 한국불교가 현대화를 통해 젊은 세대에 맞는 니즈(needs)를 찾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교수는 통계청이 1985년부터 10년마다 진행하는 '인구 및 주택인구조사' 를 분석했다. 해당 조사에는 종교에 대한 항목이 조사되는데 1985, 1995, 2005, 2015년 총 4차례 조사됐다.

전수조사 방식에서 샘플조사로 변경된 지난 2015년 조사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지만, 한국불교 인구가 감소세에 접어든 것은 확실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김 연구교수는 분석했다. 불교인구 감소에 대한 원인으로 김 연구교수는 일부 승려들의 도덕적 해이와 불자들에 대한 욕구 파악 미흡, 정체성 확립 실패, 세속화를 꼽으면서도 "종교의 사회적 지위는 신자의 수가 아니라 종교를 필요로 하는 감정을 얼마나 잘 읽고 대응하는 지에 달려있음"을 분명히 했다.

김 연구교수에 따르면 불교는 문화적 힘을 가진 반면 조직 종교로서 약점을 가진다. 다른 종교에 비해 신도의 충성도가 낮아 종교적 정체성도 결여돼 있다는 분석이다. 연령 비율도 불안하다. 실제, 2005년~2015년 어린이, 청소년, 중년층에서 불교 인구는 감소했지만, 노인층은 증가했다.

김 연구교수는 "불교는 한국인의 삶에서 관습이기 때문에 사회적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관습적 불교의 영향은 현재의 노인에 해당되며, 완전히 다른 사회문화 환경에서 자란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상대적으로 약하게 적용된다. 수십 년 후 현재의 노인 인구가 사라지면 불교는 더 이상 주요 종교가 아닐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교수는 불교의 현대화와 사회참여를 현재 상황의 돌파구라고 봤다. 그는 불교의 현대화를 통해 젊은 세대를 불교로 유입시키고, 불교에 대한 충성도가 높은 중년 여성을 존중할 것을 주문했다.

김 연구교수는 "무엇보다 미래 한국불교가 추구해야 할 가치는 사회참여" 라면서 "전통에 기초한 불교적 가르침을 현대인의 요구에 맞게 적용시킬 때 새로운 종교적 사명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일본 동경대가 주관한 이날 학술대회는 '연구 방법으로써의 동아시아' 를 주제로 진행됐으며, 동국대와 북경대, 대만대가 참여했다.

학술대회에서는 △연구 방법으로써의 동아시아: 서양 미술사학자 시각으로 본 에도시대 하이쿠 문학해석(시모다 마사히로, 동경대) △동아시아 불교 연구 방법으로써 변증론: 조선시대를 중심으로(김성은, 동국대) △마음챙김 수행과 현재 인식: 아시아와 그 너머(차이 야오밍, 국립대만대) △〈유마경〉의 가르침으로서의 음식에 대한 해석학: 움직이는 축제(자오 유, 북경대) △'아비달마구사론' 의 일본 수용: 현대 불교 연구와의 관계를 중심으로(다이고 이시키, 동경대) △현대 대만 불교의 승가 양성 교육(매튜 오스본, 옥스퍼드대) 등이 발표됐다.

찰스 뮐러 무사시노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종합토론에선 30여 명 불교학자가 참여해 열띤 토론을 진행했으며, 향후 4개 대학의 불교학 연구와 교류 방향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김종욱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장은 "방법론으로써의 동아시아 연구의 다양성과 발전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오늘의 발표들이 현재의 불교학을 미래로 나아가게 하는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동아시아 4개 대학 불교학 국제학술대회의 2라운드 개최는 대학원생 교류를 중심으로 구상하기로 했다. 추후 동국대의 주관으로 일정 및 방법을 상호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미 출토 '국보 금동불' 살피다

국립대구博 '구미 선산 금동불 조사연구' 발간

구미 선산에서 출토된 국보 금동불보살상을 정밀 연구한 보고서가 발간됐다.

국립대구박물관(관장 함순섭)은 국보 제182호 구미 선산 금동여래입상과 국보 제183호, 국보 제184호 금동관음보살입상을 연구한 〈구미 선산 금동불 조사연구〉를 발간했다.

3점의 국보 금동불보살상은 지난 1976년 3월 경북 선산군 고아면(현재 구미시 고아읍)에서 함께 발견됐다. 조사 결과 문화재적 가치를 인정받아 같은 해 4월에 국보로 지정됐다. 이후 여러 전시에 출품되며 우리나라 고대 불교 조각을 대표하는 불상으로 알려졌지만, 최초 보고 이후로 심층적인 연구가 이뤄지지는 못했다.



출토 이후 첫 정밀조사가 진행된 국보 금동불 3점. 사진 왼쪽부터 국보 제182호 구미 선산 금동여래입상, 국보 제183호 금동관음보살입상, 국보 제184호 금동관음보살입상.

국립대구박물관은 보존과학 장비를 활용해 금동불 3점의 겉과 속을 다각도로 살펴봤다. 다양한 장비를 활용한 비파괴조사도 시행하고 재질, 제작기법 등을 검토했다.

보고서는 총 2부로 구성됐다. 1부 '금동불의 과학적 조사' 에서는 각 불상의 비파괴조사 결과를 수록했다. 3차원 정밀촬영을 실시해 불상 구조를 실측도면으로 작성하고 정확한 구성과 계측치를 처음으로 제작했다. 국립중앙박물관 보존과학부의 협조를 얻어 문화재 비파괴조사 방법인 전산화 단층촬영(CT)과 X-선 형광분석(XRF)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제작기법 연구에 필요한 내부 구조를 확인하고 구성성분도 밝혔다.

2부 '금동불에 대한 고찰' 에서는 국립박물관 불교 미술 전문가들이 고대 불교 조각사에서 이 불상들이 갖는 의의를 다뤘다. 금동여래입상은 허형욱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관, 금동관음보살입상 2점은 권강미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관과 김지호 국립부여박물관 학예연구사가 담당했다.

한편, 보고서에 수록된 금동불 3점은 오는 6월 19일까지 전시되는 국립대구박물관 특별전 '빛의 과학, 문화재의 비밀을 밝히다' 에서 만나볼 수 있다.

신성민 기자

전자불전硏 전등사 근대불교 사진 디지털화

동국대 불교학술원 전자불전문화콘텐츠연구소(소장 진명, 이하 전자불전연구소)가 성북구 전등사(주지 동명)가 소장한 근현대 불교사진의 디지털화를 추진한다.

전자불전연구소는 3월 18일 서울 성북구 전등사와 상호업무협약을 맺고 전등사 주지이자 전등선림 회주 동명 스님이 소장한 근현대 불교문화 관련 기록사진의 디지털화를 추진키로 했다.

이날 업무 협약에 따라 전등사는 근현대 호남의 대표 선사였던 해안 선사(海眼, 1901~1974)의 인화사진 자료와 사찰 소장 근대불교문화관련 사진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주요 사진자료는 1961년 해안 선사가 대중들을 위해 보인 생전 장례식의 전체 사진과 대중선(大衆禪)을 주창한 해안 선사의 법문 사진자료를 비롯해 구한말부터 일제강점기, 그리고 1960~70년대 능가산 내소사와 지장암의 불교행사 관련 사진들이다.

신성민 기자

'개경게' 찬자는 여황제 '측천무후'

로담 스님, 염불문 망라한
'염불하지 않는 이…' 발간
고승·문인·황제 등 읊은
염불문 180편 모아 편역해



'무상심심미묘법(無上甚深微妙法)/ 백천만겁난조우(百千萬劫難遭遇)/ 아금문견득수지(我今聞見得受指)/ 원해여래진실의(願解如來眞實意)'

신실한 불자라면 누구나 외우는 '개경게(開經偈)' 다. 하지만 이 '개경게' 를 지은 이가 중국 역사상 유일한 여황제 '측천무후(則天武后)' 임을 아는 불자는 많지 않다.

측천무후는 후주(後周)를 건국한 여걸이었지만, 자신의 권력을 위해 딸과 두 아들을 살해한 비정한 인물이었다. 후주를 통치하는 동안은 뛰어난 정치력으로 태평성대를 이뤘다.

탁월한 정치가였지만, 비정한 어머니이기도 했던 측천무후는 자신의 악업을 두려워했었는지 독실한 불자이기도 했다. 측천무후는 우텐국 사문 실차난타가 80권의 〈화엄경〉을 번역해 자신에게 가장 먼저 바치자 환희심이 나서 지금 우리가 독송하는 '개경게' 를 지었다고 전해진다. 그는 〈화엄경〉이 "위없이 깊고 미묘한 법이며 백천만겁이 지나도 만나기 어려운 법"이라고 '개경게' 라는 이름의 게송을 통해 찬탄한 것이다.

불자들이 독송하는 게·송·찬·술·시 등의 염불문을 망라한 〈염불하지 않는 이 누구인가〉가 발간됐다. 승려 시인으로 잘 알려진 로담 스님이 집역(集譯)한 〈염불하지 않는 이 누구인가〉에는 부처, 보살, 조사, 선사, 황제, 시인 등 100여 명의 다양한 인물들이 읊은 180여 편의 글들이 수록돼 있다.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은 염불문의 찬자(撰者)와 출처가 표기돼 있다는 것이다. 로담 스님은 〈화엄경〉 〈금강경〉 등 경전과 〈선문염송〉 〈조당집〉 〈종경록〉 등 선어록·찬집 50여 종을 꼼꼼히 살폈다. 스님의 이런 노력으로 독자들은 누구인지도 모르고 읊었을 염불문이 누구에 의해 지어졌고, 어디에 수록됐는지를 책을 통해 알 수 있게 됐다.

실제 잘 알려진 '성 안내는 그 얼굴이 참다운 공양구요. 부드러운 말 한마디 미묘한 향이로다. 깨끗해 티가 없는 진실한 그 마음이 언제나 변함없는 부처님 마음(面上無嗔供養具 口裡無嗔吐妙香 心裡無嗔是眞寶 無垢無染是眞常)' 의 제목이 '산옹지시(山翁指示)' 이고, 무착문희(無着文喜) 선사의 게송이다.

김은령 시인은 책의 발문에서 "희유한 180여 편의 시를 읽을 수 있었으며, 그 시의 주인과 출처를 알게 됐다"면서 "시의 밭을 경작하는 수행자가 시인의 마음으로, 시인의 눈으로 80여 종에 이르는 자료의 출처를 찾아 엮어 낸 '장엄염불의 교본' "이라고 평가했다.

신성민 기자

불교평론 무료 전자책 서비스 시작

불교계 대표 학술 계간지 〈불교평론〉이 전자책 무료서비스를 본격 시작한다.

〈불교평론〉은 "2021년 봄호인 통권 85호를 발행하면서 그동안 발행했던 잡지를 모두 전자책으로 제작해 3월 23일부터 무료로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불교평론〉은 홈페이지도 전면 개편했다. 또한 발행됐던 잡지 전권을 고해상도 OCR(optical character recognition, 광학식 문자 판독) 스캔작업을 통해 전자책으로 변환하고, 이를 무료로 열람·다운로드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불교평론〉은 "이번 85호 발행과 함께 전자책 열람과 다운로드가 가능하도록 홈페이지 기능을 보강하고 디자인 개편작업까지 완료했다"면서 "전자책 제작을 무료로 개방한 것은 그동안 불교학 연구자들이 학술논문 등을 집필할 때 구체적 인용정보를 활용하기 위해 전자책 발행이 필요하다는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개편된 '불교평론' 홈페이지 메인화면.

한편, 〈불교평론〉은 지난 1999년 겨울 불교학의 대중화와 불교학진흥을 위해 창간한 대표적 불교교양 학술지로 설악산 신흥사가 22년째 재정을 지원하고 있다.

신성민 기자

동국대 G미래&힐링 융복합 최고경영자 과정 〈제4기〉

〈미래학 + 동양미래예측학 + 자연건강(Healing) + 인문·문화〉
대한민국 리더의 미래와 건강, 사업에 실질적으로 도움 되는 특화AMP 과정

OT특강	* 늙지 않는 비법 호르몬 관리, 명의 김세철 원장, 4월 20일, 희망자 사전 신청 후 특강 수업 참관 가능
수업	* 매주 화(火)18:00~21:00 * 동국대 학명세미나실 * 입학식: 5월 11일 0교시 18:00 ~ 18:30 석식 및 다과, 원우 특활 1교시 18:30 ~ 20:10 동서양 미래학, 자연 건강, 인문 문화 특강 2교시 20:20 ~ 21:00 자연건강, 힐링타임, 1주일의 피로와 스트레스 해소

	미래학	동양미래예측학	자연건강	인문·문화
주제	미래경영과 4차 산업 혁명	때를 찾는 지혜 동양미래예측학	Wellbeing Welldying	인문학
	미래변화와 생존, 혁신전략	과학화된 역학(관상 주역)	음식궁합 먹거리	법률
	미래전략 손에 잡히는 미래	부동산과 풍수	체질요법 힐링 명상	세무
자격	대기업 및 공기업 임원급 이상 경영자, 중소기업 대표, 금융계 언론계 법조계 등 사회 각계 고위인사,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자			

* 과정 원장 소재학 교수가 최초로 창시하고 개발한, 개인의 성공과 실패 90% 이상 규칙적인 예측 가능한 동양미래예측학 프로그램 및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통해 모든 원우들의 개인별 미래 흐름 분석 및 맞춤형 관리 (성공할 때, 물러날 때, 투자할 때, 건강 약해지는 시기 등)
* 특강 교수 : 태초 먹거리 학교 이계호 교수, 김중태 IT문화원장, 안종배 국제미래학회 회장, 사기피해예방 임채원 부장검사, 엄창섭 고려의대 해부학교수, 최낙원 대한통합암학회 이사장, 부동산 투자 전문가 박관식 대표, 박경식 미래전략정책연구원 원장 외
* 홍보대사 : 원우 가수 장미화 회장, 코미디 협회 엄용수 회장, 뚝딱이 아빠 김종석 박사 외


소재학 총괄교수
미래예측학박사1호

원장 겸 총괄교수
•동양미래학자
•명리학자, 풍수지리학자
•동서양미래학 융복합학자
•국제뇌교육대학원 석좌교수
•캐롤라인대학교 부총장
•KOFS 한국동양미래학회 회장
•동국대 GFCA최고위과정 원장


이상희 전 장관
전 과기부장관, 국회의원


김홍신 교수
소설가, 전 국회의원


박영숙 대표
유엔미래포럼


김세철 교수
명지병원 의료원장

현대 사주명리학 공개특강
동국대 GFCA 동양미래예측학 최고위과정 〈12기〉 개강특강
3월 31일(水), 4월 7일(水) 18:30, 공개특강 사전 신청순 30명

왕초보도 제대로 된 사주명리학, 원리위주 가장 쉽게 공부하고 마스터하는 과정

평생 공부해도 답 안 나오는 사주학, 원리 위주 재미있게 OK!
성공 실패 시기, 창업 투자 시기, 때를 찾는 법 제대로 배우는 과정, 검증 가능한 제대로 된 작명법(성명학) 마스터
과학화된 역학, 논리로푸는 사주학, 동양미래예측학
마스터 교강사 및 명리진로적성상담자 자격증 과정 겸비

* 수업: 매주 水 18:30~21:00 초급, 중급, 고급 과정별 수강,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및 프로그램 활용 학습용이
* 예습 및 복습강의 영상제공
* 수료후 마스터까지 무료반복수강 가능

명당 찾는법 풍수지리 공개특강
동국대 GFCA 풍수지리 최고위과정 〈9기〉 개강특강
4월 12일(月), 4월 19일(月) 18:30, 공개특강 사전 신청순 30명

기(氣) 좋은 터 찾는 법, 원리 위주 강의,
왕초보도 1년에 제대로 된 맥을 잡는 과정

풍수지리, 정확히 알고 활용하면 인생을 보다 성공적이며 건강하게 해주는 자연과학. 교강사 및 풍수지리 지도사자격증 과정 겸비, 이론 따로 실제 따로 아닌, 원리 위주 재미있는 공부, 국내외 실전 기 풍수지리 현장 답사

* 수업: 매주 月 18:30~21:00 * 경제적인 등록금
* 강의 영상 제공 유튜브: 소재학교수의 때를 찾는 지혜



동국대학교 미래융합교육원 최고위과정

★ 소재학 총괄교수 동양미래예측학, 풍수지리 특별상담 진행 ★

동국대 미래융합대학 CEO 최고경영자과정 사무국 ☎ 02-585-0079 / 사주명리 풍수지리 전문가 최고위 사무국 ☎ 02-3443-4984, 010-8335-8001

정찬주 역사대하소설 아쇼까대왕 12

▶ 13회 예고
왕자 아쇼까는 10세 이전부터 왕자수업을 받는다. 빈두사라는 목갈리뿟다띳사에게 아쇼까 전생을 알아보는 등 그의 법력을 시험해 본 뒤 왕자 선생이 되라고 명한다. 잔인한 성격의 어린 아쇼까는 목갈리뿟다띳사를 놀라게 한다.



까우띨리야 같은 스승을 찾다

빠딸리뿌뜨라성으로 돌아온 빈두사라는 예전과 같이 평상심을 되찾았다. 그의 눈에서는 살기가 사라졌고 손에 피를 묻히는 잔혹한 일도 없었다. 탁실라가 평온해지니 마우리아왕국에 복종하는 소국들은 사신을 정기적으로 보냈으며 조공의 예를 각별하게 갖추었다. 오직 동남쪽 변방의 깔링가국만 조공의 가짓수를 마음대로 줄이는 등 빈두사라의 신경을 은근히 곤두서게 했다. 그렇다고 빈두사라는 군사를 동원해 전쟁을 치를 수도 없었다.

빈두사라의 꿈은 왕자들을 잘 교육시킨 뒤, 언젠가 소국을 다스리는 부왕(副王)으로 보내는 것이었다. 특히 자신의 왕위를 이을 왕세자에게는 반란이 잦은 탁실라나 반골기질이 강한 깔링가국으로 보내 자질을 시험하면서 통치를 경험시킬 작정이었다. 때문에 빈두사라는 왕자들을 교육시킬 좋은 선생을 찾는 일에 전념했다. 빵갈로바뜨사는 병들어 더 이상 역할을 하지 못하고 짬빠성으로 돌아가 버린 상태였다. 브라흐민 칼라따까 제관이 있지만 그는 너무 브라흐민 전통만 강조했다.

빈두사라는 초조했다. 강가강으로 기도하러 나가려는 칼라따까를 붙잡아놓고 말했다.

"칼라따까 제관이여, 아직도 왕자를 교육시킬 선생을 찾지 못했소?"

"자이나교 수행자나 아지비까교 구루만 찾으라고 하니 한계가 있사옵니다."

"나는 어린 시절에 까우띨리야 대신을 만나 참으로 많은 것을 배웠소. 어찌 그뿐이겠소. 끄샤뜨리아 무사신분의 짜라나비슈누 장군도 만나 병법을 배웠소. 어찌 이런 인물들이 우리 마우리아왕국에 없다는 말이오?"

칼라따까는 기도 중에 브라흐민교와 아지비까교, 자이나교가 지는 해 같고 반면에 불교는 뜨는 해처럼 다가오는 기운을 느꼈지만 차마 말을 못했다. 마우리아왕국에서 불교는 아직 낯선 종교였다.

"말해 보시오. 우리가 빠딸리뿌뜨라로 돌아온 지 벌써 3년이 지났소. 왕위를 이을 수시마는 강가강으로 나가 뱃놀이나 하고 있소. 탁월한 선생을 구하지 못했기 때문이오."

"대왕이시여, 조그만 더 기다리시면 까우띨리야 같은 훌륭한 선생이 수행자들 중에서 나타날 것이옵니다. 원래 수행자란 태평성대 평화의 시기에는 은거수행을 하는 법이어서 찾기가 힘든 것이옵니다."

"그렇다면 나의 시대가 평화의 시기란 말이오?"

"전쟁이 사라졌기 때문에 지금은 평화의 시기이옵니다."

"제관의 말이 맞는 것도 같소."

"대왕이시여, 현명하시옵니다. 평화의 시기라고 해서 왕자님들의 교육을 소홀히 해서는 아니 되옵니다. 평화가 유지되려면 대왕에서 천민에 이르기까지 각자의 직분에 충실해야 하옵니다."

"나의 마우리아국을 세우신 할아버지 대왕 찬드라굽따 시절에 까우띨리야와 짜라나비슈누가 출현해 난다왕국을 멸망시키기 위해 날마다 전투를 벌이시던 할아버지를 열정적으로 도왔소. 그들은 나까지 가르쳤던 대신들이었소."

칼라따까는 까우띨리야 말만 나오면 반색을 했다.

"까우띨리야 대신도 독실한 브라흐민교 제관이었사옵니다. 브라흐민교를 신봉하옵소서."

찬드라굽따가 삡팔리바나국에서는 불교적 분위기 속에서 자랐지만 탁실라로 가서 까우띨리야를 만난 뒤부터 브라흐민교를 신봉했던 것은 사실이었다. 그러나 그는 말년에 나라에 기근이 들어 수많은 백성들이 굶어 죽자, 자신의 무능을 자책하며 자이나교에 귀의, 출가한 뒤 수행자로서 단식 끝에 생을 마감해버렸다.

"난 어느 종교에도 빠지고 싶지 않소. 브라흐민교나 자이나교나 아지바까교나 나라에 도움이 된다면 거부할 이유가 없는 것이오. 그래서 빠딸리뿌뜨라성에는 여러 종교의 수행자들이 들어와 나의 공양을 받고 있는 것이오."

빈두사라의 말은 옳았다. 빠딸리뿌뜨라성에는 여러 종교의 수행자들이 자유스럽게 드나들었다. 내성으로 들어와 빈두사라의 공양을 받았다. 불교 수행자들만 성 출입을 꺼려했는데, 어떤 불교 수행자는 공양만 받고는 곧 외성으로 나가버렸다.

칼라따까가 갑자기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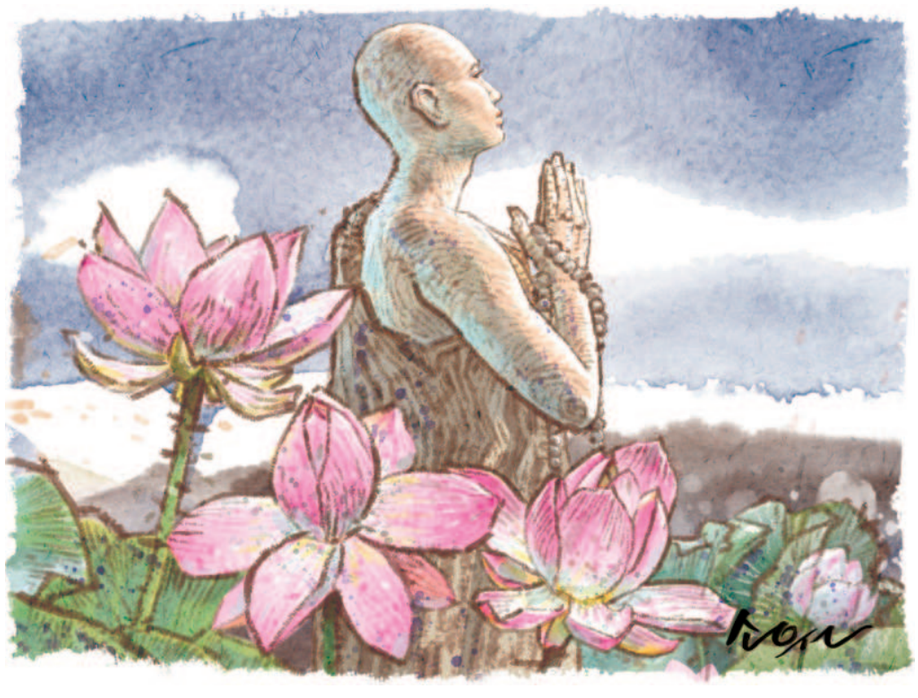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사옵니다만 기도 중에 불교 수행자들이 자꾸 떠오르옵니다. 이는 대왕께서 불교 수행자와 인연을 맺을 것이라는 암시이기도 하옵니다."

"불교 수행자라도 왕자를 잘 교육시킨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소?"

"그런 수행자를 보았소? 명성이 있는 수행자라면 데리고 와 보시오."

"대왕이시여, 아직 보지 못했사옵니다만 지금부터 바로 찾아보겠사옵니다."

빈두사라는 칼리따까에게 불교 수행자라도 찾아보라고 지시했다. 자신이 불교 수행자를 경멸하는 것은 깔링가국에 대한 반감 때문이었지 다른 이유는 없었다. 실제로는 종교를 차별하는 자신의 태도에 회의를 느낀 적도 있었다. 아버지 찬드라굽따는 불교신자들이 많았던 삡팔리바나국 출신이었다. 삡팔리바나국은 꼬살라국 위두바나왕이 까삘라국을 공격했을 때 도망친 싸끼야(석가)족을 받아들인 히말라야 산속의 마우리아족이 세운 나라였던 것이다.



삡팔리바나국은 마우리아왕국보다 더 오래 된, 고타마 붓다 시절에는 공작새를 집안에서 기르던 마가다국 북쪽에 있는 소국이었다. 붓다가 꾸시나가라국에서 입적했을 때 삡팔리바나국 사신들이 다비식장에 늦게 도착하여 사리 대신 재를 가져가 회탑(灰塔)을 세운 일도 있었다. 꾸시나가라국에 이미 와 있던 마가다국 웨데히 왕비 아들 아자따삿뚜, 베살리국 릿차비족 사신, 까삘라성 싸끼야족 사신, 알라깝빠국의 불리족 사신, 라마가마국 꼴리야족 사신, 베타디빠국 브라흐민 사신, 빠다국 말라족 사신, 꾸시나가라국 말라족 사신 등이 붓다의 사리를 8등분하여 나눠가졌으므로 사리 분배를 중재한 브라흐민 도나는 마지막 남은 사리를 병에 받았고, 뒤늦게 온 삡팔리바나국의 마우리야족 사신은 숯덩이라도 그릇에 담아 가져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빈두사라는 칼라따까를 불러 세웠다. 그가 웃으며 말했다.

"원래 우리 조상들은 관대했소. 삡팔리바나국의 마우리아족 조상들은 싸끼야족이 피난 왔을 때 물리치지 않고 받아주었소. 뿐만 아니라 부처님의 재를 받아 큰 묘탑을 세운 일도 있었소. 그러니 내가 훌륭한 불교 수행자에게 왕자교육을 맡긴다고 해도 아주 이상한 일은 아니오."

"대왕이시여. 오늘부터 눈을 부릅뜨고 찾아보겠사옵니다."

"엄격한 빵갈로바뜨사 구루가 없으니 수시마는 제멋대로 자라고 있소. 그래서야 어찌 마우리아왕국을 통치하겠소. 교육을 시키는 대신들에게 버릇없이 군다는 소문도 들리고 있으니 유념하시오."

"대신들을 궁에서 자주 보니 스스럼이 없어서 그럴 것이옵니다. 수시마 왕자님은 천성이 선한 왕자이옵니다. 너무 선해서 오히려 걱정이옵니다."

칼라따까의 말은 거짓이었다. 수시마가 대신들에게 함부로 대한다는 소문은 사실이었다. 깔라따까도 어린 수시마에게 모욕을 당한 일이 있었다. 브라흐민이 외는 〈베다〉를 가르치는 시간에 수시마가 갑자기 장난으로 칼라따까의 뺨을 쳤던 것이다. 이후 칼라따까는 앙심을 품고 수시마에 대해서 친한 신하들에게 은근히 나쁜 소문을 퍼뜨렸다.

'수시마가 나의 뺨을 때렸소. 장차 왕이 되면 나의 목을 칠지도 모르겠소.'

깔라따까의 말에 빈두사라는 수시마를 걱정했다.

"수시마가 선하다는 말은 맞소. 허나 왕은 때로는 잔인해야 한다고 까우띨리야 대신에게 배웠소. 다만 왕의 잔인함은 백성을 위해 써야지 왕자신을 위해서 휘둘러서는 안 된다고 했소."

"대왕의 통치술은 일찍이 까우띨리야 대신으로부터 배운 것인 줄 저도 알고 있었사옵니다."

실제로 까우띨리야만큼 빈두사라에게 영향을 끼친 인물은 없었다. 까우띨리야는 어린 빈두사라를 가르쳤다. 왕은 권력을 사용할 때 냉혹해야 한다고. 왕이 휘두르는 통치봉은 물고기의 세계처럼 약자는 모두 강자에게 잡아먹히는 약육강식이 횡횡하는 것을 막고자 함이라고. 왕이 행복하면 백성도 행복해지고, 왕의 이익은 백성의 이익이라고. 다만 왕의 이익은 자신이 아니라 백성에게 좋은 것이 이익이라고 귀에 못이 박힐 만큼 들었던 것이다. 까우띨리야 교육의 또 다른 특징이 있다면 여러 종교의 수행자들에게 가르침을 받아 왕자가 우주와 세계, 인생을 알게 한다는 점이었다. 그래서 빈두사라는 빠딸리뿌뜨라 내성에 여러 종교의 수행자들을 살게 했고, 날마다 공양하는 전통을 지켜왔던 것이다. 빈두사라가 수행자들을 특별하게 존경해서가 아니라 그 이유는 단 하나 왕자 교육을 위해 그래왔던 것이다.

그날 이후. 칼라따까는 빈두사라에게 여러 명의 불교 수행자를 추천했다. 짧게는 서너 달에 한 번, 길게는 1년에 한 번 궁으로 데리고 와 소개했다. 빈두사라가 빠딸리뿌뜨라성으로 돌아 온 지 4년이 된 어느 날이었다.

"짬빠성에서 온 수행자이옵니다. 다르마 왕비님의 고향에서 온 수행자인데 법력이 높다고 하옵니다."

"법력이 무엇이오?"

"전생을 보는 능력이거나 미래를 보는 능력을 뜻하옵니다."

"그 구루의 이름은 무엇이오?"

"목갈리뿟다띳사이온데 비록 나이는 젊지만 한눈에 봐도 예사롭지가 않사옵니다."

"수시마를 가르치게 하시오."

깔라따까는 망설였다. 마음속으로 수시마의 스승이 되게 하고 싶지 않았다.

"무얼 망설이시오?"

"수시마 왕자는 불교 수행자가 맞지 않을 것 같사옵니다."

"왜 그렇소?"

"수시마 왕자님은 라다굽따 제관을 따라서 강가강으로 나가 인드라 신에게 제사 지내는 것을 좋아하시는데 불교에는 그런 의식이 없사옵니다. 그러니 수시마 왕자님은 불교 수행자에게 곧 흥미를 잃고 말 것이옵니다."

"수시마의 취향이 그러하니 라다굽따 제관을 계속 붙여주어야 할 것 같소."

라다굽따 제관은 인품이 원만한 브라흐민이었다. 어떤 왕자든 라다굽따를 싫어하지 않고 따랐다. 좀처럼 화를 내지 않는 성품에다 있는 듯 없는 듯 처신했기 때문에 궁 안에 적이 없었다. 그는 언제나 제관의 역할에 충실할 뿐이었고, 빈두사라를 말없이 보필하는 데만 만족했다. 직언하기를 꺼리는 것이 단점이었지만 그래도 빈두사라는 안정감 있는 그를 신임해 항상 옆에 두고 조언을 구했다.

빈두사라는 칼라따까의 말에 양미간을 찌푸렸다. 수시마가 법력이 있는 목갈리뿟다띳사를 따르지 않을 것이라는 좀 전의 말에 실망했기 때문이었다. 그래도 빈두사라는 목갈리뿟다띳사를 만나고 싶어 아쇼까를 들먹였다.

"목갈리뿟다띳사를 어렵게 찾았을 텐데 아쇼까는 어떻소?"

이는 칼라따까가 내심 갈망하던 바였다. 그러나 그는 짐짓 딴청을 피웠다.

"아쇼까 왕자님도 불교 수행자를 싫어하실지 모르겠사옵니다."

"법력이 높다는데 또 어디서 찾을 수 있겠소. 그러니 아쇼까가 싫어하든 말든 강제로 한 번 맡겨 보시오. 나는 왕비 별궁에서 구루의 법력을 한 번 시험해 보겠소."

빈두사라는 칼라따까에게 3일 뒤 젊은 목갈리뿟다띳사를 다르마 왕비 별궁으로 데려 오도록 지시했다. 그날부터 칼라따까는 긴장해서 안절부절못했다. 목갈리뿟다띳사에게 과거나 미래를 보는 법력이 있다고 추천했는데,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자신의 처지가 난처해질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계속〉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KBS 과학카페



이강욱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박현숙 원장 출연(2010.2.6)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 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초록원웰빙 02)523-0708 김영숙 010-7384-1708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 을 치세요.



박희승의 **禪, 세상을 만나다** ❻ 〈금강경〉과 선 ㊥



▶ **한줄 요약**
분별없는 보시 · 봉사가 깨달음 가는 수행

'나' 여읜 정진, 깨달음의 첩경

이 시대의 철학자 김용옥 선생은 〈금강경 강해〉라는 저서에서 〈금강경〉과 선이 전혀 무관하다고 주장하지만, 그 책에 '서문'을 쓴 법정 스님은 〈금강경〉을 선종의 소의경전이라 하며 도올을 거사라 상찬한다. 알고 보면 이런 아이러니도 드물다. 과연, 누구의 말이 옳은가? 불교의 정견이란 무엇인가? 이런 문제의식으로 〈금강경〉 공부를 계속해 보자.



불전함에 보시를 하는 불자들의 모습. 상 없는 보시와 봉사는 수행의 다른 이름이다.

〈금강경〉의 깨달음과 한국불교의 깨달음 논쟁

〈금강경〉 2분에서 수보리 장로가 부처님께 이렇게 묻는다.

"세존이시여!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선남자 선여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까?"

수보리의 질문은 '깨달음을 추구하는 불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와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하는지'를 부처님께 묻는 것이다. 이 물음은 모든 불제자들의 근본적인 의문이 아닐 수 없다. 과연 생사 윤회를 해탈하는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이란 무엇이며, 불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불교의 깨달음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無上正等覺)'이다. 단순한 깨달음이 아니라 가장 높고 바른 것이다. '가장 높고'란 위없는, 더 깨달을 것이 없는 깨달음이다. 한 마디로 최고의 깨달음이다. 부처님 자신이 깨친 깨달음을 말한다. 생로병사의 괴로움에서 영원히 벗어나는 깨달음, 생사 윤회를 해탈한 깨달음이다. 일체의 번뇌망상을 완전히 소멸시킨 열반(涅槃)을 성취하는 깨달음이다. 불교의 깨달음에 대하여 남방과 북방, 그리고 선종의 견해에는 큰 차이가 없다.

그런데, 한국불교에는 현대에 와서 깨달음 논쟁이 크게 두 번이나 있었다. 하나는 1980년대 성철 스님이 조계종 종정에 추대 후 〈선문정로〉를 출간하여 "깨달음에 대하여 선종은 돈오돈수이고, 교학은 돈오점수이니 선에서 돈오점수를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주장한 것이다. 여기에 대하여 불교학자들과 송광사 등 보조국사의 돈오점수설을 지지하는 분들이 반박하여 '돈점논쟁'이 크게 일어났다.

그 뒤 2015년을 전후하여 당시 조계종 교육원장 현응 스님이 "깨달음은 연기 무아를 잘 이해하는 것이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안국선원 수불 스님이 "깨달음은 이해가 아니라 마음을 깨치는 것이다"고 반박하여 다시 깨달음에 대한 논란이 일어났다.

깨달음에 대한 위 두 논쟁은 배경이 다르지만, 불교의 깨달음에 대한 시비라는 점에서는 같은 문제이다. 이것은 한국불교에 아직도 깨달음에 대한 견해가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다는 증거이다. 그런 점에서 한국불교가 앞으로 더 발전하려면 불교의 깨달음에 대한 결집이 매우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불교가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부처란 깨달음 이라는 뜻이니, 불교는 깨달음을 떠나서 이야기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두 차례 깨달음 논쟁은 한국불교가 앞으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가 무엇인지 확인해주었다. 근래 여러 서적이나 최근 유행하는 유튜브 같은 곳에는 스스로 깨달았다고 자처하는 이들이 상당히 많다. 불교의 깨달음에 대하여 지금처럼 많은 주장이 공공연히 난무하는 때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한국불교의 정체성 정립과 발전을 위해서는 이 깨달음에 대한 정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다른 한편으로 중국이나 일본, 그리고 남방의 불교문화권에서는 보기 드문 한국불교의 깨달음 논쟁은 매우 주목할 가치가 있다. 이 깨달음 논쟁과 연구를 더 발전시킨다면 깨달음에 대한 현대적인 정립으로 인류 세계가 직면한 문명사적인 위기를 해결하지 않을까. 대안 사상으로 그 가치가 있지 않을지 조심스레 전망해 본다.

〈금강경〉의 완전한 열반과 선의 본래성불

다시 〈금강경〉 수보리의 질문으로 돌아와서 "깨달음을 향해 가는 불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하여 부처님은 이렇게 답한다.

"온갖 중생들을 내가 모두 완전한 열반에 들게 하리라.…수 많은 중생을 열반에 들게 하였으나, 실제로는 완전한 열반을 얻은 중생이 아무도 없다."

동문서답 같은 답이다. '깨달음을 추구하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묻는데 '완전한 열반'에 들게 하였으나 실제 열반은 얻은 중생이 아무도 없다니 …

근현대 깨달음 논쟁 촉발
한국 불교선 정의 부정확
선종의 본래 성불 의미는
보시·봉사서 진정 발현

그런데, 이 알쏭달쏭한 부처님 말씀이 바로 禪에서 말하는 깨달음, 열반과 일치한다. 어째서 그런가? 중생을 깨달음에 들게 하지만, 실제 완전한 열반을 얻은 중생이 아무도 없다고 한 이 〈금강경〉의 부처님 말씀은 바로 선종에서 말하는 '본래성불(本來成佛)', 본래부처 사상의 근거가 되는 것이다. 즉, 일체 중생이 본래 완전하고 청정하여 깨달음이 완성되어 있기에 부처가 깨달음에 들게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열반을 얻은 중생이란 없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부처님은 무엇을 하는 분인가? 부처님은 일체 중생이 본래 부처의 지혜와 복덕을 다 갖춰져 있는데, 단지 분별망상에 가려져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치고 알려준 분이다. 부처님은 불교의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이 얼마나 좋고 가치가 있는지를 먼저 깨쳤기에 그 깨달음에 대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가서 스스로 깨달아 생사 윤회에서 해탈하여 영원한 행복으로 가라고 안내하는 분이다.

그러니, 이웃종교의 신처럼 부처님을 보게 되면, 불교를 잘 모르는 것이다. 다른 종교에서는 신을 믿어야 신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말하지만, 불교에서 부처는 스스로 깨달아 생사의 괴로움에서 해탈하고 그 길을 알려준 분이나 다른 이를 깨닫게 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이나 예수, 알라는 고유 명사이나 부처는 보통 명사다. 기독교의 신은 유일무이한 절대자이나 불교의 부처는 누구나 될 수 있는 유일무이한 절대자이다. 부처님은 우리 중생이 본래 완전하니 그대로 신과 같은 절대자이고 일체의 지혜와 복덕을 구족해 있다는 것을 깨치고 알려준 분이다.

〈금강경〉의 가르침, 기복이냐 깨달음이냐?

그러나, 우리 중생은 밖으로 믿기는 쉽지만, 깨달음은 쉽지가 않다. 남에게 의지하여 복을 구하고 극락 가는 길은 쉬우나 스스로 복을 짓고 마음을 닦는 깨달음은 쉽지가 않다. 그래서 수보리장로가 우리를 대표하여 부처님께 묻는 것이다.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향해 가는 중생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부처님은 우리에게 밖으로는 무상(無相)으로 보고, 안으로는 무아(無我)를 보라고 말씀하신다. 즉, '내가 있다'는 견해(我相), '내가 사람'이라는 견해(人相), '내가 중생'이라는 견해(衆生相), '영혼이 있다'는 견해(壽者相)를 비우고 머무는 바 없이 살라 한다. 이것이 깨달음의 길이라는 것이다.

남을 돕고 보시 · 봉사할 때에도 머무름 없이(無住相), 집착 없이 보시 · 봉사하라 한다. 우리는 흔히 남을 돕는 보시 · 봉사할 때 어떤 상대적인 대가를 생각하며 한다. 이렇게 하면 복 받기 위해 불사 시주 · 봉사하는 장사고 거래이지 불교에서 말하는 보시 · 봉사는 아니다. 불교의 보시 · 봉사는 대가 없는 조건 없는 머무름 없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면, 그 보시 · 봉사의 공덕은 헤아릴 수 없이 크다. 왜냐하면 '나'라는 분별을 내려놓고 하니 내가 곧 우주 만물과 하나가 되는 무아라 분별과 헤아림이 불가한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앞으로 보시 · 봉사할 때 내가 무아라는 정견을 갖추고 하게 되면, 그 공덕이 무량하고 곧 깨달음으로 가는 수행이 되는 것이다.

반대로 무아의 정견이 없이 보시 · 봉사하면, '내가 있다'는 생각이 일어나 '내가 한 만큼'을 은근히 댓가로 바라게 된다. 이것은 삿된 보시 · 봉사다. 중국의 불심천자로 불리던 양나라 무제가 바로 그런 분이다. 양무제는 절을 2500개나 짓고 탑을 쌓는 불사를 하고 역경과 공양의 보시 공덕을 지어 자신의 만수무강과 황실의 안녕을 빌었다. 불교사에서 양무제만큼 많은 불사를 한 기록을 찾기 어렵다. 그럼에도 양무제는 마음이 늘 초조하고 불안했던 모양이다. 인도에서 달마대사가 동쪽으로 오자 황궁으로 초빙하여 자신의 불사 공덕이 얼마나 되는지를 물었다. '공덕이 없습니다(無功德)'라고 달마대사가 답한다〈조당집〉. 달마대사의 예언인지 양무제의 불사 과보인지 양무제는 말년에 부하 장수의 반란으로 황제의 지위에서 쫓겨나 굶어죽었고, 양나라는 망했다. 어째서 그가 간절히 빌은 황실의 안녕은 어디로 가고 그토록 참혹한 과보를 받았는가? 양무제는 〈금강경〉을 잘못 보고 '내가 있다'는 아상으로 복 받고자 불사를 하니 생사 윤회도 벗어나지 못하고 황제 개인 재산이 아니라 백성의 고혈을 짜내어 불사금으로 충당하였으니 그 과보를 받을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금강경〉 이해, "응당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 난다"

〈금강경〉 전문이 다 중요하지만,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이 "응당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이 난다(應無所住 以生其心)"이다. 선종의 6조 혜능대사도 이 말에 신심이 나서 깨달았다. 그런데 이 경구의 해석이 문제다. 지금 조계종본 〈금강경〉에서는 '마땅히 집착 없이 그 마음을 내어야 한다'고 번역한다. 이렇게 하면, 집착도 있고, 내어야 할 마음도 있다는 양변에서 하는 것이 된다. 성철 스님은 〈백일법문〉에서 이렇게 풀이 하지 말고 "응당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이 난다"고 풀이한다. 우리는 본래 부처님처럼 중도의 마음으로 존재하니 분별망상만 비우면 그 마음이 저절로 나는 것이다. 이것이 선이다.

〈불교인재원 교수〉

"祝 3세 종정 성우 자윤 스님 추대 취임"

제2014-36호 사단법인 대한선불교 원효종 소속

대한 불교 원효종 (관등록번호 26151-0048)

〈수익 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 법인 및 국가기관 등 : 본점〉

종조 원효 성사

1세 종정 혜은 법홍 (열반)
2세 종정 요산 청암 (2013~ 2020)
3세 종정 성우 자윤 (2021~ 현재)

총무원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용당내광로 297-3(부처님 진신사리 봉안도량)
전화 : (052) 238-8010 **팩스** : (052) 238-7010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佛教儀式(범음·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중급과정 (6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다루는 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칭, 관음시식, 구병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함
특수작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함

◈ **모집인원** : 30명(선착순)
◈ **개 강 일** : 2021년 4월 6일(화)
◈ **강의일시** : 매주 화요일, 금요일 오후 5시 ~ 6시 30분(90분) 담임교수 원장직강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7번길 45(낙원동 243-3) 탑공공원 뒷편 ☎ (02)741-0495~6

정진원의 석보상절 이야기 ⑥ 〈석보상절〉과 〈월인천강지곡〉 만남



▶ 한줄요약
〈석보상절〉 3권과 〈월인천강지곡〉 30장부터는 태자의 이름 유래와 가족 관계, 성불 예언들이 담겼다. 또한 아들의 출가를 막기 위한 아버지 정반왕의 부정(父情)도 애틋하다.

'부처 예언' 왕자의 출가 막아라

'싯달타 태자' 탄생

삼십장
대보전(大寶殿)에 모이신 관상가(相師)가 보고 태자께서 출가(出家) 성불(成佛)하실 것을 압니다.
향산(香山)에 사는 아사타(阿私陁) 선인이 태자를 보고 자신의 늙음을 서러워하십니다.

삼십일장
어머님 단명(短命)하시나 (태자) 열 달동안 자라셔서 칠월 보름에 천하(天下)에 태어나셨습니다.
아드님 탄생하시고 (어머님) 이레를 계시다가 사월 보름에 천상(天上)에 오르셨습니다.

삼십이장
바라문 사륜 말씀을 천신(天神)이 좋다하므로 살바실달(薩婆悉達)이 이름이 되시니
아버님 명으로 태자가 하는 절을 천신이 말리시므로 천중천(天中天)이 이름이 되시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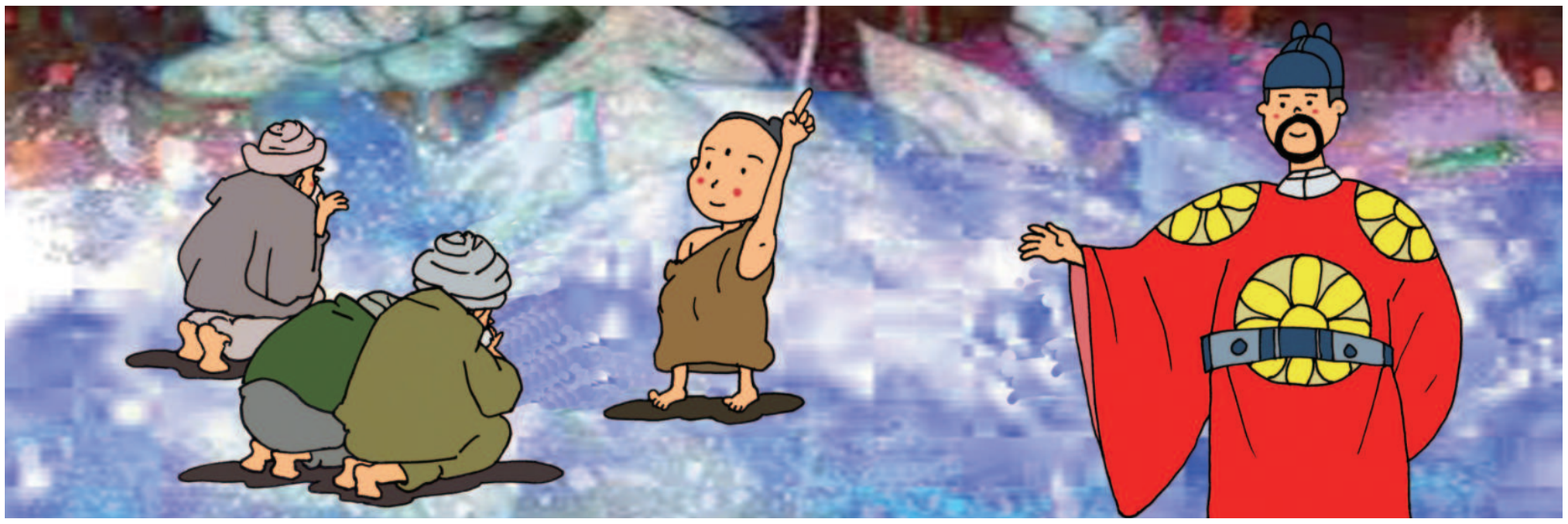


그림 · 강병호

이것이 〈월인천강지곡〉이다. 대부분의 독자들은 그동안 〈석보상절〉이나 〈월인천강지곡〉을 이름으로만 들었을 것이다. 훈민정음을 창제한 후 본격적으로 지어진 유려한 첫 불경의 시 세계이다. '용비어천가' 이후 두 번째이지만 불교 게송으로는 첫 번째이다. 〈석보상절〉 권 3의 시작에 해당되는 싯달타 태자 탄생과 관상가 예언, 마야부인의 세상 하직, 태자의 이름 살바실달과 천중천의 유래를 요약해서 노래하고 있는 부분이 〈월인천강지곡〉 30장부터 32장까지이다. 〈월인천강지곡〉 1장부터 29장은 〈월인석보〉 1권과 2권에서 〈석보상절〉과 합편된 내용으로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다.

아들 수양과 아버지 세종의 훈민정음 산문과 운문으로 이루어진 협업이 1459년 〈월인석보〉로 탄생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석보상절〉 중심의 이야기라서 운문 〈월인천강지곡〉을 게송 형식으로 뒤에 붙였다. 곧 이 순서대로 하면 불교경전의 형식이요 순서를 운문부터 하면 〈월인석보〉다.

싯달타 태자의 출가 막기

왕이 아사 타선인의 말을 듣고 태자가 출가할까 저어(염려)하여 오백명의 청의(靑衣)를 가려내어(골라서) 유모를 따라다니며 여러 가지 방법으로 모시며 놀라고 하셨다.
또 삼시전(三時殿)을 지어 칠보로 꾸몄는데 세 계절에 사실 집이니 봄가을에 사실 집과 여름에 사실 집과 겨울에 사실 집이다.
풍류 잘하는 기녀(伎女) 오백명을 가려내어 서로 번갈아 모시게 하였는데 여기서 기(伎)는 잘한다는 뜻으로 기녀는 풍류 및 여러 가지 재주가 있는 여자이다. 꽃이며 연못이며 갖가지 색깔의 새들을 이루 헤아릴 수 없었다.

태어날 적에 관상가 500명을 전국에서 불러 왕자의 관상을 보게 하던 이야기를 기억할 것이다. 이번에는 시중드는 사람 500명, 다재다능 엔터테이너 기녀 500명을 태자 곁에 둔다. 500의 의미는 무엇일까. 주로 '오백나한,' 비구니의 '오백계', 석가모니 부처님 입멸 후 500년 단위로 다섯 시기 '오오백년' 등이 쓰이고 있지만 〈석보상절〉에서도 '오백 동남동녀', '오백 석가족', '오백권의 책' 등을 볼 수 있다. 우리의 '한 오백년'도 여기서 비롯된 것일까.

이번 글에서도 지금은 거의 사라진 우리말 대잔치가 벌어진다. '저어하다'는 '염려하거나 두려워하다'라는 의미인데 이 두 가지가 잘 버무려진 우리 어휘이다. 단지 염려나 두려움만으로는 성에 안차는 두 어휘가 합쳐진 어감의 되살려 쓰고 싶은 우리말이다.

'기녀(伎女)'도 우리가 흔히 쓰는 '기녀(妓女)'가 아님에 주목할 것. 훈민정음 사전이라고 칭하는 협주에서 '기(伎)'는 '잘 한다'는 뜻으로 풀이하고 있다. 지금으로 치면 만능 엔터테이너정도가 될 것이다. 〈불설태자서응본기경〉에는 '너무 살찌거나 마르지도 않고 키가 크거나 작지도 않으며 너무희거나 검지도 않고 재능이 출중하고 솜씨 있고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하였다.

'삼시전(三時殿)'은 인도의 '건기, 우기, 몬순' 또는 '여름, 겨울, 우기' 등으로 이루어진 세 계절에 맞춘 계절 궁전이라 할 수 있는데 우리 날씨 기준으로 봄 · 가을과 여름 별장, 겨울 별장으로 풀이하였다.

아버지 정반왕이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를 왕자의 출가를 막기 위해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하고 실행에 옮기는지를 볼 수 있는 동시에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대한 〈월인천강지곡〉 33장은 다음과 같다.

삼십삼장
태자의 출가를 관상가(相師)도 사뢰시며 선인(仙人)도 말씀하시니
정반왕이 밤낮으로 걱정(分別)하셨습니다
칠보궁전 꾸미며 오백 기녀(女妓) 가려내어 밤낮으로 태자를 달래셨습니다.

석보상절 3권 시작 부문엔
태자 이름 · 성불 예언 담겨
출가 막기위한 父情 '애잔'

〈월인천강지곡〉에서는 '기녀'가 아니라 '여기(女妓)'로 쓰고 '기(妓)'의 한자도 석보상절과 다르다. 〈석가씨보〉에는 '채녀(婇女)로 나와 있다. 텍스트 비교와 연구가 필요한 지점이다.

그때 태자의 나이가 점점 들거늘 왕이 보관을 만들어 주셨는데 관(冠)은 쓰는 것으로 보관(寶冠)은 보배로 꾸민 관이다. 영락이며 노리개들을 다 갖추어 주시니 나라가 온전히 편안하고 즐거움이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왕자가 무럭무럭 자라 한 살이 되고 두 살이 된다. 아이를 낳고 길러 보았거나 가까이에서 지켜보았다면 '불면 날아갈세라 쥐면 꺼질세라' 하며 애지중지하는 마음이 어떤 것인지 알 것이다. 이모 대애도가 엄마가 되어 잘 키우고 있다지만 친엄마 마야부인을 태어난 지 7일 만에 잃은 아들을 보는 아버지 마음은 어떠했을까.

혹시라도 아들마저 잃지는 않을까. 세상에 둘도 없는 비범한 왕자인 것이 한편 기쁘다가도 출가를 한다는 예언에 전전긍긍, 걱정근심 끊일 날 없는 아버지의 모습이 눈에 선하다. 그 아버지는 자신이 해줄 수 있는 모든 것, 우선 머리에 보배로 만든 보관을 씌워주고 영락과 갖은 장신구로 꾸며 예쁜 궁녀들과 손발이 되어주는 시종들로 가득 채우는 것부터 시작한 것이다.

태자 7세 즉위식과 전륜성왕의 칠보

왕이 태자를 세우시려고 신하를 모아 의논하셔서 2월 여드렛 날 사해(四海, 사방의 바다)의 바닷물을 길려고 하시거늘, 신하들이 바닷물을 머리에 이어다가 왕께 바쳤다.
왕이 태자의 머리에 부으시고 보배로 된 도장을 주시고 북을 쳐서 명령하시기를 '싯달을 태자로 세우라' 하시니 허공에서 팔부가 모두 '좋습니다' 하였다.
그때 칠보(七寶)가 허공에서 다 오니 그 중 금륜보가 사천하에 날아가니 그 나라들이 다 항복하여 왔다. 칠보는 금륜보와 여의주보, 옥녀보, 주장신보, 주병신보, 마보, 상보이다.
한편 왕이 숫양을 모아 궁궐 안에 두시고 태자가 즐기게 하셨는데 태자가 양수레를 타고 동산에도 가시고 삼촌께도 가서 노닐었다.

아버지 정반왕이 왕자가 일곱 살이 되자 태자로 책봉하는 의식을 치른다. 2월 8일 사해의 바닷물을 길어다가 관정의식을 행한다. 신하들이 사방의 바다에서 바닷물을 길어 머리에 이고 왕에게 바친다. 왕은 싯달타 태자의 머리에 붓고, 보배로 된 도장을 주어 왕의 후계자라는 증표를 준다.

북을 쳐서 만천하에 태자가 되었음을 고하니 허공의 팔부신중까지 모두 '좋습니다' 하고 찬탄하였다는 것이다. 팔부신중은 '천 · 용 · 야차 · 건달바 · 아수라 · 가루라 · 긴나라 · 마후라가'를 말하는데 불교의 호법선신이다. 이 내용의 한문은 〈석가씨보(T50, p.90b)〉에 자세히 실려 있다.

'칠보'도 전륜성왕(轉輪聖王)이 가지고 있는 일곱 가지의 보배, 금륜보(金輪寶) · 여의주보(如意珠寶) · 옥녀보(玉女寶) · 주병신보(主兵臣寶) · 주장신보(主藏臣寶) · 상보(象寶) · 마보(馬寶)를 말한다.

여기서 '금륜보'는 수레바퀴가 1천 살인데 보배로 꾸며 광명이 해와 달보다 더하고 이 수레로 임금이 아무 곳이나 가고자 하면 저절로 굴러 잠깐 사이에 천하를 다 돌 수 있는데 이 수레를 본 나라는 항복한다고 한다.

여인을 보배로 치는 '옥녀보'도 눈에 띄는데 '옥과 같은 이상형의 여인으로 몸이 겨울에는 덥고 여름에는 차다. 입에서 청련화 향내가 나며 몸에서 전단 향내가 나고, 음식을 먹어도 자연히 스러져 용변 뒤보기를 하지 않고 여자의 생리 현상이 없다. 머리카락의 길이가 몸과 가지런하며 키가 작지도 크지도 않고 살이 찌지도 여위지도 않았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위에서 본 '기녀'와도 상통한다. 여성을 보배의 일종으로 다루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인간이 생각하는 이상형의 여인상을 형상화한 고대인의 사고방식을 보아주시기 바란다.

한편 태자를 위한 꽃동산을 만들어 즐겁게 놀도록 하였는데 숫양으로 만든 수레를 타고 동산을 돌아다니거나 숙부네 집에도 가서 놀았다는 것이다. '아자바님(작은 아버지)'을 친숙(親叔)이라고 하며 〈불본행집경〉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숙부, 삼촌, 아저씨'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

드디어 이렇게 〈석보상절〉과 〈월인천강지곡〉이 만났다. 〈월인천강지곡〉은 게송의 성격이 크지만 '오백 기녀'에서 같은 단어 다른 한자에서 보듯이 여러 경전에서 가려 뽑아 작성하였다는 '상절'의 의미를 확인하게 되는 것이다.

다음 호는 〈월인천강지곡〉 34장과 스승보다 뛰어난 싯달타 태자의 이야기가 흥미진진하게 전개된다.

〈동국대 세계불교학연구소 연구교수〉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을 복원 해 놓은 책!



지은이 최태규 | 펴낸곳 배문사 | 412쪽

제 1편 치병편
제 2편 치료술
제 3편 모든 질병의 증상, 원인 및 치료법
제 4편 수행편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 民衆醫術 의술

• 당뇨, 고혈압에 간단하게 벗어 나는 법
• 척추,디스크,협착증 및각종질병에서 벗어나 죽을때까지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법을 자세히 수록해 놓았다.

가액 20,000원 배송비 포함
농협 715027-52-064797 예금주 최태규
구입 054)734-1767
민속죽염 www.msjy.co.kr



| 민중의술의 특징 |
① 애초에 병이 나지 않게 한다.
② 의료술이 정말 뛰어나고 완벽하게 낫게 한다. 또한 부작용이 일체 없다.
③ 너무 쉽고 간단 명료하다.(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배운 사람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쉽게 터득할 수 있다.)
④ 돈이 거의 들지 않는다. (면역력을 극대화하므로 자연치유 되도록 하여 치료약을 쓰지 않는다.)
⑤ 나이가 들어도 쉽게 늙지 않는다.

우리몸 막힌혈관을 뻥!뻥! 머리에서 발끝까지
하루 2회 공복에
막힌 혈관을 뻥!뻥! 뚫어 젊어지고 건강해지는 혈관관리
혈통으로 맑은물에 희석해서 마십니다
혈관나이를 젊게하여 100세 건강실현
피가 깨끗해지면 정신도 깨어납니다
010-9003-6767 농협 : 010-9003-6767-29

박원자의 母情佛心 ❼ 불음포교사 지범 스님의 어머니



▶ 한줄 요약
찬불가 '부모은중경'을 부른 불음포교사 지범 스님은 어머니가 직접 사찰로 보내 출가시켰다. 자식 6명을 잇달아 보내고 몸이 약한 막내아들의 단명을 막기위한 선택이었다. 출가 후 방황하던 스님은 잘못된 선택도 하지만, 불효를 깨닫고 불음포교사로 거듭났다.

막내아들 장수 빌며 출가시킨 母情

〈부모은중경〉은 부모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깊은지 그 은혜에 어떻게 보답해야 할 것인지를 설한 불교 경전이다. 부모의 열 가지 은혜를 10장으로 나누어, 잉태의 순간에서부터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까지 자식 걱정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가없는 부모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보은의 방법, 그리고 그 어려움을 설명하고 있다. 이 경전을 읽고 있으면 부모님의 은혜를 모른 채 얼마나 불효하며 살아왔나를 뼈저리게 깨닫게 된다. 자신을 낳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깨우치고 효를 실천하게 하는 효경(孝經)인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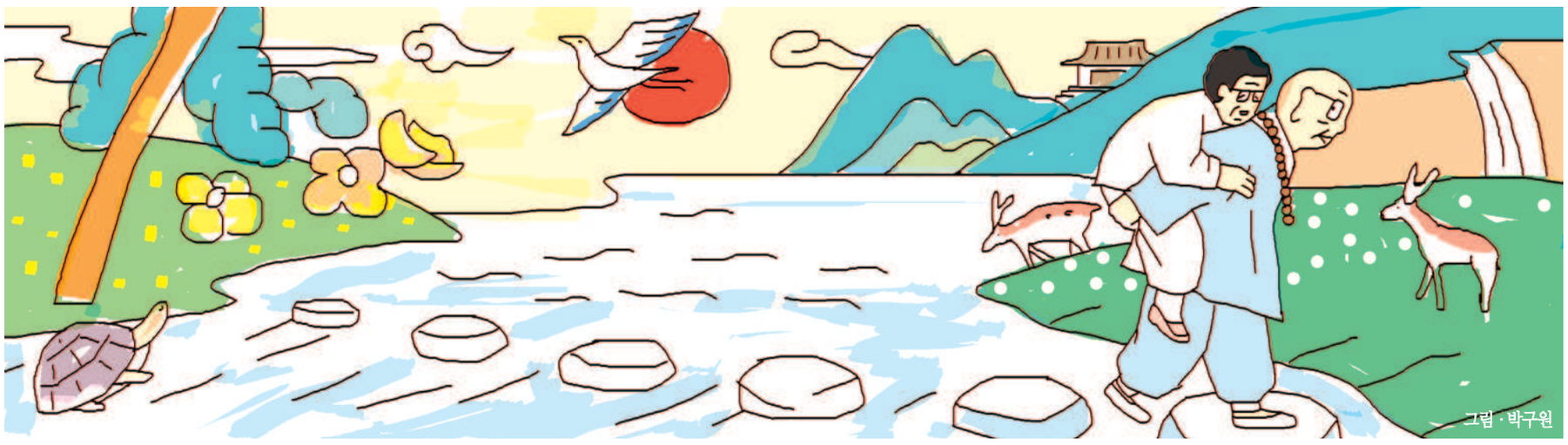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자식이 집을 떠나 길을 나서면
어머니 마음도 타향에 있네
죽어서 영이별도 서러웁거늘
살아서 생이별은 더욱 아파서 흐르는 눈물은 마를 날 없네

자식이 괴로울 땐 대신 하시고 고달픈 육신을 걱정하시네
어머니 높은 연세 백 살이어도 팔순의 그 아들을 걱정하느라
가슴에 한숨은 쉴 날이 없네

-'근심걱정'(조영근 작곡, 부모은중경 中)

노모 한 분이 대극장 한쪽에 앉아 이 노래를 들었다. 생떼 같은 자식 여섯을 저 세상으로 먼저 보내고, 혼신의 힘으로 살려낸 막내아들의 노래가 애절하게 다가왔다. 파란만장했던 지난 팔십 평생의 세월이 파노라마처럼 스쳐지나갔다.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았다. 잠시 후 노래를 다 부른 아들이 한평생 자신을 위해 기도하며 살아온 어머니를 무대로 모셨다. 한복을 곱게 입은 어머니는 천천히 걸어서 무대 중앙에 서서 기다리는 아들 곁으로 다가가 마이크를 건네받았다.

"지금 노래를 부른 여기 지범 스님은 제 막내아들입니다. 어려서 홍역을 호되게 앓았어요. 죽은 줄 알고 이불에 싸서 방 윗목에 두었는데 다음 날 일어나보니 깨어서 울고 있더군요. 그렇게 살아났는데 홍역 후유증 때문인지 말을 몹시 더듬는 아이가 되었어요. 몸도 허약했지요. 여덟 남매 중 가장 아픈 손가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부처님 제자가 되어서 노래를 부르는 스님이 되었어요. 잘난 열 아들 부럽지 않습니다."

제주도 문예회관 대극장을 꽉 채운 1500명의 관객들은 일제히 어머니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객석은 눈물바다가 되었고 박수소리는 좀처럼 그치지 않았다. 아들 스님은 가슴이 먹먹해져 한참이나 다음 노래를 부르지 못했다.

지범 스님은 부모님의 은혜를 설한 〈부모은중경〉을 비롯해 찬불명상곡, 선시명상곡 등을 음반으로 내고 노래를 통해 불음을 전하는 스님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제주도의 조촐한 토굴 불광사에서 어머니를 모시고 살며 효도를 다한 효심 깊은 스님으로도 유명하다.

지범 스님의 어머니는 16살에 백양사 근처 장성으로 시집와서 아들 다섯, 딸 셋을 낳았다. 19살에 첫 아들을 낳은 뒤 늦둥이 막내아들을 40살쯤에 낳았다. 그런데 16살에 서당 훈장을 할 만큼 총명하던 큰 아들이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났다. 뒤이어 자식 둘이 큰아들을 따라갔다. 어린 자식 셋을 잃은 어머니는 망연자실했다. 자식의 단명을 막기 위해 넷째 아들을 출가시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말을 심하게 더듬던 막내아들이 시름시름 앓으며 좀처럼 건강해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놓아두었다가는 남은 자식들도 언제 잃을지 모르겠다는 절박한 마음이 들었다. 백양사의 석산 스님을 찾아갔다.

어머니는 젊을 때부터 백양사에 다니며 만암 노스님을 비롯해 서옹 스님, 석산 스님 등을 모셨다. 면에서는 그래도 알아주는 넉넉한 살림살이를 살았던 터라, 햅쌀이 나오면 수레에 싣고 백양사로 가서 공양을 올리곤 했다.

불사가 있을 때는 화주를 도맡아 했다. 경전을 읽고 '관세음보살' 을 입에 달고 살만큼 신심이 깊었다. 걸인들을 집으로 들여 먹을 것, 입을 것을 챙겨주고, 어려운 이웃을 돌봐주었다. 어머니를 찾는 사람들로 늘 집이 북적일 만큼 덕화가 깊었으나 자식들을 먼저 앞세우는 불행은 막지 못했다.

집안 사정을 잘 알고 있던 석산 스님은 어머니에게 막내아들을 출가시키라고 권했다. 절에 와서 기도하며 살면 단명할 팔자를 면할 수 있다는 스님의 말을 듣고 어머니는 막내아들의 손을 잡고 백양사로 갔다.

"너는 몸이 약하니까 부처님께 귀의해야 오래 살 수 있어."

절에 홀로 남은 13살 막내아들은 절집의 모든 게 낯설고 무서웠다. 첫날부터 수곽의 물소리가 얼마나 크게 들리던지 잠을 잘 수가 없었다. 사흘 만에 절을 나와 산을 넘고 개울을 건너 70리 밖에 있던 집으로 갔더니 어머니가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셨다.

"그럼, 절에서 엄마랑 같이 살자. 너는 절에 있어야 살 수 있어."

자식 6명 잇달아 보낸 어머니
"출가하면 장수한다" 이야기에
13세 막내아들 백양사로 보내

출가한 아들, 방황에 자살 기도
잘못 깨닫고 '부모은중경' 노래
그토록 찾는 부처는 '엄마'였다

다시 아들의 손을 잡고 백양사로 갔다. 막내아들이 마음을 잡을 때까지 함께 있어줄 요량이었다. 어머니가 곁에 있자 아들은 마음을 잡고 행자생활을 시작했다. 어머니는 아들이 염불을 익히며 책을 읽는 것을 바라보며 오로지 자식의 수명장수를 위해 기도했다.

그런데 어머니의 불행은 그치지 않았다. 단명을 막아보려고 출가시켰던 넷째 아들이 학교를 다니다가 그만 병을 얻어 17살에 죽은 것이다. 좀처럼 아픔을 내색하지 않은 채 모든 게 다 자신의 업이라며 부처님께 의지해 참회기도를 했던 어머니였으나, 이번에는 슬픔을 이기지 못한 채 자주 담뱃대를 찾았다. 다행히 막내아들이 수계하고 신심을 일으키더니 통도사 강원으로 공부를 하러 떠났다. 어머니는 집으로 돌아갔다.

지범 스님이 강원을 졸업하고 범어사, 대흥사 등 제방에서 정진한 다음 제대하고 돌아와 보니 어머니의 삶은 여전히 고단해보였다. 먼저 떠난 자식들이 남기고 간 아이들 등 여덟 명의 식솔을 책임지고 있었다. 차마 어머니를 두고 떠날 수가 없었다. 감당하기엔 현실이 너무 벅차게 느껴졌다. 수행자의 길에서 바라본 성불도 멀어보였다. 머리는 남보다 앞서 가는데 말은 늘 눌변이었던 상처는 출가해서도 나아지지 않았다. 우울감이 깊어져가던 어느 날,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나쁜 마음을 먹었다. 한 웅큼의 약을 입에 털어 넣은 것이다.

"깨어나 보니 병원이었어요.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어머니가 보이는데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들 딸 여섯을 가슴에 묻은 채 고단한 삶을 묵묵히 참아내며 막내아들인 제가 단명할까봐 얼마나 많은 나날을 가슴 졸이며 기도하셨던가를 생각하니 불효막심한 일을 저질렀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수행하면서 그토록 찾으려 몸부림쳤던 '부처'가 다름 아닌 어머니였다. 자신을 낳아 기르고 수행자가 되게 해 목숨을 건지게 한 어머니가 바로 관세음보살이었다. 부모 없는 손주들을 키우고 집을 나간 남편이 밖에서 얻은 자식들까지 기르고 있던 어머니가 바로 지장보살이었다.

전화위복이라고 했던가. 어머니를 보며 분연히 일어섰다. 이제 내가 어머니를 살리리라. 어머니를 모시고 제주도 절로 갔다. 그곳에 살며 신도들을 교화하며 백양사, 대흥사, 선운사 등 큰 절에 가서 탁발을 해다 어머니 대신 조카들을 키웠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조카 중 하나가 말썽을 피워 혼쭐을 낸 것이 큰 화근이 되었다. 충격을 받은 조카가 의식불명의 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한 것이다. 어머니는 울었고, 스님의 등에서는 식은땀이 흘렀다. 깨어나지 않으면 그보다 더 불행한 일은 없을 터였다. 어머니의 기도 덕이었을까, 다행히 조카는 사흘 만에 깨어났다. 마음이 더 갈 수 밖에 없었던 15살의 조카에게 스님이 물었다.

"너, 절에 가서 살래?"

아들에 이어 손자를 출가시킬 어머니의 운명이었던가. 따라나선 조카를 사형에게 출가시켰다. 조카는 절에 들어가자마자 잠재해있던 재능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2년 만에 검정고시로 중고등학교 과정을 마치더니 동국대를 졸업하고 미국으로 유학, 하버드대학에서 종교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지금 예일대 종교학과 교수로 있으면서 한국불교를 서구에 전하고 있는 일미 스님이 그 조카다. 어머니는 손자가 출가해서 출중한 수행자로 성장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무척 기뻐하셨다.

어머니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불효를 참회했던 지범 스님은 부모님의 은혜를 노래한 〈부모은중경〉을 노래로 부르기 시작했다. 그것이 어머니의 은혜를 갚는 길이라고 생각했다. 선시를 명상곡으로 만들어 앨범을 발표하고 노래했다. 노래를 부르면서부터 오랫동안 자신을 괴롭혀왔던 눌변증세에서도 벗어났다. 부처님께 음성 공양을 올리며 포교할 수 있는 재능을 준 어머니께도 감사하게 되었다. 어렸을 때부터 말을 더듬다가도 노래만 부르면 물 흐르듯 막힘없이 낭랑한 소리로 바뀌곤 했던 음악적 재능이 어머니의 오랜 기도로 꽃을 피운 것이다.

어머니도 아들 스님이 부르는 노래를 듣고 깊이 박혀있던 삶의 상처를 치유했다. 무겁고 두터운 업이 벗겨지는 것처럼 시원했다. 아들 스님의 발걸음은 교도소, 군부대, 산사음악회 등으로 이어지며,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고 부모님의 은혜를 일깨웠다. 백양사 방장 서옹 스님은 '불음의 맑은 바람이 온 누리에 퍼지다' 라는 뜻을 담은 휘호 '청풍잡지(淸風迊地)' 를 써주며, 음성 포교가 포교의 첨단이라고 격려했다.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기도는 영원하다고 했던가. 어머니의 기도는 멈추지 않았다. 앉으나 서나 자나 깨나 염주를 돌리며 '관세음보살, 아미타불' 을 부르던 어머니는 잠자리에 들어 주무실 때도 손가락을 움직였다. 여든이 넘어서는 무명 손수건을 만들어 이웃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했다. 한 땀 한 땀 손수건 가장자리를 꿰매며 '우리 막내아들 스님 수명 장수하게 해주소' 하고 기도했다.

말년에 〈아미타경〉을 독송하며 아미타불을 부르던 어머니는 91살에 눈을 감으셨다. 제주도에서 주는 '장한 어머니상' 을 받고 곡기를 끊은 지 10일 만에 아들 스님의 어깨에 기대어 처음 왔던 그곳으로 돌아갔다.

"생명을 탄생시키고 길러주신 우리들 부모님은 다 부처님입니다. 자식들이 영원히 섬겨야 할 대상이자 종교 그 자체죠."

지범 스님의 마지막 말씀을 들으면서 반문해보았다. 누군가의 어머니로 불리는 나는 과연 '부처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걸까. 자식을 위한 기도에 인색했던 내가 부끄러울 뿐이다.

〈작가〉

영혼의 세계 빙의

◉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 (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영가,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 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천광수련원 TEL 043) 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참 법문 알려면 실교에 들어와야



지안 스님의 〈법화경〉 강설

⑫ 핵심법문 일불승

비유하건대 5백 유순이나 되는 험악하고 무서운 길이 있고 이 길을 지나 진귀한 보배가 많은 곳이 있었다. 한 도사가 이 길의 사정을 잘 알고 여러 사람 이끌고 인도하여 이 험난한 길을 지나 보배가 있는 곳을 가는 중이었다. 3백 유순쯤 이르렀을 때 따라오던 무리들이 싫증을 내어 도사에게 말했다.

"우리는 몹시 지치고 피곤하여 더 이상 못 가겠습니다. 길은 아직 멀고 험하니 이제 그만 돌아갈까 합니다."

도사가 이 말을 듣고 말했다.

"이 사람들아, 어찌 큰 보배를 포기하고 돌아가려 하는가?"

도사가 신통력으로 한 성(城)을 만들고 여러 사람들에게 말했다.

"그대들은 걱정하지 말고 돌아가지 말라. 여기 좋은 성이 있으니 이 성에 들어간다면 더없이 편안하며, 마음대로 쉴 수 있다."

이때 지친 사람들이 크게 기뻐해 일찍이 없던 일이라 감탄하고, '우리 이제 걱정 없이 마음껏 편안함을 누릴 수 있게 됐노라.' 하여 신통으로 만든 성에 들어가 이미 험한 길을 벗어나 편안함을 얻었다 생각하며, 더 이상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였느니라. 그때 도사는 이 사람들이 이미 휴식을 취했기에 다시 싫증이 없어진 것을 알고, 곧 화성을 없애고 그들에게 말했다.

"그대들, 다시 가자. 보배 있는 곳 가까우니라. 먼저 있던 큰 성은 내가 신통력으로 만든 바이니, 그대들을 잠시 쉬게 하기 위함이었느니라."

"비구들이여, 여래도 또한 이와 같아서, 이제 그대들을 위해 대도사(大導師)가 되어 온갖 번뇌의 그 험난한 길이 멀고멀어, 응당 가고 벗어나게 해야 할 것인 줄 알고 있지만, 중생이 일불승(一佛乘)만 듣는다면 부처님을 뵈려고 하지 않으며 가까이도 하려고 하지도 않고 곧 생각하기를 '부처의 길이 너무 머니 오래오래 고생하여야 가게 되리라.' 하고 가지 않고 물러나려 할 것이므로, 부처가 이들의 마음이 약하고 열등한 것을 알아, 방편으로 중도에서 쉬도록 해 주기 위해 두 가지 열반을 설하느니라."

'화성유품'의 중요한 내용인 이 대목은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여 보배가 있는 곳으로 가던 길잡이(導師)가 도중에 대중이 길을 포기하고 돌아가려 하자 신통력으로 방편을 써서 성(城)을 하나 만든다. 이 성이 이 품의 이름인 화성(化城)이다. 지친 사람들을 쉬게 하고 피로를 풀도록 하여 보배 있는 곳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이다. '보배가 있는 곳(寶所)'은 〈법화경〉의 핵심 법문인 일불승을 상징하는 말이다. 이 일불승은 멀고 험난한 과정을 지나야 하므로 중생들이 포기할까봐 부처님이 우선 소승의 열반을 먼저 설했으나 이는 진정한 열반이 아니라는 것이다.

두 가지 열반이란 유여열반(有餘涅槃)과 무여열반(無餘涅槃)이다. 유여열반이란 번뇌는 끊었으나 과거 숙생의 업보가 남아 육신이 유위법(有爲法)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로 성문들의 열반을 두고 말해온 것으로, 아직 완전한 열반을 증득하지 못하고 남아 있는 것이 있다는 뜻으로 '유여'라는 말을 붙였다. 무여열반은 완전한 열반이란 뜻으로 번뇌도 끊어지고 육신의 장애가 생기지 않는 열반으로 오온(五蘊)이 완전히 공해진 경지를 증득하고 제법이 모두 공해진 법공(法空)의 경지를 얻은 상태의 열반을 말한다. 소승과 대승의 차이를 소승은 아공(我空)만을 증득하고 법공을 증득하지 못했다고 보며, 대승은 아공과 법공을 다 증득했다고 본다. 대승불교가 일어나고부터 소승의 열반을 '유여열반', 대승의 열반을 '무여열반'이라 하였다. 〈법화경〉에서는 소승의 열반이 화성(化城)에 들어가 휴식을 취하는 정도로 보며, 보배가 있는 곳이 일불승으로 이것이 완전한 열반이라는 것이다. 처음부터 일불승을 설하지 않고 소승법을 설한 것은 중생의 근기가 성숙되기를 기다렸다는 것이다. 그러니 권교(權敎)의 방편설이 실교(實敎)의 참 법문이 아니니 부처님의 참된 법문을 알기 위해서는 실교에 들어와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법화경〉의 대의를 회권입실(會權入實)이라고도 하였다. 이는 곧 삼승법(三乘法)을 회통(會通)하여 일불승에 돌아간다는 회삼승귀일승(會三乘歸一乘)이라는 말과 같은 뜻이다.

〈반야불교연구원장〉

조화로운 공동체 생활 위한 규범



임상희의 계율이야기

⑫ 출가계

칠중계(七衆戒) 가운데 출가자가 지켜야 하는 계는 출가자의 연령과 성별에 의해 구별된다. 즉, 사미와 사미니는 10계(戒), 식차마나는 6법계(法戒), 비구는 250계, 비구니는 348계를 지켜야 한다. 언뜻 보기에 출가자일지라도 사미와 사미니에게는 재가자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의 종교적 실천을 요구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10계는 8재계가 확장된 것으로 내용상 열 번째인 '금이나 은을 받지 않겠다[離金銀寶物]'는 항목만 추가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8재계는 재일(齋日)에만 지키는 주기적인 계이지만, 10계는 늘 지켜야 하는 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특히 범행(梵行)의 실천은 재가자에게는 권고사항이지만, 출가자에게는 종교적 의무이다. 재가자에게는 가족생활을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지만, 출가자에게는 감각적 행위를 절제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불교교단의 예비 구성원인 사미와 사미니에게는 가족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감각적 행위에 탐닉하지 않는 독신생활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불교교단의 정식 구성원인 비구와 비구니가 지켜야 할 계를 구족계라고도 하는데, 사실 〈율장(律藏)〉에 따라 계조(戒條)의 차이가 있다. 비구와 비구니가 지켜야 할 계를 각각 〈팔리율〉에서는 227계와 311계, 〈사분율〉에서는 250계와 348계, 〈오분율〉에서는 251계와 380계, 〈십송율〉에서는 263계와 354계, 〈마하승기율〉에서는 218계와 290계, 〈근본설일체유부율〉에서는 249계와 358계로 전하고 있다. 그렇지만 그 내용에는 큰 차이가 없으며, 벌칙이 명시되어 있다.

재가자와 달리 출가자는 세간과 분리된 공간인 승원(僧院)에서 공동체 생활을 한다. 이런 까닭에 출가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규칙이 제정될 수밖에 없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 제재(制裁)를 받는다. 벌칙은 여덟 종류로 나누어진다. ①바라이법(波羅夷法)은 교단에서 추방하는 것이다. ②승잔법(僧殘法)은 엿새 동안 따로 거주한 후에 스무 명의 승가(僧伽) 앞에서 참회하는 것이다. ③부정법(不定法)은 신뢰할 만한 신자의 증언을 기다려 벌칙이 결정되는 것이다. ④사타법(捨墮法)은 사유물의 위반에 관한 것으로, 사유물은 교단에 몰수되고 세 명의 승려 앞에서 참회하는 것이다. ⑤단타법(單墮法)은 세 명의 승려 앞에서 참회하는 것이다. ⑥회과법(悔過法)은 한 명의 상좌(上座) 앞에서 참회하는 것이다. ⑦중학법(衆學法)은 한 사람의 승려 앞에서, 혹은 마음속으로 참회하는 것이다. ⑧멸쟁법(滅諍法)은 교단에 다툼을 일으킬 경우의 해결법이다.

또 죄의 성격이나 동기에 따라 다섯 종류로 나누거나 일곱 종류로 나누기도 하는데, 이것을 '오편칠취(五篇七聚)'라고 한다. 오편(五篇)은 바라이(波羅夷), 승잔(僧殘), 바일제(波逸提), 바라제제사니(波羅提提舍尼), 돌길라(突吉羅)이다. 이 가운데 바일제는 사타법과 단타법에 해당하고, 바라제제사니는 회과법에 해당하고, 돌길라는 중학법에 해당한다. 칠취(七聚)는 오편에 투란차(偸蘭遮)를 더하고, 돌길라를 행위의 종류에 따라 악작(惡作)과 악설(惡說)로 나눈 것이다. 새로 추가된 투란차는 불도(佛道)의 수행을 막는 것으로서 바라이와 승잔을 범하기 직전의 죄이다.

특히 중학법은 〈사분율〉과 〈오분율〉에서 백 가지를 열거하고 있어서 백중학(百衆學)이라고 한다. 이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저지르기 쉬운 실수를 경계하는 것이다. 또 칠취에서는 악작과 악설로 나누었듯이, 늘 신업(身業)과 구업(口業)으로 인한 잘못을 경계해야 한다. 따라서 출가계는 독신의 출가자가 조화로운 공동체 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규범으로 볼 수 있다.

〈동국대 불교대학 강사〉



심재관 교수의 싯다르타 시대의 문화읽기

⑫ 결혼관습

변형돼 묘사된 석가족 '사촌혼'

마하방사(Māhavaṃsa)에 그려지는 싯다르타의 집안 관계는 특이하면서도 전형적이다. 그의 아버지 숫도다나(Suddhodana)의 경우를 보면, 그는 아버지 시하하누(Sihahanu)의 여동생의 딸들, 즉 고모의 두 딸과 결혼한다. 이들이 마야(Māyā)와 빠자빠띠(Pajāpatī)이다. 그런데, 싯다르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싯다르타는 고모의 딸이었던 밧다깟자나(Bhaddakaccānā) 즉 야소다라와 결혼한다. 여자 측에서 보자면, 외사촌과 결혼하는 것이고, 남자 측에서 보자면, 사촌과 결혼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인류학에서는 교차사촌혼(cross-cousin marriage)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결혼형태는 남인도 지역 특히 따밀 지역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나타나며 현재까지 이어진다.

그렇다면 정말 싯다르타 당시 북인도에서 이러한 형태의 사촌간 결혼이 존재했을까. 그의 아버지 숫도다나와 싯다르타는 사촌과 결혼한 것이 사실일까. 이에 대해 20세기 초반의 학자들은 불경의 내용들을 거의 아무런 비판 없이 그대로 받아들인 채, 샤카족들은 사촌간의 결혼관습이 있었노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따라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성씨(姓氏)가 같게 보이는 이유도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마하방사 뿐만 아니라 자따까에도 이러한 결혼형태는 똑같이 그려진다. 어머니 쪽의 삼촌 딸과 결혼하거나, 아버지 쪽의 고모 아들과 결혼하거나 하는 관습이 매우 흔하게 묘사된다. 예를 들어, 아사세(Ajātasattu)왕의 경우를 보자. 그는 아버지 빔비사라왕과 코살라데비 사이에서 태어난다. 아사세왕은 후에 성장하여 아버지 빔비사라 왕을 살해하는데, 그 슬픔으로 어머니 코살라데비까지 죽게 된다. 그러자, 코살라데비의 오빠였던 파세나디 왕은 결혼지참금으로 빔비사라왕에게 주었던 도시 바라나시(Kāsi)를 다시 회수한다. 이 문제로 외삼촌과 조카 사이였던 파세나디 왕과 아사세 왕은 전쟁에 돌입한다. 몇 번의 전쟁에서 패배한 파세나디 왕은 한 불교 장로의 우연한 도움으로 마침내 전쟁에서 승리한다. 그는 아사세 왕을 생포하게 되고, 그를 용서하게 된다. 그리고 자신의 딸 바지라(Vajirā)를 내어주고 결혼까지 시킨다. 즉 아사세 왕도 외삼촌의 딸과 결혼한 경우였다. 아사세 왕의 경우뿐만 아니라, 잘 알려진 베산타라 자따까(Vessantara Jātaka)에 등장하는 주인공 베산타라(Vessantara)와 마디(Maddī)도 마찬가지다. 부인 마디는 베산타라의 외사촌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기록만으로 고대 북인도에서 교차사촌혼이 유행했다고 생각하면 큰 오해다. 실제로 빨리어 문헌이 아니라, 불교 등장 전후의 다른 산스크리트 문헌을 보면 사촌간의 결혼은 거의 등장하지 않기 때문이다. 베다 문헌에는 거의 등장하지 않을 뿐 아니라 후대의 율법서에서는 사촌간의 결혼이 금지되기도 한다. 인도-아리아인들의 결혼은 같은 씨족(gotra)간의 결혼을 엄격히 금지했기 때문이다. 후대 바가바뜨 뿌라나(Bhagavat purāṇa)처럼 신화적 문헌 속에 사촌간의 결혼이 묘사되는 경우가 있지만, 이런 경우는 남인도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렇다면 왜 유독 빨리어 경전 속에는 이러한 사촌간의 결혼이 빈번히 그려지고 있는 것일까. 교차사촌혼이 묘사되는 빨리어 문헌들은 대체로 빨리어 주석서이거나 자따까가 대부분이다. 다시 말해서 이 문헌들은 싯다르타가 살던 북인도의 관습을 묘사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다. 이 문헌들은 남인도의 결혼관습을 그리고 있다. 즉, 남부에서 제작된 이야기라는 뜻이다. 마하방사에 그려지고 있는 싯다르타 집안의 사촌혼 관습도 마찬가지다. 그것은 싯다르타 가문의 계보를 설명하면서 남인도나 스리랑카의 전통적인 결혼관습을 은연중에 보여준다. 반대의 예를 들자면, 아리야수라(Āryaśūra)가 쓴 동일한 산스크리트 베산타라 자따까에는 베산타라와 마디가 사촌간의 결혼으로 그려지지 않는다. 교차사촌혼은 대표적인 드라비다(Dravida)인들의 결혼형태로 주로 지금의 타밀(Tamil) 지역이나 스리랑카를 중심으로 한 남부지역의 전형적인 관습이다. 남방지역 불교인들의 손을 거쳐 후대 빨리어 문헌이 작성되면서 북인도의 결혼관습이 변형되어 묘사된 것이다.

〈상지대 교양대학 교수〉

지구환경도 살리고 살림비용도 절감하는

em 친환경세제 EM 선물세트

EM이란? Effective Micro-organisms(유용 미생물군)의 약자. 일본 류큐 대학의 히가테루오 교수가 개발했으며, 자연계에 존재하는 많은 미생물 중에서 효모균, 유산균, 광합성 세균 등 유익한 미생물 수십 종을 조합, 배양한 것.

기대 이상의 세척력 우리에게 유익한 미생물로 이뤄진 EM원액(Effective Micro-organisms 유용 미생물군)을 발효시키면 환경과 건강을 모두 챙길 수 있는 친환경 세제

종합 사각선물 A 세트



● EM발효 덴탈케어 플러스 ● EM발효 안심주방세제 ● EM고농축 세탁세제 ● EM비누세트(미네랄비누, 쪽비누, 두발&바디워시 비누) ● 스킨비바(미용비누) ● EM주방비누 ● EM세탁비누 / 49,000원

종합 사각선물 B 세트



● EM발효 덴탈케어 플러스 ● EM발효 안심주방세제 ● EM고농축 세탁세제 ● EM비누세트(미네랄비누, 쪽비누, 두발&바디워시 비누) ● 스킨비바(미용비누) ● EM주방비누 ● EM세탁비누 ● EM쌀뜨물 발효액 / 40,000원

EM스마트 발효기



EM(유용한 미생물)을 이용하여 쌀뜨물을 계절에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발효할 수 있습니다. 200L 발효기(48만원) /120L발효기(40만원) / 30L발효기(32만원) ＊부가세별도



EM원액 : 1박스(1L×15EA) 120,000원

판매처 : 마하몰 02-732-1520 ※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www.mahamall.co.kr

접 수 매주 월(月)~수(水)요일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
팩스 02)737-0698 또는 이메일 jabi2018@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4㎝ : 4만원/회 ◆가로 9㎝ : 8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생활 안내

1334호 | 17 | 전면광고

적으면 적은 대로 베풀고 중간 정도면 또 그대로 베풀며 많으면 많은 대로 베풀라.



부처님 말씀 읽기 -《본생경》에서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무형문화재 천수바라·작법무 연수원
1. 천수바라, 오공양 작법무
2. 다게작법, 운심게 작법무
3. 염불, 사물, 사주 명리, 회심곡
• 특별반 / 개인 3개월 과정 모집 •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
사 찰 행 사 전 문
(사)대한문화전통불교조계종
총무 010-5511-7000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점안,살풀이,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011-850-0176

불 교 용 품
고 가 매 입 전 문
법당철거, 퇴불 정성을 다해 모셔드립니다. 소, 대불 탱화, 개금, 석불, 동불, 특수불 취급, 수미단 제작
이조불교재활용센타
010-9177-7842

사찰건축전문
문화재기능962호
대웅전 한옥별장
요사채 재실
누각 산신각
펜션(육송 나무목재만 사용)
원명 010-4300-9104

양 도 공 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개인사암, 단독법인 가능함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법인,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0-5412-8040 법광

수강생 모집
• 기문둔갑, 실전해단풀이 특강
• 속성 5개월 과정 • 한문 몰라도 됨
• 원하시는 시간에 무료 청강 가능
• 스님 환영합니다
수강료(5개월) 기문둔갑 150만원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용지로95
스님 010-7589-5950

수강생 모집(그림)
•수업 : 산수화, 풍속화, 달마도, 동자승
•장소 : 서울 인사동 미술 교육관 (종로오피스텔 4층 401호)
•매주 목요일 정오12시~6시 [월 4일]
•수강료 : 월10만원
그림에 소질이 없어도 관심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그릴 수 있습니다. 연락바랍니다.
청곡 이한동 화백
010-3747-8692

★검 색★
GDN 손도사
최고 운명정보, 무료검색
문의 : 010-5105-5000

49재.천도재.점안의식대행
(바라,작법무,화청,살풀이,불교무용)
의식은 불교의 꽃, 40년 수행공덕으로
귀 사찰의 행사를 성취해 드리겠습니다.
문의 010-3263-6544
010-5270-8260

커피황토집짓기 영업사원모집
기능성 황토벽돌 집 커피전문상가, 숯황토벽돌 맥반석황토벽돌, 한방황토벽돌 홍송나무황토벽돌, 편백황토벽돌 해송황토벽돌, 35%착수금 나머지는 20년분납 0.3%이자
한식과학원 043-745-3332
영동군용산면율리길155-28

• • •
부전스님 모십니다.
• • •
010-2078-9595

• • •
비구니 스님이나 여자보살을 모십니다
경치로나 절터로 대한민국에서 최고입니다
인천시 강화군 내가면 황청리 853-1 태산불교
• • •
010-4751-1667

• • •
스님 모심
착한마음, 어진마음, 부처님마음, 마음을 지닌 비구니스님과 인연이 있으면 암자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신명을 모신 보살님도 환영합니다.
• • •
010-3132-9666

• • •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 • •
010-2064-0572

비구·남여 행자·비구니스님 종도모집
•준비서류 : 수계증및 법계증
•주민등록등본 1통
•입종등록신청서(총무원비치)
•승려증 발급, 수계증 발급
•주지 임명장 발급
사단법인 참승조계종 010-5353-3936

아주 특수한
기도법을 전수 (스님에 한함)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74-1 3층 백선사 대주 합장
☎ 02)963-1148 / 011-741-0867

관상(손금) 성철사주비법 전수
•얼굴만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송사재판, 암, 질병, 유산낙태, 교통사고, 이혼수, 부도, 사업실패, 묘터물찬곳, 조상영가, 승진운
•스님, 무속인, 일반인, 철학인, 공무원, 불교 무용 배울분
•출장 개인지도, 관상학, 손금, 성명학, 사주, 명리, 구성학, 타로, 조상영가 봅는법
상담문의 010-4014-8822

명리·육효강좌
(연결카페http://cafe.naver.com/baikamsa 백암역리원)
영가반 ○ 초보에서 실천완성
명리·육효학 ○ 초보반 : 명리·육효 기초가 전혀없는 왕초보
○ 실전반 : 명리·육효 기초 완성자
백암역리원 02)597-1101
오시는 곳 : 사당역 8, 9번출구 먹거리골목200M

현대불교신문
구독 나눔 캠페인
현대불교신문에는 부처님의 따뜻한 자비의 말씀이 있습니다.
도반과 함께 구독하여 나눔의 기쁨을 누려보세요.
02-2004-8212

향로용 유리알 향운정주(수정모사)



▣ 상품명 : 향운정주 (수정모사)
▣ 재 질 : 크리스탈 유리알
▣ 용 도 : 법당향로, 개인향로, 법당 조화용 화병, 크리스탈 꽃병 등등 다양한 곳에 반영구적으로 사용가능
▣ 규 격 : 1kg : 13 x 15 x 3.5cm (종이박스) / 5kg : 14 x 15.5 x 18.5cm (종이박스)
▣ 특별공급가격 : 1kg : 10,000원 (배송비 별도)
5kg 1BOX (1kg X 5ea) : 50,000원/세트 (배송비 포함)
▣ 구입처 : 전화 : 02-732-1520 , 팩스 : 02-737-0696
▣ 계 좌 :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주)현대불교신문사
▣ 판매원 : 마하몰 (www.mahamall.co.kr) / 제조원 : ㈜바이넥스 / 원산지 : 대한민국

상품특성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맑고 투명한 작은 구슬로 향로에 사용하던 쌀 등 곡식이나 모래, 흙 등을 대체한 제품입니다.
● 모양과 빛이 아름다워 보는 이로 하여금 정결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을 갖게 합니다.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향이 잘 꽂아지고 부러지지 않으며, 물로 씻어 정갈하게 대를 물려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일정 온도에서 원적외선이 방출되어 인체에도 유익합니다.
● 조화용 화병이나 크리스탈 꽃병에 사용하시면 투명한 빛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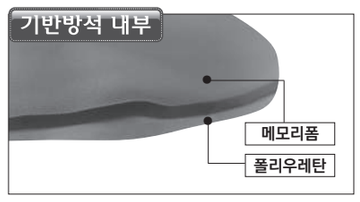
※ 향로에 들어가는 향로용 유리알 수량 (스텐 향로 기준)

종류		크기			수량
향로(스텐)	特大	지름: 20cm	높이: 18.5cm	내부: 13cm	5kg
향로(스텐)	大	지름: 17.5cm	높이: 18.5cm	내부: 11.5cm	3kg
향로(스텐)	中	지름: 13.5cm	높이: 16cm	내부: 10cm	1.5kg
향로(스텐)	小	지름: 12cm	높이: 12.5cm	내부: 8.5cm	1kg

세계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cm
세로	32cm
높이(뒷면)	8cm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주문은 마하몰 TEL 02)732-1520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좋은인연 대출안내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최장30년
· 설정비,감정료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법인,단체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이사장 이강욱 ☎ 010-9842-4200
상 무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달마선의 참마음(眞心)으로 금강경을 풀이하다!

깨달음은
공개된 부처를 비밀스레 찾은 신앙이 아니라
밝혀지지 않은 자성불을 구현하여
제3의 생명으로 거듭남에 있음으로
남을 따르거나 흉내를 내어서는 안 된다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개정판!
~~19,000~~ → 16,150원
이창우 역주 | 46배판 | 양장 | 573쪽

현대불교신문사
구입문의 : 02)732-1520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알기쉬운
구 단 구 궁 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40-0863341 저작권등록번호 C-2011-003967
서비스표등록번호 41-0213393



저작권자, 상표권자 법화 종헌(속명 정흥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 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구단구궁법주」로서 자비의 방편학문인「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누가? 몇일?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내용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기판(답안지 5분) 작성시에는 과거, 미래 십년도 한눈에 일년 열두달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날짜별, 시간별도 마찬가지이다.)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귀신뽑아 조상천도 연계** ◆교수 이수 후 즉시 영업 활동 가능함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수강료	◆스 님 – 오십만원(책값 별도) ◆일반인 – 일백만원(책값 별도) ◆우체국 : 601401-01-001843(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부산 ❷,❸호선 덕천역 2번 출구 20m

구단구궁법 교실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198 (구포동 147-3) 3층 전층
cafe.daum.net/9dan9gung 전화 010-7415-0803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접 수 매주 월(月)~수(水)요일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
팩스 02)737-0698 또는 이메일 jabi2018@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5㎝: 5만원/회 ◆가로 10㎝: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정보

1334호 | 18 | 전면광고

사람을 믿으려 하지 말고 법을 믿어라.
사람은 변함이 있지만 법은 변함이 없다.



부처님 말씀 읽기 - 《잡아함경》에서

광 진 불 사

◎위치 : 서울시
◎대지 : 300평
◎건평 : 100평,외
◎시내중심, 공원옆, 주차가
◎매가 : 40억

◎위치 : 경남
◎종교용지 : 약1800평
◎건평 : 40평외전각
◎종교시설, 요양시설추천
◎매가 : 8억

*40년세월,신용과,믿음으로일합니다. 출장상담받습니다. ***사찰관련 컨설팅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합니다.**
*신행상담, 사찰순례, 채권상담,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사찰(급)안내

●위치 : 부산광역시 동래구
●부지 : 1천평, 건물 : 400평
●가액 : 39억
● 佛敎의現代化,佛法의生活化,布敎의大衆化 ● 불교컨벤션 ● 명상힐링캠프 ● 불교복지시설 ● 대한민국 불교의 미래를 선도(先導) 하려는 스님, 보살님, 거사님께 적극 추천합니다.

010-2822-1080

사 찰 안 내

●위치 : 전남 나주 동강면
●대지 230평(임대)
●법당 20평. 산신각 10평
●요사채 2동. 범종각
●영산강 전망이 좋음
●가액 : 3500만원

010-7637-1250

사찰(급)안내

●위치 : 경주시 시래동. 정남향
●대지 194평. 건평 43평
●법당. 칠성. 산신. 용왕. 나반. 방
친견실. 공양간. 샤워실. 화장실
●외부시설 : 용왕연못. 탑. 남여화장실 등
●시설일체. 최고입지요건 갖춘 암자
●가액 : 2억 3천만원(급양도)
●사전 전화요망

010-5427-3699

포교원안내

●위치 : 대구시 동구 지하철
역세권 대도로접3층
●약 50평, 도시가스, 옥상사용,
주변주차시설양호
●보증금 500만, 월 45만
●시설비 1300

010-7337-5956

사 찰 안 내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용문산 자연휴양림 초입 소재(양평역 5분거리)
●대지 : 300평 현대식 건물
●건물 : 대웅전 30평 1동 / 카페, 공양간 30평 / 요사채 23평 2층 건물 1동 종무소, 객방 13평 1동
●가액 : 10억(답사 후 인연되는 분 절충)
●법회 즉시 가능합니다.

010-4813-2381

전원주택&토굴 안내

●위치 : 충북 보은군 내북면 성암가고로 36-32
●총1,024평 (계획관리지구)
●대지 285평, 건평 30평, 20평 강의실 10평
●지하수150m 약수물, CCTV, 화목,기름보일러 (전기판넬), 탁트인 들판, 뒤에는 산, 청정지역 명당터임
●기운 좋은 토굴, 접근성좋은 도로, 주차시설 넓음
●가액 : 답사 후 결정

010-5458-2258

사 찰 안 내

●위치: 경남 창원시 마산근교
●법당: 55평 ●요사: 75평
●대지: 500평 ●임야: 4천평
※지하150m 석수 1일
200톤이상 생산가능
●가액 : 11억(대출 2억5천 포함)

010-4547-0023

토 지 안 내

●위치 : 화순군 도암면
우치리
●절터적합, 남향, 긴동굴
있음, 계곡접합
●총17,470평, 전900평,
산16,570평
●가액 5억5천만원
●상담환영

010-3618-6200

사 찰 안 내

●위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대지 : 335평
●대웅전.삼존불.목불.목후
불탱화.목조단청12평.
요사채.방3개.목조단청19평.
공양간.방1개.7평목조단청.
화장실 남.여(목조단청)
●상담 후 결정

010-3206-6622

사 찰 안 내

●위치: 북한산(삼각산) 자락에 위치한 절임
●건물 : 법당, 산신각, 평수 : 600평
●가액 : 5억 5천(절충가능)
●조건: 양도시 모든 기물포함(불상,불화등기타)
●주변 주차시설 양호함, 도시가스, 상수도임
●대중교통 편리함(도보로 5분 거리임)
●위치는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쪽

010-3128-2399

지리산 작은암자

●위치 : 경남 하동 적량면
작은암자
●인법당, 별채 두동
황토방 하나
●가액 : 2억 5천

010-6770-8163

멋진토굴(급)안내

●위치 : 경북 김천시내 인근
●대지 : 약 717평방(약 217평)
●멋진 2층건물 1층 방5개 기도처(2층 방3개, 거실, 주방, 밖 휴게공간), 마당, 잔디, 조경좋음 주차공간 확보
●가액 : 3억에서 5천 빼드림(조정가능)
●사정상 시세이하로 계산함

010-3007-5611

사 찰 안 내

●위치 :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부지 : 1648평(대지 927평)
●대웅전(25평). 지장전(15평).
독성각(5평). 목조건물
●요사채 : 조립식 건물 25평.
황토방 7평. 5평
●납골당 5000개 가능
●가액 : 12억(가격절충)

010-5421-1536

사찰 안 내

●위치 : 전남 해남군 소재
●대지 : 350평
●구조 : 철근 콘크리트조
●건물 : 약 80평
(법당, 요사채)
●가액 : 4억 8천만원

010-7710-8334

포 교 원 안 내

◈◈◈
동대문구 왕산로
60평 11년차
◈◈◈

010-3714-1018

토 지 안 내

●위치 : 경북 김천시 구성면
용호리
●835번지 300평, 836번지
130평 총 430평(샘물나옴)
●포크레인 작업 완료(3년전)
●암자, 산소, 별장(자리적당)
●급양도 3천7백5십만원

010-7628-9997

포 교 원 안 내

●위치 : 경기도 여주시 흥천면
-흥천이포IC 5Km
(이천 여주 광주 시내 25분거리)
●대지299평, 건물 2채 주차시
설, 목조 한옥집(24평), 법당
사무실 방 주방 화장실, 요사
채(18평), 방2개 화장실2 주방
●가액 5억5천만원(절충)

010-6355-6468

사찰 (급) 안내

●위치 :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도심속 산중사찰(위치 좋음)
●법당, 삼존불, 탱화 완벽, 산신각, 현대식 요사채
●양도가 : 9,500만원(지상권), (년간 도지세 20만원)
●조용하고 경치좋은 암자, 토굴기도 비구 비구니 스님, 역학하시는 스님, 보살 최적의 장소

010-7677-8385

사 찰 안 내

●위치 : 제천시 중심가
●대지 약 80평
●법당 15평
한옥요사채 30평
●수행과 포교 적합한 곳
●가액 : 1억 5천만원
●몸만 오시면 됩니다.

010-8478-3234

사찰 안 내

●위치 : 경북 성주군 수륜면
계정4길 23
●부지102평, 구조 2층 법당
15평, 생활관 1층 33평,
화장실2평
●가액 : 1억

010-4156-3779

사찰(급) 안내

●위치 : 서울시 세검정 (광화문
까지 자동차 10분)
●대지 84평 / 국유지 70평 (사용가)
법당 / 요사채 76평
●양도시 모든 기물포함(불상,불화등)
●가액 13억 5천만원

010-6325-5112

◈ 사암등록 및 입종안내 ◈

▣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각1통
· 승적원부 및 증빙서류(총무부 비치)
· 사·암 전경, 내·외부사진
· 반명함사진 6매(장삼, 대가사수함)

▣ 상세한 내용 총무부 문의
· 제출한 서류일체 반환불가
· 세무서 고유번호 발급서류
· 사암등록증 및 승려증 발급
· 제반서류 총무부 비치

T. 033-532-1773 / F. 033-532-1774 불교대승 조계종 총무원

무료灸쑥뜸 수행정진하는 사부대중님께 쑥뜸공양 올림합니다.
장소 : 강원동해 향운암 상담 : 010-2873-3446

인 천 사 찰 안 내

●위치 :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만수소방소 건너편) ●평수 : 단독건물, 지하1층, 지상3층, 건평 110여평 ●건물 : 지하1층:창고형, 1층:공양간(방3개, 화장실) 2층:방3, 화장실, 3층:법당, 3존불, 지장불상, 칠성, 산신 ●가액 : 3억 5천 (시세이하, 급양도함, 사찰연력 40여년)
●답사 하실분만 사전전화 요망

010-8360-8259

옛날 전통 암자 안내

●뒤는 산, 앞은 면사무소, 학교, 시장,
●대웅전, 지장전, 삼성각, 요사채, 목조단청
●약 1천평(등기 900평, 종교용지)
●은행대출 1억5천 안고 2억4천9백만, 합계 3억9천9백만(공원같은 곳)
●충북 괴산-동서울 약 1시간 30분 가량

010-3535-7606

사 찰 안 내

●위치 : 경남 진주시내
●대지:100평 ●건물:법당25평.요사채 30평(방3개.큰다락방.다용도실.공양간.화장실2개) ●해수 관세음보살 입불상(7m) ●부처님 진신사리3과(기증) ●가액:3억(대출6천만원 포함)절충가능 ●전.월세가능
●시내지만 조용하고 즉시 법회가능

010-2678-3499

◑ 입 종 안 내 ◐

입종 및 사찰 등록(제출서류)
① 주민등록등본 1통, 호적등본 1통
② 승적원부(본종 소정양식 : 총무부 비치)
③ 승적증빙서류(타 종단 승려는 승려증 사본)
④ 사찰 전경, 내 • 외부 사진 각 1부
⑤ 반 명함 사진 5매(대가사를 수한 사진)

참고사항
① 각종 구비서류는 최근 3개월 내 발행된 것으로 제출
② 제출된 서류는 반환치 않음

총본산 : 충남 부여군 세도면 세도북로 149번길 34 마강사
전화 041)832-4153 **팩스** 041)833-4154

우리불교조계종 총무원 Tel 010-6478-1569

현대불교신문
후원 나눔 캠페인

법보시 후원은 최상의 공덕입니다.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세요.

02-2004-8212



불자의 긍지 |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 전국 지사 안내

구독신청 기사제보 광고게재

항상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사명	지사장	연락처	
대구지사	손문철	T 053-768-8008	H 010-2813-8008
부산지사	이도경	T 051-405-9402	H 010-5640-8883
광주전남지사	양행선	T 062-512-5003	H 010-2629-1508
전북지사	조동제	T 063-910-8977	H 010-8642-7733
경남지사	성낙두	T 051-512-1761	H 010-3860-7008
영주지국	박영애	T 054-634-3429	H 010-9373-3778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

놀라운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석 염주 · 합장주 · 지키미

희담석이란? 희담석(稀潭石 / Batu Hitam)은 대규모의 화산 폭발로 인해 지구 깊숙이 묻혀 있던 무기물들이 용암과 함께 분출된 후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단단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현지 주민들은 이 돌을 옛부터 치료용으로 사용 해왔는데, 그 중에서도 성분 분석과 원적외선 파동 검사를 통해 인체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여 실용화 한 것이 바로 【희담석】입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부를 만큼 생명체에게 유익하며, 방출되는 원적외선의 질과 양은 타 제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납니다. 따라서 세포의 활성화를 통한 최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희담석 합장주(12mm) 판매가 : 12,000원 ➡ 10,000원
- 남자와 여성분들의 손목에 맞추어져 있음.
- 재질 : ABS, 희담석 50%
▪ 팔목이 늘 빠근한 분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앉아 있는 운동이 부족한 불자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희담석 지키미 판매가 : 20,000원
희담석 지키미는 놀라운 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 원석을 휴대하기 간편하도록 제작한 제품입니다.
평상시 주머니에 넣어 다니거나, 틈나는 대로 특정한 통증 부위에 사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희담석108염주(8mm) 판매가 : 39,600원 ➡ 35,000원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수행증진을!!
구성 : 희담석 108염주
크기 : 직경 8mm "희담석 8mm염주는 차걸이용으로도 아주 좋습니다."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불교문화상품 전문몰 마하몰 (http://www.mahamall.co.kr)

구매전화 1688-9099 / (02)732-1520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용수 스님의 5분 명상

인간 관계 갈등서 기억할 것들



* 결론 내리지 마세요. 마음의 습관은 알아내고 정리하고 결론을 지으려고 해요. 상황을 딱 딱하게 만들면 더 힘들어져요.
* 기다려 보세요. 반응하는 마음으로 말하면 갈등을 키워요. 올라오는 마음을 잠시 접고 기다려 보세요. 생각하지 말고 조금만 기다리면 상황이 더 명확하게 보여요. 시간이 약이에요.
*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세요. '사실인가 아닌가' 보다 '도움이 될까 상처가 될까' 생각하고 말을 해야 합니다. 갈등이 있을 때는 상대방의 잘못만 크게 보여요. 그럴 때 말하면 상처가 되고 갈등이 커져요.
* 옳다는 생각을 버리세요.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말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도록 하세요. 편을 가르지 말고 상생의 해결책을 찾으세요.
* 상처를 소화하세요. 상처는 기꺼이 받으면 복이 되고 어쩔 수 없이 받으면 해가 됩니다.
* 봐주세요. 좋은 인간관계의 핵심은 봐주는 겁니다. 끝없이 봐줘야 합니다. 인간관계에서 해결 할 게 없어요. 갈등만 없으면 돼요. 갈등은 '이렇다 저렇다' 하는 생각이에요. 생각으로 구체화하지 않으면 돼요.



김종미 교수의 차와 사람을 잇다

⑥ 백호은침

백호은침, 미인 속눈썹에 내린 하얀 눈송이

무심히 차통을 개봉했는데 폭포처럼 밀려오는 향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찻잎을 바라보며 어떤 복을 지었길래 이리 귀한 차인연을 주시나 무한감사를 드렸습니다. '논어'에 공자가 소(韶)라는 음악을 듣고는 삼개월 동안 고기 맛을 잃었다는 고사가 있는데, 저는 차의 향기를 대하고는 세상 근심을 잊었습니다.

차의 향을 맡고 차를 음미하는 행위는 차라는 존재와 차를 마시는 존재가 전면적으로 마주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차의 향기는 코로만 맡는 것이 아닙니다. 눈으로도 맡고 귀로도 맡고 피부로도 맡고 감촉으로도 맡지요. 차의 향기는 온몸으로 맡습니다. 살아있는 존재가 살아있는 차를 만나는 것입니다.

이 차를 처음 만났을 때 그 향기란… 꽃과 나무들이 진한 향기가 아니라 아주 옅은 향기, 오래 머문 향기가 아니라 슬쩍 슬쩍 스쳐 지나간 여린 향기, 그런데 너무 높고 깊은 산속이라서, 꽃과 나무가 수천 수백 종이라서, 수천 수백 종의 여린 향기가 겹겹이 겹쳐지다보니 진해진 그런 맑은 향기… 아침 이슬, 바람 내음, 새의 날개짓, 하늘에 떠가는 구름, 천연 원시림의 숲내음 이런 만가지 향기가 다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자성어를 만들었는데 백곡만향이라고요, 백가지 계곡에 만가지 향이 들어있는 차이다, 백곡(百谷) 만향(萬香)을 품은 맑음이 있는 차이다, 맑은데 향기롭고 담백한데 존재감을 드러내는 그런 깊음이 있는 차이다. 그래서 이 차를 소개할 때 제가 항상 앞에 붙이는 말이 있습니다.

"나를 무릎 꿇린 차이다."

저를 무릎 꿇린 차는 바로 "대백호은침"입니다. 백호은침은 백차 중의 최상 등급 차입니다. 백차는 하얀 차, 화이트 티라고 해요. 불을 거치지 않았다 해서 백차라고도 하고, 흰 솜털이 찻잎에 가득 덮여있다 그래서 백차라고도 합니다.

백호은침(白毫銀針)은 '하얀 솜털이 보송한 은빛 바늘'이란 뜻입니다. 차의 이름이 예사롭지 않지요? 영어이름은 White Tip Silver Needle인데요, 팁(tip)은 새싹을 말합니다. 팁이 많을수록 프리미엄 차이지요. 백호은침은 오로지 팁으로만 만듭니다. 팁을 한자로는 싹 아(芽)라고 합니다. 차나무의 찻잎은 처음 싹이 났을 때에는 또르르 말려 있거든요. 잎으로 펴지기 전의 싹만을 따서 차를 만들면 차의 모양이 마치 바늘처럼 가늘고 뾰족하며 살짝 휜 모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기 솜털처럼 차싹 표면에는 하얀 솜털이 빼곡하게 덮여있지요.



백호은침차

백호은침, 백차 중 최상 등급
잎으로 펴지기 전의 싹만으로
'백곡 만향' 품은 맑음 있는 차

모든 차가 다 그렇지만 백호은침은 더욱 더 원료가 중요합니다. 찻잎을 통풍이 잘 되는 그늘에 펼쳐 말리고, 문화(文火)라고 해서 뭉근한 열로 찻잎의 수분을 증발하는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찻잎이 좋지 않으면 차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찻잎이 크고 토실토실하고 표면에 솜털이 많은 차나무 품종으로 만듭니다. 또한 차의 수분만을 조절해서 차를 만드는 제다법도 쉬운 것은 아닙니다. 잘못 만들면 또르르 말린 찻잎의 겉표면은 보송보송 하지만 찻잎의 속은 수분이 과다하게 남아있어서 차가 쉽게 변질될 우려가 있습니다. 백호은침은 '1년이면 차, 3년이면 보약, 7년이면 보물' 이 되는 차이기 때문에 제대로 잘 만든 차를 저축해야 합니다.

백호은침의 원산지는 복건성 복정 (푸 성 푸딩) 과 복건성 정화(푸 성 정허)입니다. 복건성 복정의 차는 북로은침이라고 부르고 복건성 정화의 차는 남로은침이라고 부릅니다. 저를 무릎 꿇린 차는 백호은침 중에서도 윈난 대엽종으로 만든 '대백호은침' 입니다. 찻잎이 크면 영양소가 더욱 농축되어 있기 때문에 윈난성 대엽종 차나무가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 대백호은침은 윈난 경곡 고죽산의 나무 수령 500년 고차수 봄 첫 싹으로만 만든 차입니다. 이른 봄에 차의 첫 싹만을 사람 손으로 하나하나 따는 일도 대단한 정성이 필요한 일인데, 하물며 차나무가 천연원시림의 오백년 고차수라하니 그 귀함이 가히 상상이 되겠는지요.

백호은침을 우릴 때는 투명한 유리개완이 어울립니다. 왜 그런 퀴즈 있잖아요. 잘 다듬은 나무막대기를 주고 어느 쪽이 뿌리이고 어느 쪽이 가지 끝인지 알아맞히는 퀴즈요, 백호은침은 약 3센티 정도 길이에 뾰족한 모습이어서 마른 찻잎을 보면 위 아래를 구분할 수 없는데, 90-95도씨 물에 우리면 줄기 쪽은 아래로 향하고 잎 쪽은 위로 향해서 찻잎들이 똑바로 일어섭니다. 이것을 찻잎이 춤을 춘다 해서 차무(茶舞)라고 합니다. 투명한 개완에 찻잎이 춤추는 것을 감상하면서 찻잎이 1/3정도 일어섰을 때 1포, 1/2정도 일어섰을 때 2포, 3/4 일어섰을 때 3포 이렇게 농도를 가늠하며 차를 마시면 즐겁습니다.

1930년대 이태준 작가의 '황진이'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실크로 옷을 해입고 온갖 보석으로 장식한 여인들 사이에 오롯이 한 여인이 있었다. 하얀 저고리에 옥색 치마 장신구라고는 옥가락지 하나뿐인 그녀가, 달빛에 빛나는 배꽃처럼 군계일학으로 빛나더라.' 청초하고 단아하고 담백한데 좌중을 압도하는 한국미인의 기품을 생각하면 꼭 백호은침이 떠오릅니다. 초생달처럼 살짝 휜 은침의 모습이 미인의 속눈썹처럼 보입니다. 백호는 속눈썹에 내려앉은 하얀 눈송이. 파르르 떨리는 눈동자를 바라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지요? 너무 맑아서 내가 고요할 때는 백 가지 계곡에 만 가지 향이 나지만 내가 시끄러울 때는 밍숭맹숭하기가 맹물과 같아서 마음을 테스트할 수 있는 차이기도 한, 그런 차가 바로 미인차 라고도 부르는 백호은침입니다.

〈잇다it茶 대표〉

현대불교신문
구독안내
02-2004-8200
신문을 구독하시면 생활안내 · 불자정보
(사찰, 포교당 양도및 기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불교의 현대화 — 시대의 요구를 수용하고 삶의 보편적 가치를 올곧게 지탱하는 힘
불교의 생활화 — 생활속의 지혜와 자비로 꽃피는 가르침
불교의 세계화 — 국경과 인종을 초월한 모든 인간, 모든 생명의 행복한 삶

kakao Ch 카카오톡 채널에서 현대불교신문을 검색하세요!
NAVER 검색창에 현대불교신문 을 쳐보세요

탈 종 공 고

• 사찰명 : 구천사
• 주 지 : 혜경 (속명 : 김희수)
• 주 소 : 전북 임실군 성수면 오봉1길 60-14

위 사찰과 위 본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31일

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법하

승가전통 건강활력
마가목(원탕)


허산 대진스님
(용문산 참나선원)

강원도에는 옛부터 전해오는 속설에 노인이 마가목 지팡이를 짚으면 굽은 허리가 펴지고 산삼 캐는 심마니가 산에 갈 때는 꼭 마가목 지팡이를 짚고 가야 기운이 난다는 신령한 나무로서 지금도 승가의 선원에서 참선수도하는 스님들은 기력을 돋우기 위해 마가목 차를 드시고 있으며 산승이 비법을 전수받아 진귀한 마가목과 약초로 맑고 향기롭게 정성껏 달여서 (2개월분 60봉, 두 재 분량, 한박스) 요청에 의해 보내드립니다.

■ KBS1,2 TV 건강하게삽시다, 무엇이든물어보세요, 내고향 스페셜, MBC TV 고향이 좋다. 방영
■ 2019.10.31.(목) KBS1 저녁 7시 40분 한국인의 밥상 설악산「마가목」방영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위하여
마 가 목(원탕)

※ 계절이 바뀌면서 체질변화로 인해 항상 피로하고 노곤하며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활력이 생깁니다.
※ 시주하시는 불자님의 요청에만 보시합니다.

문의 010-9049-2848 (공휴일·야간전화 금지)
• 농협 : 227027-51-090791 (예금주 : 남궁성균)

마음책 다시 읽기 부처님의 감정수업 마음을 알면 우울이 보인다 1 우울한 감정 이유

▶ 한줄 요약
한계 스트레스를 녹이는 방법을 체득하라.

반복된 무력감, 우울로 이어진다



저는 정신과 의사로서 불교정신치료를 하는 사람입니다. 정신과 의사로서 정신적인 고통을 겪는 사람들을 치료하던 중 불교의 정신 치료적 가능성을 발견하고서 오랫동안 불교공부와 수행을 한 끝에 불교가 훌륭한 정신치료 체계임을 깨닫고 불교로써 정신적인 문제를 치료하고 있습니다. 물론 필요한 경우 약물을 사용합니다.

저는 불교에서 우울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설명한 다음, 우울을 치료하는 불교적 방법을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풀어가기에 앞서 우울이란 무엇이고 지금까지 서양의 정신분석이나 정신치료, 정신의학에서 우울을 어떻게 봐 왔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울'은 영어 'Depression'을 우리말로 옮긴 것입니다. 이 말이 우리 사회에서 언제부터 사용됐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만 언젠가부터 이 말이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우울이란 신체적, 정신적으로 에너지가 저하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분이 우울해지면 의욕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식욕이 떨어지거나 반대로 지나치게 식욕이 올라가기도 하고, 잠이 오지 않거나 반대로 지나치게 잠이 많이 오기도 합니다. 무력감에 빠져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생각도 잘 나지 않고, 계속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자신의 무가치성에 대해 골몰하게 됩니다. 정신의학적으로 우울이라고 말하려면 이러한 증상이 2주는 지속되어야 합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잠시 부정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2주가 넘는 긴 시간 동안 지속되면 우리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병으로 자리 잡습니다.

정신의학적으로 우울증에 대한 진단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울증의 필수적인 증상은 최소 2주 동안의 우울한 기분 또는 대부분의 활동에서 흥미나 즐거움의 상실입니다. 또한 이러한 필수 증상 외에 식욕 및 체중의 변화, 정신운동성 초조나 지체, 피로감, 무가치감이나 죄책감, 사고력 및 집중력 감소, 자살사고 또는 시도 중에서 네 가지 이상의 증상이 최소한 2주 이상 나타나야 합니다. 이때는 병원에 가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꼭 상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이런 우울증은 왜 일어나는 것일까요? 우울증의 원인은 우울증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먼저 정신의학에서는 우울증이 심리사회적 스트레스, 유전적 요인, 신경생화학적인 요인 등으로 일어난다고 봅니다.

스트레스가 될 수 있는 생활사건과 우울증이 서로 관계가 있다는 것은 많은 임상가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생활사건 만으로도 우울증이 온다고 주장을 하지만, 대개는 우울증 발병의 유발인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여러 학자의 주장입니다. 심리사회적 스트레스만으로 우울증이 발생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스트레스는 우울증 소인이 있는 사람에게 우울증을 발생하게 하고 우울증 재발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의 생활사건 중 우울증을 유발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상실입니다. 가까운 사람의 죽음이라던지 재물의 상실, 직장 상실 또는 그 사람 나름대로 중요하다고 여기는 무언가의 상실 등을 말합니다. 상실의 개인적 의미는 표면에 드러난 상황과 다를 때가 있습니다. 가령 같이 살던 여동생이 시집을 간다는 사실은 겉으로는 축복해 줄 만한 일이지만 그 동생에게 모든 것을 의지하고 있던 언니에게는 그것이 큰 상실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재물의 상실이 그 사람의 죄악감을 감소시켜 주는 구실을 할 때는 상실로서의 의미가 없습니다.

유전적 요인을 보면 지금까지의 가족 연구 및 쌍생아 연구, 입양연구의 결과 우울증 발생에 유전적 요인이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쌍생아 연구결과 우울중의 유전율은 40~50%에 이르며 가족연구결과 구성원 중에 우울증을 경험한 사람이 있는 가족이 그렇지 않은 가족보다 직계가족의 평생 유병율이 2~3배 정도 높습니다.

신경 생화학적 요인을 보면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 도파민과 같은 신경전달 물질이 우울증 발생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중 세로토닌 기능 이상이 우울증과 가장 연관이 깊습니다. 우울증 환자는 세로토닌 활성도가 보통사람보다 낮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대표적 항우울제가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라는 사실이 명확한 증거입니다. 세로토닌과 우울증의 병인론에 관한 구체적인 신경생화학적 기전들이 활발한 연구를 통해 밝혀지고 있습니다. 노르에피네프린이나 도파민에 대한 연구결과도 이들 물질과 우울증의 연관성을 잘 보여줍니다. 지속적인 스트레스에 노출될 경우 노르에피네프린의 신경 전달이 감소하며 이는 무기력, 무쾌감증, 성적 욕구 감소 등을 일으킵니다. 뉴런에서 노르에피네프린을 고갈시키는 레세르핀 같은 물질들이 우울증을 일으키며, 노르에피네프린을 분해하는 단가아민산화효소를 억제하는 약물이 항우울 효과가 있다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도파민의 경우 중간피질 경로와 변연계 경로에서 낮아진 도파민 활성이 우울증 환자의 인지, 운동, 쾌락 관련 장애를 일으키며, 실제로 우울증 환자의 뇌척수액에서 도파민 대사체인 호모바닐린산의 농도가 감소되어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 도파민 같은 신경전달물질 외에도 신경호르몬도 우울증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 **2주 이상의 즐거움 상실이 우울증 초기현상 판단근거 혐오자극 회피의 노력에도 자극이 지속되면 우울발생**

한편 정신분석에서는 리비도가 부여된 대상을 향한 공격 욕망을 자아가 위험한 것으로 받아들임으로써 발생하는 내적 갈등이 우울증을 유발한다고 보았습니다. 프로이트는 우울증을 정신성적 발달 단계 중 대상 선택 이전에 나타나는 구강-함입 단계와 연관지어 설명했지만 동시에 초자아의 형성이나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해소 초기에 비롯되는 더 복잡한 심리발달 단계와 연관된 죄책감, 자기비하, 자기처벌로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애착이론을 발달시킨 볼비는 불안한 애착관계와 강박적인 자기관계를 가진 사람이 우울증에 취약하다고 말했습니다.

인지치료의 발달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아론 백은 인지삼제, 정보처리의 오류, 부정적 자기 스키마를 우울증의 세 가지 핵심요소로 설정했습니다. 인지삼제는 자기 자신과 세상, 미래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해석, 기대와 기억을 말합니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우울증의 기분, 행동, 신체증상에 영향을 줍니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은 환자의 잘못된 정보처리에 의해 형성됩니다. 실제로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 사건도 부정적인 측면만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선택적 집중, 특정한 나쁜 측면을 일반화하는 과일반화, 나쁜 정보를 과장하고 좋은 정보는 축소하는 과장 및 축소와 같은 정보처리의 오류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부정적 자기 스키마는 평소 잠재해 있다가 환자가 스트레스 상황에 놓였을 때 활성화되어 지속적으로 왜곡된 정보처리를 유도하고 이에 따라 부정적 인지가 쌓여 우울증의 여러 증상을 유발합니다. 마지막으로 행동이론에서는 동물 실험을 통해 얻은 결과로 우울증의 발생과정을 설명합니다. 실험동물이 회피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고 지속적으로 혐오 자극을 가하면 처음에는 자극으로부터 벗어나려고 노력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상황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포기하게 되고, 자신의 노력이 결과에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학습하게 됩니다. 이렇게 학습된 실험동물은 다른 환경에 놓여도 혐오 자극을 피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게 됩니다. 이를 '학습된 무력감 모델'이라고 하는데, 이 가설을 우울증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여러 번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고 힘든 일을 계속 피하지 못하면 그는 스스로 조절이 불가능하다는 생각에 아무런 행동도 못하고 우울 증상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불교에서는 우울을 어떻게 볼까요? 사실 우울은 불교에서 정확이 어떤 것이라고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신 불교는 인간의 정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교에서 인간의 정신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살펴보면, 우울이라는 감정이 인간 정신의 어느 영역에 있고 그것의 본질 및 문제 해결법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인간의 존재가 오온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봅니다. 오온은 색온, 수온, 상온, 행온, 식온입니다. 인간은 물질과 정신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중 색온은 물질, 즉 몸이고, 수온 상온 행온 식온은 정신입니다. 정신을 다시 세분해서 보면 수온은 느낌으로 즐겁거나, 괴롭거나,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항상 대상에 가 있습니다. 그 대상의 맛을 아는 것을 느낌이라고 합니다. 그 맛이 맛있으면 즐겁고, 맛이 없으면 괴롭고, 덤덤하면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습니다.

불교에서 감정이란 오온 가운데 수온과 행온에 넣을 수 있습니다. 먼저 수온인 이유는, 수온이 느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감정이 행온일까요? 감정에는 좋아하여 당기고 싫어하여 밀어내고 하는 요소가 들어 있는데, 우리가 무언가를 좋아하고 싫어하는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행온이기 때문입니다.

공동저자 : 김정호(덕성여대 심리학과 교수)
서광 스님, 전현수(정신과 전문의)
〈불광출판사 펴냄〉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
www.btn.co.kr
함께 행복해요
세상을 바꾸는 동행同幸
BTN 붓다회
동참문의 1855-0108
BTN붓다회 동참문의 1855-0108 | olleh 233번 tv 305번 U+TV 275번 skylife 181번 지역 케이블 문의 : 02)3270-3300



대행 스님

실험하고 체험하면서 당당하게 생활할 수 있는 자유인이 되라

(지난 호에 이어서)

그런데 그 컴퓨터와 탐지기, 즉 컴퓨터는 과거를 짊어지고 나온 겁니다. 과거에 살던 것이 모두 입력이 돼 가지고 나온 자동 컴퓨터입니다, 지금 여러분 속에. 그게 아니라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발생이 되나요? 악도 선도 속상하는 것도 또 머리가 틔는 것도 전부 거기서 나오는 거니깐요. 사는 대로 입력이 돼 있죠. 자기가 아는 것이 그대로 입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묘한 법이죠. 묘한 법이라고 할 수밖에요.

그래서 그 다섯 가지가 여러분한테 다 주어져 있어요. 여러분이 알아듣기 쉽게 어떻게 말을 해 드려야 이것이 증명이 되나 하고 이렇게 저렇게 비유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이 자동 기계를 굴리려면 따로이 이 오신통이 돌아가는 바깥에서야만이 이걸 굴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 우린 그대로 바깥에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나오는 대로 안에서 일어나는 거 바깥에서 오는 거, 이것이 바깥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안에서 일어나는 것도 아닌, 자기가 그대로 한생각을 이렇게 하느냐 저렇게 하느냐에 따라서 컴퓨터에 입력이 되는 겁니다.

내가 잠자코 있는 동안에 생각을 좀 해 보세요, 어떤가? 자동적으로 그렇게 돼 있다는 거요. 그래서 심봉이라는 것은 그대로, 누진(漏盡)이 레이더망이라면 레이더망을 받친 심봉은 그 오신통과 레이더망과 같이 전부 굴려도 이거는 움쭉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손가락을 하나 들어 보이시고) 하늘을 받쳐, 천지를 받친 바로 평발로써 받친, 뭐라고 그럴까? 불기둥이라고 그럴까? 불은 하나지 둘이 아니니까. 물도 하나듯이 말이에요. 물은 흘러가는 것, 흘러 도는 걸 말하고 불은 움죽거리지 않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진리는 돌고 돌아 불기둥은 하늘을 받치고 움쭉도 안 한다. 변화가 없고 그대로 밝아 있다. 그대로 넉넉하고.

그러니 거기에 붙어서 돌아가도 움쭉을 안 해도 항상 이렇게 돌아요. 우리 마음이 넉넉하면 심봉이 돌아가는 것이 녹이 안 슬고 착착 돌아갑니다. 기름이 주어지니까. 넉넉한 마음은 기름을 주는 거와 같다 이겁니다. 심봉에 기름을 주는 거와 같아요. 그리고 넉넉지 못한 사람, 소견으로 마음을 쓰는 사람은 이게 자꾸 돌리질 못하기 때문에 녹이 슬어. 그리고 빡빡해. 잘 돌아가질 않아요. 그와 같은 거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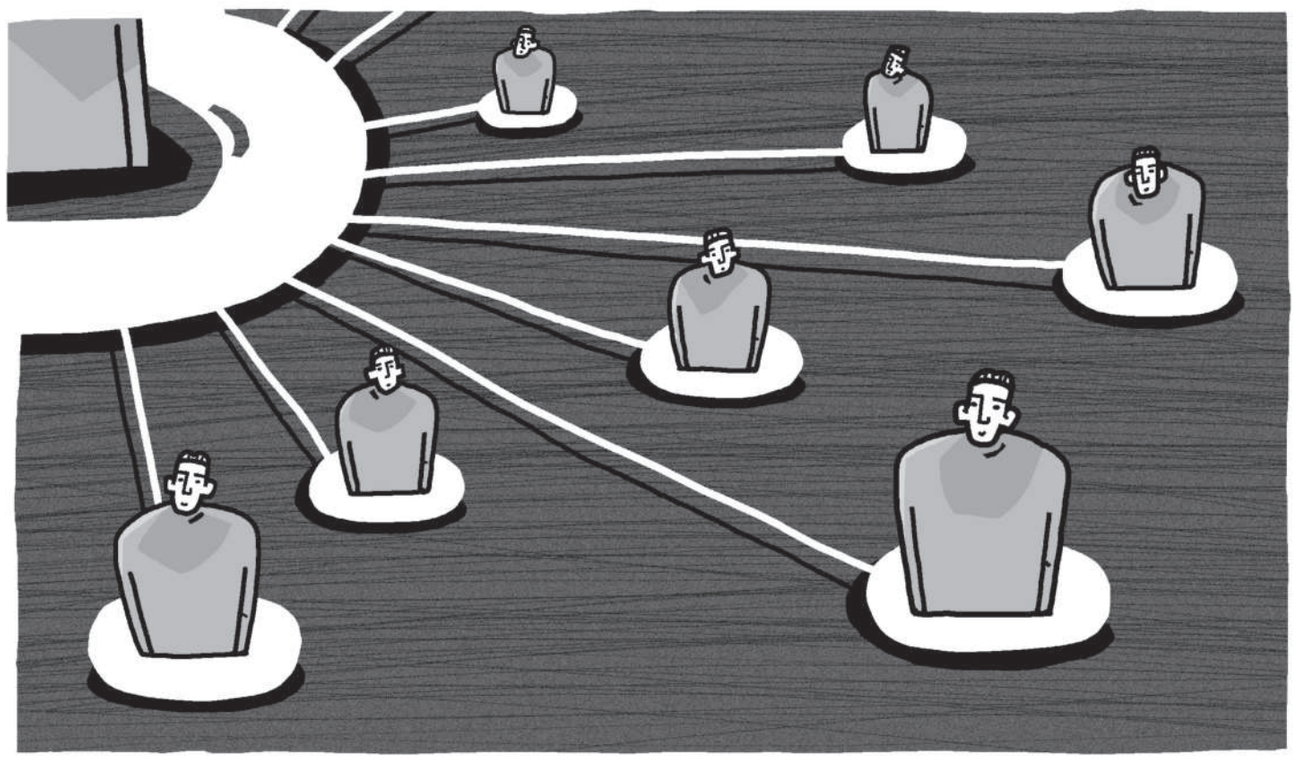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여러분도 기계를 잘 아시죠? 만약에 차를 끌고 다니는 데도 바퀴가 영 굴러가지 않아서 그냥 두면 그 중심인 심봉이 잘 안 굴러가게 되죠. 양면으로 딱 조여 놓고선 이게 그냥 돌아가도 이 중심 심봉은 통 움죽거리지 않고 바깥에 있는 것들만 돌아가죠. 바깥에 붙어 있는 그 다섯 가지의 수레바퀴가, 즉 불바퀴가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물바퀴라고 해도 좋고 불바퀴라고 해도 좋고 보통 그런 수레바퀴라고 해도 좋죠. 그렇게 돌아가는 이 자체, 바로 그것을 바깥에 서서 돌릴 수만 있다면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돌릴 수 있게끔 해 드리려니까 오는 대로 용도에 따라서 거기다 (가슴을 짚어 보이시고) 입력을 시켜라 그런 겁니다. "거기다 놔라." 그러니까 또 놓는 걸 몰라서 도대체 어떻게 놔야 되느냐는 거예요. 왜 그러면 컴퓨터에다가 입력을 시키느냐 이거예요. 나중에 써먹으려고 입력을 번호대로 시켜 놓고, 또 모두 입력을 시켜놔야만이 그놈의 게 전부 일사천리로 해 나갈 수 있어요. 우리도 지금 하고 있죠, 그렇게 자동적으로요.

그런데 그 기계가 그렇게 비싸다고 합디다. 허허허.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도 비싼 거예요. 그보다 더 비싼 겁니다.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돈으로도 바꿀 수 없는 당신이고 여러분입니다. 남들은 어떨지 몰라도 자기 가정 속에서는 대들보예요. 그리고 자기 2세고요. 그런데 뭐,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 테두리가. 하다못해 제비 새끼들도 테두리가 있고 둥지가 있는데 사람들이 집이 없어서야 되겠으며 또 집 속에 식구들이 없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중하다 이겁니다. 모두가 소중하지 않은 게 없어요.

그러니 그렇게 입력을, 들어오는 대로 용도대로 잘된 건 감사하게 입력을 해 놓고 또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것도 거기서 한 거니까 되게 하는 것도 거기서 하는 거 아니야? 거기서 해봐!' 하고 거기다 입력을 해 놓으면 그대로 돌아갑니다. 여러분이 실험하고 체험하면서 당당하게 생활을 할 수 있는 자유인이 되라는 거지 항상 남한테 빌어서 먹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마음이 둘입니까? 셋입니까? 하나도 없는 것이 너무도 천차만별로 돌아가면서 마음을 쓰기 때문에 하나도 없다는 거며 공했다는 거며, 움죽거리는 것도 그렇고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게 다 그래요. 보는 것도 그렇고. 항상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 '공했다'라고 부처님들이 말씀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 없다는 사람도 있고, 비었다는 사람도 있고, 공했다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이름은 있지만 그것은 하나에 속해. 하나의 뜻에 속해요.

여러분한테 이렇게 자세히 얘기해 드려도 참…. 그러면 그 다섯 가지가 붙어 돌아가는데 레이더망이 제일 위에 붙죠. 누구든지 주장자를 가지면 거기다가 용머리를 갖다가 떠억 붙여서 주장자를 만들죠? 그게 무슨 뜻이냐? 내 주장자 하나로 인해서, 이 주장자를 깊은 물로 비유한다면 용이 들고 나고 들고 나고 춤을 추더라 하는 거죠. 그러니 이 레이더망이 바깥에서 오는 거 안에서 일어나는 거를 전부 보고를 해 들이면 안의 컴퓨터에 입력이 돼 가지고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을 잘해야만 대뇌로 해서 저 컴퓨터에 입력이 되지 않겠습니까? 좋게 입력을 하시라 이겁니다. 왜냐? 꿈을 꾸고도 이것은 '아이구! 꿈이 언짢아. 언짢으니까 이거 무슨 탈이 또 날 거야. 이거 어떡하면 좋은가?' 아이, 요렇게 생각을 하니 고게 고렇게 입력이 돼 가지곤 좋게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참, 웃으면서 입력을 할 텐데도 불구하고, 하늘이 무너진대도 '아이구, 네가 있다면 하늘이 무너진들 어떻고 땅이 무너진들 어떠랴.' 하고, 나 이 자체가 죽고 살고 하는 것을 다 버리라는 게 아니라 그냥 놔 버려요! 그냥, 생각이 없어요. 지금 금방 죽는대도 생사를 다 놔버려요!

보살은 생사를 버리지 않죠. 그런데 중생들은 생사에 끄달리거든, 좋아하고. 죽고 사는 거 아주 그냥 그거에 얽매이죠. 그래서 마구니나 외도들은 소견을 좋아하지만 보살은 소견에 흔들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죽어야지, 죽지 말아야지' 하는 거를 둘 다 놓으란 말이에요. 나중에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까짓 거 한 번 죽지 두 번 죽나요? 그러니까 보살은 버리지 않는다 이거죠. 양면을 다 버리지 않는 거죠, 놔 버리니까.

여기에서 또 인과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고걸 어떻게 해야 더 자세히 얘기해 드리죠? 그것은 입력하는 것만 잘하시면 돼요. '내가 이다음에 죽더라도 아프지 말고 죽게 하는 것도 너밖엔 없다.' 이러면 입력이 돼요. 여러분이 소신껏 맘대로 쓸 수 있는 것인데도 아, 이건 그냥 아주 절벽이야, 절벽! 그러곤 나한테 와서는 "집을 사야 할 텐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날짜를 어떡했으면 좋겠습니까?" 아, 이러고 물을 때는요, '야, 내가 이날까지 이럭하고 있었던 본의가 뭐 있나?' 하는 생각이 나고 눈물이 주루루 흐른단 말입니다. 나를 좀 덜 울리려면 여러분이 좀 더 그 철벽을 뚫으세요, 좀! 아주 그냥 간단하게 그렇게 입력하는 것이라는 걸 지금 얘기해 드렸습니다. 오신통이 무슨 이럭하고, 지난번에 그러다가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안 되겠어요. 그대로 그냥그냥 얘길 해 드려야지.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자력이나 전력이나 통신력이 뒷받침을 하고 있다고, 무한량 뒷받침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레이저 그, 광력에 대한 그것을 안에서 받아서 레이저 치료를 하

☞ 22면으로 계속



삶의 고해(苦海)를 건너가는 지혜의 가르침

삶은 苦가 아니다

"살아있는 탑에는
개개인의 살림살이와
보이지 않는 곳의 마음이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탑은, 거꾸로 세워놓아도 바로 세워놓아도
모로 세워놓아도 뒤집어서 세워놓아도
세상을 모두 하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2009년 4월 9일, 책 표지에 탑을 형상화하여
넣으라시며 탑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행 스님의 법문입니다.

대행 큰스님의 생활 속 불법 이야기

인생은 고통이 아닙니다.
생로병사의 괴로움이 있다고 하나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부처님의 감로법이 있기에 고통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
즉, 불성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불성을 이름하여 한마음이라 하였습니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보배입니다.
이렇듯 내 집 창고에 보배가 가득한 줄도 알고
보배 창고 얘기도 많이 들었지만
열쇠가 어디 있는 줄 모른다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마음공부는 열쇠를 얻기 위한 공부입니다.
누구든지 열쇠도 갖고 있고 곳간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열쇠를 갖고도 열지를 못한단 말입니까?
마음이 곧 그 열쇠입니다.
- 본문 중에서

10,000원 | A5 | 287쪽 (택배비 별도)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지금 금방 죽는대도 생사를 다 놔버려라

☞ 21면에서 계속

고 이런다는 것도 있죠? 그런데 사람이 이 도리를 모르고는 그 자리를 찾아내기도 어렵습니다. 속에 있는 것은 속에서 그거를 해야, 입력을 해서 이놈들을 시켜서 그냥 치료를 해야 되는 거죠. 안에도 지수화풍이 돼 있어서 안에도 광력이 있고 전력이 있고 자력이 있지 않습니까, 외부에도 있고. 크고 작은 것도 없어요.

마음은 벽이 없어요. 지금 여기 앉으셨어도 천 리를 다녀오라고 해도 다녀올 수 있어요. 아니, 저 딴 혹성에 갔다 올래도 올 수 있어요. 또 그것만이 아니에요. 천체를 다 보고 오라고 그래도 보고 올 수 있어요. 안에서도 레이저의 도구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안에서는 안에서 치료를 하고 바깥에서 할 것은 바깥에서 치료하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정신분열은 바로 그 지배인이 끌고 가게끔, 주인공이 끌고 가게끔 자꾸 입력을 넣어 주는 거죠. 제 컴퓨터에 입력을 넣어 주는 겁니다.

옛날에, 어떤 사람이 외아들을 둬 가지고 아주 애지중지 길렀습니다. 그런데 아, 장가를 들여 놓으니까 얼마 안 가서 부모들 모르게 그냥 땅도 뒷구멍으로 다 팔아 가지곤 시골집 뭐, 몇 알갱이나 나가겠습니까? 아무리 좋아도. 시골집 하나 남겨 놓고 홀딱 가지곤 그냥 둘이 튀었어요. 허허허. 시부모 잔소리도 듣기 싫고 농사짓는 것도 귀찮고 그러니까 꼬였겠죠. 그래 가지곤 둘이 훌쩍 딴 나라로 그 돈을 가지고 갔어요.

갔는데 부모는 어떻게 됐느냐? 부모는 살면서 이때나 들어올까 저때나 들어올까 하고 기다리면서 그 땅을 다 팔아 가지고 집 하나만 남겼어도 부모는 생각이 이랬어요. 처음에는 괘씸하다가 나중에는 보고 싶었다가 나중에는 '이것이 어떻게 살고 있나? 이게 돈을 가지고 있어도 그거 몇 푼 금방 쓰면, 돈 다 없어지면 이것들이 어떻게 사나. 죽었나 살았나.' 이게 항상 걱정이죠. 돈 가져간 미움은 하나도 없어지고, 이것이 그저 잘 살고 어디 가서라도 우리는 안 찾아보더라도 그저 이것들이 속 썩지 말고 병들지 말고 그저 굶지 말고 잘 살았으면 하고 항상 기도를 해요.

그러다가 이제는 그 집도 팔아 가지고선 그냥 절로 들어갔어요. 절에 들어가서 한 분은 공양주는 힘에 부쳐서 못 하지만 반찬 만드는 채공 노릇을 했고 하나는 부목, 나무는 해 오지 못하나 불 때고 나무 패고 이러는 부목 일을 맡아 가지고선 했어요, 부부가.

그렇게 하다가 그만 그 절에서 죽었어요. 죽어서 그 이웃에 다시 태어나서 그 절의 스님이 됐어요. 부부가 다 스님이 돼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끈한 비구승으로 어엿하게 이렇게, 그러니까 두 부부가 다 비구로다 태어나서 이제 절에서 있는데, 어느 날 하루는 요, 아, 그 밑에 있는 사제 스님이 나갔다 들어오더니만 하는 얘기가요, 왜, 저 땅을 파 가지고 지붕 하고 그러는 걸 뭐라고 그러죠? 움막이라 그러죠? 길가에 있는 움막을 들여다보니까, 하나는 푸대를 두르고 있고 하나는 옷은 입었는데 영감, 마누라가 다 늙어 가면서 아주 병이 심하고 그랬더라는 얘기죠.

그 얘기를, 참 불쌍하더라고 사형 스님한테 했어요. 그래 젊은 스님이 있다 하는 말이, 인제 남편은 사형이 되고 부인은 사제가 됐어요. 그 사형이 있다 하는 소리가 "그러면 네가 갔다 오너라. 네가 나가서 그 바지저고리를 시주하라고 그래라." 허허허. 아, 글쎄, 바지저고리도 바지저고리 나름이지, 글쎄, 이가서 말은 들었을 테고, 허허, 그냥 헤진 거는 말도 못 하고, 더러운 것도 말도 못 하는데 아니, 그것을 글쎄, 시주하라고 그렇게 내보냈단 말입니다. 그 스님은 불쌍한 마음에,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랬단 말입니다.

그랬는데 마침 자기 은사 스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런 사실 얘기를 다 하니까 껄껄 웃으면서 "그래도 그 천륜은 어디 가지 않는구나. 네 자식들이니라, 과거에. 그것이 하나는 며느리고 하나는 네 자식이었던 사람이니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기가 막혀서 스님 앞에 푹 엎드러져서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제가 그렇게 과거에도 빌었고 현실에도 빌고 있는데 자식이 그렇게,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하고 반문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은사 스님 말씀이 "부모는 부모대로 자기가 지은 건 자기대로 받고, 이쪽은 이쪽대로지 어디 그게 똑같으냐?" 이겁니다. "아무리 줘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릇에 담기지가 않느니라. 그릇에 욕심과 삼독이 꽉 찼는데 어떻게 네가 주는 그 기도와 베푸는 자비를 받아들일 수가 있겠느냐?" 하시니까 거기에서 그만, 그 형 스님은 인제 동생이 올 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랬는데 시주를 하라니깐요, 이 옷 한 벌 있는 거를 마저 시주를 해 달라느냐고, '아이, 옷 한 벌 있는 거 달라는 스님 난 처음 보겠네.' 이러면서 야단법석이거든요. 하하하. 아니, 지금도 그럴 거예요. 나는 그런 소리 듣는데요? 아, 고거 시주하라면 "당장 가난한데 글쎄, 이런 걸 시주하래." 요런 소리 하는 사람이 많지요. 가난하니깐 어떤 때는 "야, 만 원도 좋고 오천 원도 좋아. 그러니까 너 성의 닿는 대로 해 오란 말이야!" 이럴 때가 있어요. 그거는 누구한테나 다 그러지는 않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아, 그냥 호통을 치고 시주하라고 하니까 아, 그걸 두르고 말입니다, 하나가 밥 얻으러 나갈 때는 그 옷을 입고 나가고, 하나가 인제 거기 있을 때는 저, 뭡니까? 푸대! 푸대를 두르고 쓰고 있고 아, 이랬는데, 나가서 밥도 못 얻어먹으라고 글쎄, 그 옷 한 벌을 있는 걸 마저 달라면 어떡하느냐는 거죠. 지금 밥도 얻어먹으러 나가야 할 텐데 그 옷 없으면은 어떻게 나가느냐는 거죠. 그래도 시주하라고 득달같이 그냥 그 거적 문을 들고는 야단을 하니까 할 수 없이 그러면 잠깐만 기다리라고 그러고는 푸대를 반으로 잘라서 새끼로 매어 두르고는 그 옷을 갖다가 "여기 있소!" 그러고 바깥으로 내던지거든요.

스님이 가만히 보니까 그, 말도 못 하는 옷이거든요. 그래서 새끼오락지에다가 꿰어 가지고선 들고 갔어요. 가다 보니깐 그냥 바깥으로 이가 수없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걸 들고요, 이도 그거 살생이라 그러니깐 죽일 수도 없고, 하하하, 그래서 들고는 갔어요. 가니까 아이, 뭐라고 그러냐 하면 은사 스님이요, "얘야! 너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 **하늘이 무너진대도**
> **'아이구, 네가 있다면 하늘이 무너진들 어떻고 땅이 무너진들 어떠랴.' 하고**
> **나 이 자체가 죽고 살고 하는 것을 다,**
> **버리라는 게 아니라 그냥 놔 버리세요.**

하니까 제자가 있다 하는 말이, 그러니깐 그 아버지였던 사람이 하는 소리가 "웃도리는 뜯어서 솜 빼고 깨끗이 빨아서 양잿물 넣고 삶아서 아주 몇 번씩 헹궈서 말갛게 해서는 웃도리는 법당을 닦고, 아랫도리는 저 요사채를 닦아라." 이렇게 사제한테 명을 내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삶아 가지고 그냥 옥사슬같이 빨아 가지고는 노냥 둘이서, 그 아버지는 위 법당을, 그러니까 과거 아버지는 법당을 치우고 아랫도리는 어머니가 치우는 겁니다. 그것이 다 헤지도록 매일 아침저녁으로 그걸 닦으니까 그게 온전합니까? 요만큼 남거든. 요만큼 남아도 그냥 고걸 꼬옥 짜 가지고는 항상 고걸로만 닦아요. 닦다가 보니까 나중에는 부실부실하게 해서 요만큼밖에 안 남거든. 그래 요것을 태워서 말이야, 자기가 가루를 만들어서 물에다 타서 그냥 먹어 버렸어, 하나도 안 남기고. 이 정성이란 말도 못 하는 거야. 응. 그러니 과거의 어머니 아버지였을 때도 그랬고, 현재에 태어나서 비구로서 형제가 된, 사형 사제가 된 그 판국에서도 그것을 그렇게 했다 이겁니다.

그럭하고 나서 그 두 노친네는 그래 밥도 못 얻어먹으러 가고 있는데 아, 동네에서 말입니다, 저 건너, 지금처럼 이렇게 촘촘히 있지 않죠. 저 건너 동네에서 노인네들이 모여서 바둑을 두고 그러다가 문득 생각이 난 거죠. 거지 생각이 난 거예요. 그 두 부부 거지가 요새는 밥을 얻으러 오지 않는다 이거지. 그렇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얘기가 벌어진 거죠. "야! 그럼 노인네가 죽었나 봐. 밥을 얻으러 오지 않잖아?" 이런 자비스런 마음이 생긴 겁니다. 동네에서 한 번도 그런 자비스런 생각이 안 들어갔는데 아, 그런 생각이 들어가 가지고는 그 동네 노인네들과 젊은이들이 그 움막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뒤집어쓰고서는 달달 떨면서 그냥 병이 든 채로 죽어가고 있거든요.

지금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모르시죠? 허허허. 그래서 동네서 그냥 전부 나서서 어느 집 바깥채에다가 그 두 내외를 들게 하고는 뜨뜻하게 불 때고 깨끗이 목욕시키고 깨끗이 입히고, 그래 가지곤 노인네들끼리 봉양을 하고, 전부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봉양을 하게끔, 자식이 없는 노인네들을 어떻게 이렇게 두느냐 그러면서 잘 봉양을 하거든요. 그래서 잘 먹고, 이제 살도 붙고, 옷도 좋은 것 입고, 목욕도 항상 하고 그러니까 병도 낫고, 그렇게 그냥 잘 살죠. 그 동네 사람들이 집도 살펴주고 또 어느 자식 많은 집에서 항상 돌아가면서 보살피거든요.

이 노인네들이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자기 예전 생각이 나는 겁니다. 자기네가 부모를 버리고 도주한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옷 시주한 절에 찾아간 겁니다. 그 두 노인네가 찾아가서 스님네한테 이렇게 말을 했죠. "스님한테 옷 한 벌 있는 거를 입은 거를 벗어서 시주하고부터 이렇게 동네에서 저희를 도와줘서 호강을 하고 있고 잘 먹고 잘 입고 뜨뜻한 데서 잘 지내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깐 저희 부모 생각이 납니다." 인제 그때서야, 그때서야 생각한 겁니다. "제가 젊었을 때에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땅을 팔아 가지고 도주를 했는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어디서 돌아가셨는지 그것조차도 모르고, 이런 불효가 어딨습니까? 제가 그랬기 때문에 인과응보를 받아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이랬는데 스님네들께서 이 옷 한 벌을 시주하라고 그래서 했더니 이렇게 저희는 지금 편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거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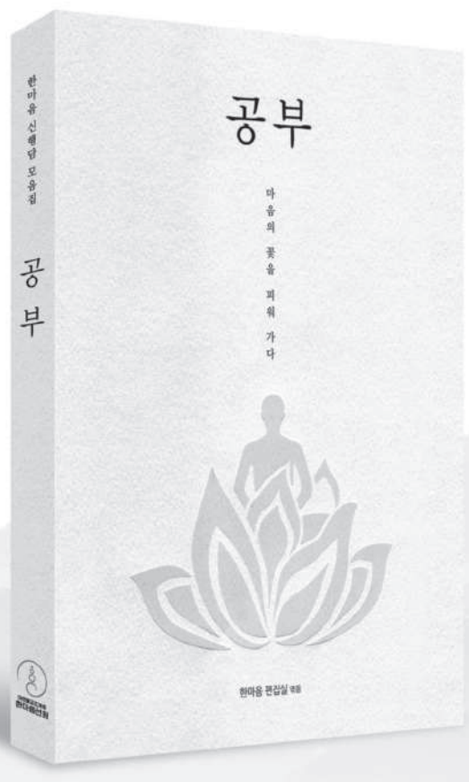
그러니까 그 은사 스님이 얘기를 해요. "자네 아버지 어머니는 여기 계시네." 그러거든요. 그러니깐 "아이구, 그게 무슨 소립니까?" 하고 "제가 이렇게 늙었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살아 계실 리가 있겠습니까?" 하니까, "언제나 사람은 영원한 걸세." 그러면서 "어머니 아버지의 모습은 없으나 그 어머니 아버지가 다시 환생을 해서 태어난 어머니 아버지가 바로 여기 당신들 옷 시주받아 온 그 스님네들일세." 그러고서는 이렇게 "그 스님네들 한 분은 어머니고 한 분은 아버질세. 그 두 분이서 과거에도 자네들을 위해서 그렇게 했지만, 지금 현재에도 그거를 시주받아다가 위 닦고 아래 닦고 해서 요만큼 남는 것까지도 태워서 자기네들이 먹었다네. 그러니 부모의 마음은 이렇다네." 하고선 얘기를 하니까, 아, 거기서 그 스님네들한테 그냥 폭 고꾸라져서 그냥 손을 쥐고 벌벌벌벌 떨고 그 자리에서 그냥 가 버렸어요, 너무 억장이 무너져서요. 그랬으니 글쎄, 그 부모 손에 또 간 거야, 그냥. 그 어루만지면서 다 씻겨서 또 그렇게 해서는 승천했어요. 지옥으로 보내지 않고 자기가 다 떠안은 거죠. 의식은 자기한테다 넣고 그 무명만 치운 거죠. 그랬으니 자식들은 산 거죠, 또. 그래서 내가 하는 소립니다. 자기 마음 편안하기 위해서지 그 자식들을 위해서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자세히 가르쳐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날더러 어떤 분은, 경을 달달 외우신 분들은 부처님의 경 얘기는 안 하고 이런 얘기 한다고 그러죠. 질서도 없고 체계도 없고 이렇다고 그러죠. 그러나 본래 체계 없는 게 진리기 때문에 또 질서 정연하게 체계가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게 이렇게 변천해 돌아가니까 우리는 마음의 인등을 켜고 앞장서야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늦어요. 여러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늦는다는 거를. 버스 지나간 뒤에 버스 타려고 아무리 기다리고 서 있어도 이미 늦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는 대로 용도에 따라서 배가 고프면 밥을 먹고 똥 누고 싶으면 똥 누고 목마르면 물 먹어라 이겁니다. 그냥 오는 대로 거기 입력만 해 넣어라 이거예요. 그러고는 '관(觀)하라!' 이런 거는 지켜봐라 이거거든요. 지켜봐라! 지켜보면 그것이 바깥으로, 입력됐던 거니까 바깥으로 탁, 팩스에서 나오듯이 탁, 탁 나오거든요. 그런 게 실험과 체험이죠.

※위 법문은 1990년 3월 18일 정기법회에서 설법하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마음의 꽃을 피워 가다 공부



한마음선원 신행 포교지인 〈한마음〉에 실렸던 신행담들 중에서 일부를 선별하여 엮은 책입니다.

《공부》는 마음공부에 관한 책이자 인생 공부에 관한 책입니다.

길을 함께 걸어가는 도반들의 진솔한 이야기,
다시 꺼내 보니 새삼 와 닿는 이야기, 그래서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고픈 39편의 다양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한마음 편집실 엮음 | 256쪽 | 값 12,000원

판매처
- 현대불교신문사 02-732-1520
- 운주사 02-3672-7181
- 한마음선원 본원 무진향 031-470-3118
- 전국 온라인 서점 판매
- 온라인 주문 마하몰 www.mahamall.co.kr
  한마음 블로그 『한그루의 숲』 http://blog.naver.com/hanjournal1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13908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282
TEL : 031)470-3100 FAX : 031)470-3116
www.hanmaum.org

현불 논단

LH사태와 인과응보

〈因果應報〉



석길암 교수
동국대 경주캠퍼스
불교학부

LH임직원 토지투기 사회적 충격
내부 정보 활용한 조직화 의혹도
국회, 처벌 관련법 입법화했지만
부동산투기의 근본 대책은 묘연

정부 일방적 개발방식의 부작용
실패 요인은 현정부 문제 아냐
부동산 향한 사회적 인식 지적

더불어 사는 사회 만들기위해
함께 고민하고 변화해 나가야

LH 임직원들의 토지 투기로 사회 전체가 불끈 달아오르고 있다.

그런데 LH 임직원을 비롯한 공무원의 투기와 관련한 처벌법은 일부라도 만들어진 모양새이지만, 실제 그것이 부동산 투기를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회의적이다. 정보화 사회에서 개발과 관련한 정보를 선점한다는 것은 '막대한 투기이익'과 필연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막대한 이익'은 유혹일 수밖에 없다. 처벌이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아니며, 신도시 개발의 방식을 바꾸어야 한다는 소리가 나오는 것도 그래서일 것이다.

내부 비밀 정보의 선점을 통해 얻은 투기이익을 환수하고 처벌한다는 자체는 나쁘지 않다. 그리고 그런 개인은 처벌해야 마땅하다. 하지만 그런 구조를 묵인해온 정책적 대응은 질타 받아야 마땅하고, 정부 정책에 따른 일방적 개발방식이 부른 사회 전체의 부작용을 도외시하는 우리 사회의 인식도 바뀌어야 할 것이다.

혹자는 현재의 문재인 정부에 부동산 정책 실패의 책임을 묻는다. 하지만 한 정부의 문제는 아니다. 우리나라의 최근 50년 개발의 역사에서 부동산 투자 혹은 투기가 실패한 적이 언제 있었는가를 물어보면 그 대답은 자명하다. 우리 사회 전체가 그런 개인을 방조하고 또 편승해왔기에 일어난 결과가 LH 사태라고 해도 쉽게 부정하기 힘들 것이다.

'아파트 불패'라는 시중 격언이 그래서 나왔다. '이생망(이번 생은 망했어)'이라는 젊은 청년들의 자조 섞인 푸념도 근원을 따지면 다른 데서 나온 것이 아니다. 평생을 노력하고 일해서 받은 봉급으로는, 한 푼 사용하지 않고 모아도 접근이 불가능한 집들이 우후죽순이다. 주거비용만으로도 이번 생에는 만회할 방법이 없어서 나오는 소리다. 주거비용을 감당하는 것에 이번 생을 저당 잡혔으니 나오는 말이 '이생망'이다.

LH 사태에서 투기 내력이 밝혀져 처벌되는 사람에게 인과응보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물어보자. '이생망'을 자조적으로 읊조리는 이 땅 청년들의 탄생이라는 과보에서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 나머지의 우리는 과연 자유로운 것인가? 청년들의 절망을 만들어내는데, 투기하지 않고 투기에 편승한, 그리고 집값 상승의 불로소득을 즐겁게 받아들인 나머지 땅주인, 집주인은 책임에서 자유로운 것인가?

부처님은 삶에 주어지는 생로병사 우비고뇌의 어느 것도 인과응보를 벗어나는 것은 없다고 가르치셨다. 원인과 결과는 반드시 호응하여 나타난다.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과보로서의 사회현실은 우리 스스로에게서 비롯된 것이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말하지 말자. 그렇게 하는 것을 용인하고는 있지 않았던가?

인과응보의 호응은 두말 할 것도 없이 '선인락과(善因樂果) 악인고과(惡因苦果)'이다. 좋은 원인을 제공했으면 좋은 결과를 받고, 나쁜 원인을 제공했으면 좋지 않은 결과를 받는 법이다.

악업을 지은 자가 나쁜 과보를 받는 것도, 선업을 지은 자가 좋은 과보를 받는 것도 당연해야 한다. 우리가 적당히 외면하고 적당히 이득을 누리며 응당 했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투기를 하는 개인도 그러한 투기판을 만든 정책도 스스로 '공정'이고 '정의'이며 '합당한 이익 실현'인양 가장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번 사태는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 특히 서로 다른 계층 사이에 불거지고 있는 '이생망'이 극단적으로 표출된 사례이다.

굳이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인과응보를 강조하지 않아도,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성취하려면 너무나 자명하고 놓치지 말아야 할 사실이다.

社 說

재한 미얀마 유학생에 관심을…

미얀마 쿠데타가 발생한 이후 두 달이 지났다. 날로 심각해지는 미얀마 사태에 한국 국민과 불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얀마에서 벌어지는 작금의 상황들이 대한민국의 과거와 사뭇 닮았기 때문일 것이다. 우선 5.18 광주항쟁을 비롯해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한 국민들의 처절한 행동과 이를 억압하기 위한 폭력적 탄압이 닮았다. 어려움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평화시위에 나서는 국민들의 모습도 우리의 과거에 투영되고 있다.

미얀마 현지의 처참한 상황들이 외신을 통해 알려지면서 불교계의 안타까움도 커지고 있다. 미얀마는 국민의 90% 가량이 불자이며 사람들의 삶과 일상 속에 불교가 깊이 스며있는 불교국가다. 승가의 인정을 받지 못한 군부의 횡포에 미얀마의 정신적 스승인 고승 40여 명이 사찰에 연금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얀마 민주화를 위한 지원기금 모연이 이어지고 있지만 현지 은행업무가 마비되면서 실제 전달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이런 가운데 한국에 거주하는 미얀마 유학생들의 안타까운 사연도 전해지고 있다. 외화 송금 제한으로 본국 가족들로부터 지원되던 학비와 생활비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장학금을 받지 못하면 학업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며, 이는 쿠데타가 장기화될수록 생활의 어려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미얀마 유학생들의 어려움을 알게 된 일부 개신교계 단체 및 교회에서 개종을 전제로 장학금 지원을 권유하는 사례도 발생해 안타까움을 더한다. 미얀마 유학생들 역시 상당수가 불자다. 한국에서 본국 민주화를 염원하며 마음을 졸이고 있는 유학생들을 위해 불교계 관심이 필요한 때다.

혜택 · 재정기간 확대한 승려복지회

앞으로 조계종 기본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사미 · 사미니도 승려복지 혜택을 받는다. 또 승려복지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승려복지기금으로 토지 · 건물 등을 매입 · 운용할 수 있는 공식적인 절차도 마련됐다. 이는 조계종 중앙종회가 3월 23일 제220차 임시회에서 의결한 '승려복지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다.

개정안은 승려복지회의 지출을 승려복지 지원금 및 승려복지회 운영을 위한 각종 경비 등으로 한정한 기존법의 지출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승려복지 재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종단에 대한 인식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적립된 승려복지기금을 단순히 예치하는 것을 넘어 복지시설 건립 및 부동산 매입을 통한 수익 확대 등을 도모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번 개정은 안정적인 재정확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에서 이뤄진 셈이다.

기금을 부동산 매입 등으로 활용하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시각이 많았다. 은행예금으로 적립한 기금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재정확대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다만 어디까지나 안정적인 형태의 지출이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의견을 함께했다. 이를 통해 승려복지의 일환으로 스님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이란 기대다.

승려복지기금의 수혜대상을 대폭 확대한 점도 긍정적이다. 승려복지 기본부담금 납부대상이 아닌 사미 · 사미니 스님도 기본교육기관에 재학 중이라면 입원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재원확보 방안 확대를 통해 혜택의 범위를 넓히기 위한 의미있는 노력을 이어가는 승려복지회의 행보가 주목된다.



담마끼띠 스님의
다문화법당서 보낸 편지

스리랑카선 맨발 참배가 예절

한국에서는 사찰(절)에 도착하면 대웅전 참배가 먼저입니다. 그러나 스리랑카에서는 사리탑(Dagaba) 참배를 우선시합니다. 부처님의 사리와 경전을 모셔 놓은 사리탑을 스리랑카 사원에서는 중시하기 때문입니다. 아산 마하위하라 사원에는 비록 사리탑은 없지만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셔 놓은 사리함이 있습니다. 앞으로 언젠가는 사리탑을 세우겠다는 발원이 있습니다. 스리랑카 사원의 진정한 완성은 사리탑이 완공된 이후를 그 기점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는 보리수나무 참배입니다. 오늘날 보리수나무는 붓다의 상징으로 숭배와 존경을 받습니다. 또한 보리수나무는 불자들에게 '살아있는 붓다'를 상기시킵니다.

그중 가장 인기 있는 의식은 코코넛 오일 공양인데 불길한 행성의 결합으로 발생하는 악운을 피하고자 하는 바람이 담긴 것입니다. 이 의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꽃, 우유죽, 과일, 구장나무, 의약용 오일, 장뇌, 동전 등을 제물로 바칩니다. 향기가 나는 물로 나무를 적시는 의식도 필수적입니다. 향과 장뇌기름을 태우는 것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제물을 바치는 이는 적절한 시를 낭송하며 한 번 혹은 세 번 나무 주위를 돕니다. 스리랑카에서는 보리수나무 숭배가 가장 중요한 의례 중의 하나로 스리랑카 문화산업 개발에도 이러한 의식이 지대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마하위하라에서도 한국과 스리랑카 교류 40년을 기념하여 3년 전에 이 보리수나무를 모셔왔습니다. 이에 다음 달은 스리랑카 설날로 이를 기념하여 보리수나무를 신축한 온실에 모셔 놓을 계획입니다. 사찰에서는 아무 보리수나무에 참배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께서 성도하신 나무의 씨를 이어받았다는 사실을 국가가 승인한 나무만을 모십니다.

세 번째는 대웅전(Vihara) 참배입니다. 스리랑카에서는 위와 같은 세 곳을 차례대로 참배합니다. 대웅전에서는 부처님께 아침, 점심 공양을 올립니다. 유독 한국과 달리 스리랑카의 사찰에서는 저녁 예불을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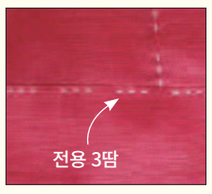
스리랑카에서는 사찰 정문에서부터 신발을 벗어야 합니다. 양말조차도 신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는 법당에 들어갈 때 양말을 신는 것이 예의지만 스리랑카 불자들은 벗는 습관이 있어서 한국의 사찰에서 법회를 볼 때 대웅전에서 양말을 벗고 다니는 것은 가장 큰 불교 문화적 차이 중의 하나입니다. 이는 대부분의 한국이나 스리랑카 불자를 불편하게 합니다. 이에 마하위하라 법당은 불자들 각자 양말을 신든 벗든 익숙하며 편한 대로 규정하거나 제약을 가하지 않고 입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사찰 마당에서는 신발을 벗고 다니는 것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스리랑카에서 여성의 경우 짧은 옷이나 노출된 옷을 착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모든 불자들은 사찰에 갈 때 흰옷을 입고 가야 합니다. 흰옷은 마음의 청정함을 상징하며 평등을 뜻합니다. 한국에서 사찰을 방문할 때 쌀, 초, 과일 등을 부처님께 올리는데 스리랑카 법당에서는 꽃, 향, 초, 코코넛 오일 등을 올립니다. 사찰에서는 위와 같은 예의를 갖추고 예불하고 경전을 독송하면서 공덕을 쌓아 올립니다. 윤회를 진실하게 신봉하는 스리랑카 사람들은 공덕을 짓는 행위를 통해 내생에 반드시 좋은 곳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믿고 이를 기원합니다.

〈충남 아산 마하위하라사원 주지〉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김재진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대 구 지 사 : 010-2813-8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불기 2565년 건학75주년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한 자비로운 인격 완성
학교법인 광동학원
이사장 황일면
광동고등학교 교장 이천기
의정부광동고 교장 김석희
광 동 중 학 교 교장 김중철
법인사무국장 정용수
수 석 교 법 사 권준희
주소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로 광동1길 10
법인사무국 : 031-572-0559

만복승복(가사)
특허권자가 승복을 지으면 뭔가 다릅니다!!
본 승복사는 가사를 전문적으로 짓는 업체입니다. 가사를 어떻게 하면 더 좋고 더 멋있는 가사를 지을 수 있을까 노심초사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업체입니다. 만복사(승복사)는 미싱 가사가 아닌 수가사식으로 지은 전통 3땀 가사이오며, 타 업체 가사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가사의 가로, 세로의 크기가 거의 오차 없이 정확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음 놓고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땀 가사로 발명특허까지 출원하여 많은 스님들께서 좋아하십니다. 믿고 맡겨주십시오.




만복승복
010-3258-3568 / 031)844-5233
의정부시 의정부동 160번지 라동 23호(제일시장 내)

침향 향기나는 초 침향초
- 대중이 모일때 가장 적합한 초 -
침향은 예로부터 향료로 피워 극히 귀한 기운을 갖는다고 전해집니다.
침향을 피워 향기를 맡게 되면 정신이 맑아지고 집중력이 높아집니다.
법당, 집, 사무실, 기도처 등 다양한 곳에서 침향의 향기와 함께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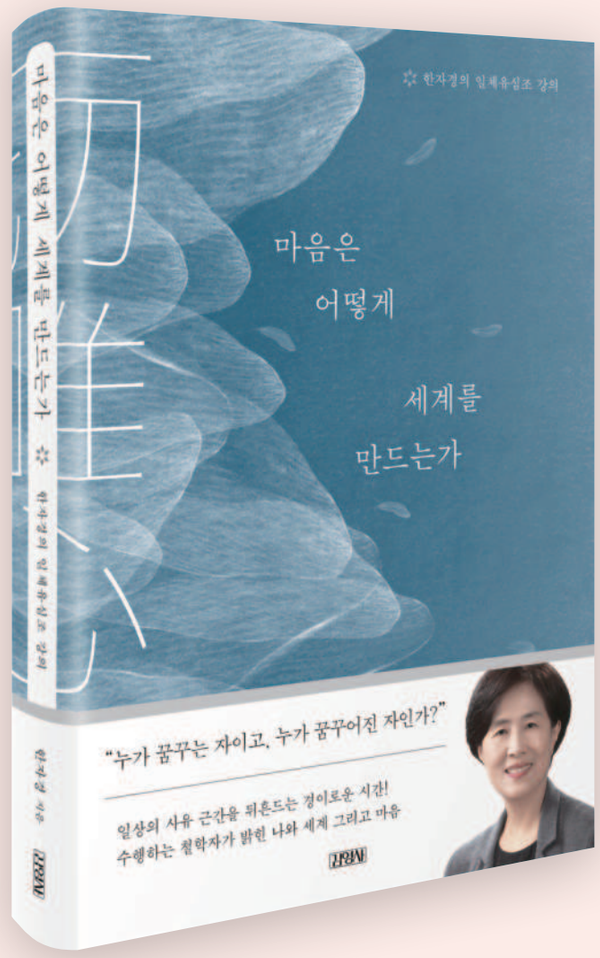

식물성 침향초
연꽃칠성촛대
연꽃촛대
밀납PC컵초 크리스탈받침(별도판매)
연꽃 크리스탈 촛대
양초 보시 대행
해광산업 031-333-0242 · 010-5848-0189

김영사

마음을 깨닫는다는 것은 인생의 꿈에서 깨어나는 것과 같다

| 한자경의 일체유심조 강의 |

마음은 어떻게 세계를 만드는가



출간 즉시 분야 베스트셀러

'공' '연기' '수행' '일체유심조' '공적영지'로
나와 세계 그리고 마음의 실상을 밝힌 다섯 번의 명강의

나와 세계에 대한 의심을 끝까지 밀고 나가다 보면 결국 닿게 되는 곳이 본래 마음자리다. 이 책은 그 길에서 든든한 동행자가 되어줄 것이다. **수불 스님 · 안국선원 선원장**

전문적 학식을 대중적 열망에 접목하기는 쉽지 않은데, 이 책은 모기 주둥이로 쇠를 뚫어온 독자들에게 뜻밖의 출구와 청량감을 선사할 것이다. **한형조 ·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한자경 | 240쪽 | 14,800원

한자경 이화여자대학교 철학과 교수. '나는 누구인가?' '인간이란 무엇인가' '왜 사는가' 그 답을 찾기 위해 동서양 철학을 종횡무진 넘나들며 40년이 넘도록 깊고 다양한 연구와 저술 활동을 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 《마음은 이미 마음을 알고 있다》, 《심층마음의 연구》(반야학술상), 《대승기신론 강해》(불교출판문화상대상), 《불교철학과 현대윤리의 만남》(원효학술상), 《불교의 무아론》(청송학술상), 《칸트와 초월철학》(서우철학상), 《실체의 연구》, 《성유식론 강해》 등이 있다.

본래 정해진 길, 그런 길은 없다
가면 열리는 길, 그런 길은 있다

화제의 신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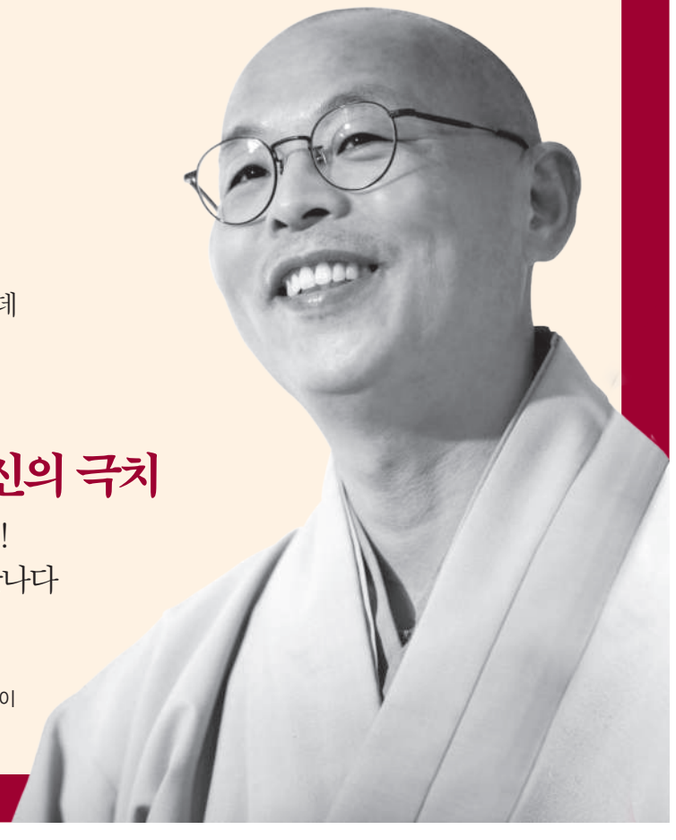
중심 中心

극단의 세상에서
나를 바로 세우다

법인은 설법하지 않는다. (…) 그러다 어느 대목에서 한마디 하는데
그 짧은 한마디가 괴로움으로 꽁꽁 뭉친 마음 한 귀퉁이를
죽비처럼 가격한다. **황지우 시인**

46년 출가의 길에서 길어올린 인문정신의 극치

고집불통 같은 중심이 아닌, 받아들이며 단단해지는 중심!
소중한 가치를 지키되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를 만나다



법인法忍 1976년 중학교 3학년 때 광주 향림사에서 출가했다. 실상사 화엄학림 학장, 조계종 교육부장, 참여연대 공동대표를 지냈다. 2000년 해남 대흥사 수련원장을 맡아 '새벽숲길'이라는 프로그램을 열어 템플스테이의 기반을 마련했다. 현재 실상사 대안학교에서 인문학을 가르치며, 월간 〈참여사회〉 편집위원장으로 일상에서 깨달음이 빛나는 삶을 추구하고 있다.

김영사 TEL: 031-955-3100 www.gimmyoung.com 책은 서점에 있습니다.